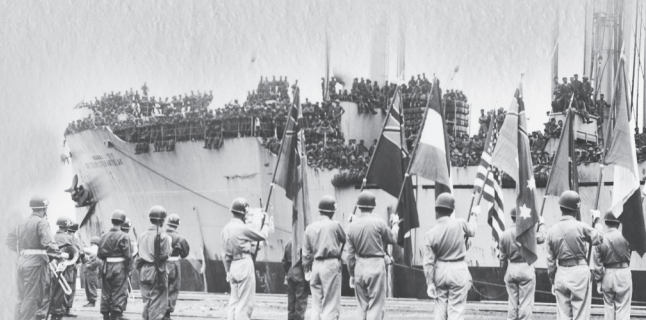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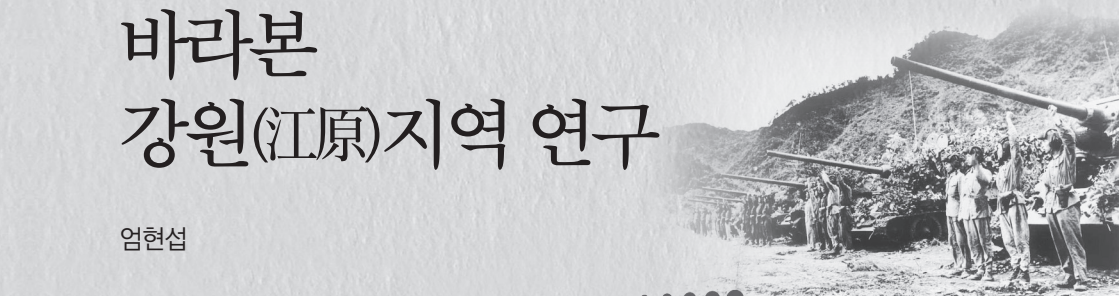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엄현섭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Inc)와
『그레이비어즈(The Graybeards)』

엄현섭

—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

서문

미국(美國)이란 대한민국(大韓民國)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가? 필자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어머니 식구들은 피난을 가게 되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 당시 외할머니는 임신한 상태였다. 종로의 집에서 걸어서 분당 근처에 오게 되었는데 미군 공군기가 폭격을 가했다. 그 여파로 외할머니는 임신한 상태에서 죽음을 당했고 여동생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외할아버지는 머리가 큰 흉터가 있었는데 당시 미군 공군의 폭격을 맞아 생긴 상처였다. 폭격이 있은 후 어머니와 남동생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미군에게 발견되어 미군 캠프에 있게 되었다. 당시 전쟁고아들은 이렇게 미

군 캠프에 있으면서 고아원이나 위탁시설로 보내졌다. 그러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이 미군 트럭을 타고 가는데 시장 근처에서 외할아버지를 극적으로 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트럭에서 ‘아버지~아버지~’하고 소리쳤고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미군은 두 가지 모습을 보였다. 하나는 죽음을 선사하였고, 두 번째는 보호를 해 준 것이다. 미군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한국전쟁 후 변변한 산업시설이나 물자가 없었던 한국은 그나마 미국의 원조와 주둔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건 및 근로자 급여로 지역 경제가 지탱된다고 할 정도로 삶의 기반이 취약하였다. 미군의 철수는 기지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시 의식되어 미군 철수 및 기지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군 Camp가 철수하는 부지에 공원을 설치하겠다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기지 이전을 독려하고 있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강원도만큼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한국전쟁은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가장 마지막에 종식되었다. 특히 강원지역은 한국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며 UN군의 치열한 전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강

원의 지역성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문학적 소통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인문학적 비전과 패러다임을 요청하는 시대를 맞아 현재는 지역연구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인류의 문명사를 재량 해오던 유아적(唯我的)인 ‘서구 문명 중심주의’는 이제 설득력을 잃고 빛을 발하여가고 있으며, 천시되고 도외시되던 ‘주변 문명’, ‘저급 문명’이 점차 위상을 되찾으면서 문명 간에는 다른 문명을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의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한국 내에서의 중심/주변의 이분법적인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역에 대한 합당한 이해와 새로운 재인식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해외 참전 용사들은 많은 경우 행정당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기계적으로 동원되는 수단으로서 초빙되곤 한다. 필자가 사전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영국참전협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직시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한국전쟁의 역사를 기념할 기회를 마련해왔다. 그래서 그들 국가의 상징적 장소에 여러 기념비 건립을 추진했으며, 나아가 한국 전적지에도 다양한 기념물을 남김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전쟁을 기념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해외 참전 용사들의 이러한 눈물겨운 작업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스토리와 기록을 체계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공유토록 하는 것은 국내 연구자들의 중요한 책무이다.

특히 해외 참전 국가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참전 병력은 연인원 178만 9,000명이며, 지상군의 경우 전쟁 기간 중, 국군을 제외한 유엔군 병력의 80%를 차지했다. 미 지상군은 제8군 사령부 예하 3개 군단(제1·9·10군단), 8개 육군사단(제24·25·2·7·3·40·45보병사단 및 제1기병사단), 1개 해병사단(제1해병사단), 그리고 2개 연대전투단(제5보병연대·제187공수연대) 및 이들의 지원 부대들이 투입되었으며, 전쟁 기간에 최고 병력이 30만 명에 달했다. 해군은 미 극동해군 사령부의 해군 및 제7함대의 전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제90·제95기동함대를 주축으로 작전 상황에 따라 해상 작전 또는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고, 해군 항공 부대는 공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미 공군은 극동공군의 통제하에 제5공군과 전략폭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기 위한 폭격과 유엔 지상군이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접지원 작전을 펼쳤다. 미 공군은 전쟁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북한군과 중공군에 큰 피해를 줘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미군은 전쟁 기간 중 전사 3만 6,94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 13만 7,250명의 인적 손실을 겪어야 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42개 주와 괌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총 140여 개에 이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감사한 분이 계시다.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소장 김풍기 선생님이다. 선생님께서는 강원학 발전을 위해 지금

까지 엄청난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계시며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강원학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책이 있기까지 선생님의 후원과 지원이 없었으면 나오기 힘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강원학연구센터장이신 장정룡 선생님과 이 연구의 실무를 맡아주신 정지연 선생님은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다. 이분들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이 책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엄현섭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01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019
	3. 국내외 연구 성과 검토	022
II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Inc)와 전쟁인식	1. 미국의 자료 상황	034
	2. KWVA 약사(略史)	037
	3. 한국전쟁의 성격과 강원(江原)	042
III 『그레이비어즈(The Graybeards)』속의 한국전쟁(韓國戰爭)	1. 개전(開戰) 초기	058
	2. 유엔과 미국의 개입	061
	3. 1945년에서 1950년까지	070
	4. 태스크포스 스미스(Task Force Smith)	073
	5. 미국방어정책	076
	6. 철회 연속	080
	7. 부산 주변	088
	8. 인천상륙	092
	9. 북한 침공	094
	10. 중국 개입	097
	11. 미국 정책	102
	12. 휴전선과 전투전선	105

IV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지역 - 『그레이비어즈(The Graybeards)』를 중심으로	1. 중공군의 7차 공세(攻勢)	114
	2. 철의 삼각지와 크리스마스 회고(回顧)	143
	3. 소양강 전투와 5월 대학살	158
	4. 인제전투	166
	5. 폭참고지	196

V 맺음말	206
------------------------	-----

<부록>	1. 참고문헌	216
	2. 강원도민 의식조사를 통해 본 한국전쟁 심상(心象)	219
	3. 영문초록	230

—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전쟁(韓國戰爭)은 남북한(南北韓)의 국지전에 UN군과 중·러군(軍)이 가세한 전쟁이며 현대 한국의 형세를 결정지은 세계사적 사건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려면 해외 참전국과 관련된 자료 집성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학계는 한국전쟁에 대한 정사(正史) 확립과 더불어 다양한 미시사적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주요 관심이 남·북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참전국과 관련된 자료 구축은 요원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 해외병사들이 노령화되고 사망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한국전쟁의 소중한 증인들이 급격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다. 해외 참전국 및 노병들에 대한 체계적 자료 구축은 한국전쟁 연구를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이다. 해외 참전국들은 한국전쟁 참전 역사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기념비와 상징물 건립, 대규모 박물관 전시, 참전협회 설립, 수백 권에 달

하는 기관지 간행, 전국적 정례회의 주최, 추모식 거행, 문화 프로그램 구축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다. 주요 해외참전국들의 한국전쟁 관련 유·무형유산 집성을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한국전쟁 체험에 관한 구술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같은 미시사적·인류학적 접근은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연구는 남북한의 자료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증언이 대거 수록되어 있는 참전협회 기관지의 수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한 유럽국가(France)의 참전협회는 국내 16곳의 전투 지역을 순회하는 <추모의 길>을 만들어놓음으로써 그들의 후손에게 한국전쟁 참전 역사유산을 남겨주었다. 해외참전국들의 한국전쟁 관련 문화유산은 한국전쟁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생생한 기억으로 연결된다. 이제 해외 참전국들의 다양한 시각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전쟁 연구의 폭을 확장하고 기존의 틀을 넘어선 담론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美國)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한국전쟁 참전 관련 유·무형 자료를 비교적 체계성 있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한국전쟁의 온전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수백만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해외참전국들이 한국전쟁에 대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하다. 이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일말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전용사들이 집결하고 정부 당국이 그들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부, 군, 참전협회, 박물관, 학자 등의 관계 당사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한국전쟁 관련 유·무형 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해나가고 있으며, 풍성한 사료 확보를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성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려면 해외참전국의 다양한 자료를 집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참전국들의 한국전쟁 관련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참전용사들의 협회 창립 제안과 정부의 승인 및 지원, 참전협회 활동, 기념물의 건립, 사료와 증언의 확인, 학계와 박물관의 협조를 통한 전시회, 해외참전국 관계 기관들의 상호 지원, 정부·참전용사들·일반 대중의 메모리얼, 매체를 통한 재현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한국전쟁’은 ‘살아 숨쉬고’ 있다. 한국전쟁을 우리만의 역사로 축소시키고 방기(放棄)하지 않으려면 해외참전국의 한국전쟁 관련 유·무형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류·재구성·목록화는 한국전쟁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다. 당시 해외 참전국 병사들의 주축이었던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은 대부분 80대 후반의 노병이 되었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과 체험담을 조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례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참전협회는 많은 회원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활동할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 10월 해산되었다. 프랑스 참전협회의 경우 대를 이어 협회를 운영하라는 전 회장의 유언으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만간 소중한 직접적 증인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참전용사들이 주축이 된 세계 곳곳의 전우회들의 세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지역 한국전쟁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적기(適期)를 놓친다면 한국전쟁 역사의 소중한 기록이 사장(死藏)될 것이며 해외참전 병사들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은 전쟁당사자였던 우리의 의무라고 하겠다. 미국 한국전쟁 참전협회는 정부 당국의 승인과 지원 아래 지난 수십 년간 많은 활동을 이어왔으며 특히 수백 권 이상의 정기 간행물을 남겼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전국은 아직도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이 발행한 저널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고찰·분류·자료화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위상을 주체적으로 정립할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심도 깊은 관련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관련 사항만을 축출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럽, 중·러 지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¹⁾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1) 콜롬비아 참전용사는 5천백여 명, 대부분이 휴전선 부근 ‘올드 볼디(Old Baldy)’라 불리는 ‘볼모 고지’ 전투에 참전해 213명이 사망, 실종됐고 5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은 참전용사들의 사진과 책 등 한국전쟁 기록물을 발굴하고 기념관을

해외 참전용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참전협회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존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에 대해 진심어린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은 많은 경우 행정당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기계적으로 동원되는 수단으로서 초빙되곤 한다. 본 연구의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직시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한국전쟁의 역사를 기념할 기회를 마련해왔다. 그래서 그들 국가의 상징적 장소에 여러 기념비 건립을 추진했으며, 나아가 한국 전적지에도 다양한 기념물을 남김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전쟁을 기념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해외참전용사들의 이러한 눈물겨운 작업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스토리와 기록을 체계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공유토록 하는 것은 국내 연구자들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내에서 한국전쟁 연구는 이데올로기 측면의 문제가 특히 부각되면서 세계사적 연구공간을 창출하지 못하고 지역적인 경향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처럼 연구 중심축이 남북(南北) 대결의 문제에 고착될 경우 세계와의 소통은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한국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던 실제적 양상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자칫 한국전쟁 연구는 고립성에 함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전쟁을 세계사적 사

만들어 전시할 계획이다. 9월 15일 남미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콜롬비아의 참전용사들이 당시 전선의 모습을 촬영한 6백여 장의 사진을 사상 처음으로 KBS에 공개하였다. KBS, 『한국전 참전 콜롬비아 용사들, 사진 첫 공개』, 2019.9.15.

건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참전국들의 유·무형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정리함으로써 한국전쟁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전쟁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전쟁 참여국에서 해제된 비밀문서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조명하고 있다. 일단의 연구자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해외참전국들의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 학계가 국내외 한국전쟁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다룰 수 있을 때 세계와 소통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영국의 ‘제국 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s)은 지극히 방대한 한국전쟁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정부 및 학계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자료를 사본의 형태로라도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해외참전국들의 소중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한국전쟁 연구에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가장 많은 해외참전국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학문적 무관심과 방기가 계속된다면 향후 새로운 지역공동체로 부상하는 동아시아지역의 주도권과 역할에서 소외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은 흔히 말하는 열강(列強)으로서 자신들이 참전한 전쟁에 관해서 높은 수준의 기록 체계와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해 놓았다. 특히 170만 이상의 인력을 투입한 미국의 자료구축

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유럽의 국가들도 나름의 방식대로 상당한 조사 자료를 구축해 놓았다. 이 모든 자료들은 한국전쟁 정사(正史)를 위하여 총체적으로 목록화되고 번역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연구단들과 수십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작업이 실현될 때 우리 학계도 한국전쟁 역사를 주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염두에 두되,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부터 공식화된 사료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시적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접근과는 차별화된 독창성을 갖는다. 즉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전의 주요 전투 참가자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적과 사회적·제도적 관계망, 해당 역사의 물리적 형태화 과정 등을 구성하는 관련 자료를 추적 및 수집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국의 참전협회에서 발행된 잡지 원본을 발굴하고 자료화하고 그 속에 강원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참전협회는 한국전쟁 관련 당사자들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자료이다. 수백 권에 달하는 각국 잡지의 서지사항을 정리하고 목차 및 내용을 통합적으로 자료화함으로써 공시적·통시적으로 조망되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해야 된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협회의 잡지들은 참전용사들의 전쟁 기억, 주요 전투에서의 직접적인 전투 경험, 명령 체계, 그들이 바라본 북한군과 중공군의 모습, 참전국들 간의 관계 등

한국전쟁과 관련된 삶의 역사적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잡지들을 통해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일상 속에서 시대배경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참전협회 발행 잡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잡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연구 및 자료목록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전협회 간행물에 대한 총체적 자료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전쟁기념관과 박물관의 한국전쟁 관련 자료의 질적, 양적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최근 역사학이나 사회과학계에서 한국전쟁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담은 연구 성과 및 공동연구도 진행되고 있다.²⁾ 이러한 연구경향은 한국전쟁과 지역을 하나의 코드로서 접근하는 현지조사와 구술사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지배층보다는 민중들의 생활세계에 주목하고 있고, 기존의 전쟁연구와는 달리 전쟁의 문화사회적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으로 개인의 삶을 추적

2)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99.

하다보면 당시의 생활사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에 부딪칠 때가 있다. 당시의 큰 사건들은 대부분 여러 사람들에 의해 충실히 증언되고 기록된 편이지만,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는 기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적고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역사 속에 실종된 서민들의 사소한 일상이나 어떤 개인의 은밀한 삶의 기록들은, 주어진 당시 정보나 사실 기록들에 근거하여 작가들이 상상을 통해 재조립하거나 허구로 복원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허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반대인 거짓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빠뜨리고 건너뛴 지난 시간의 여백에서 문학은 실종된 개개인의 작은 삶과 행적들을 있음직한 가상의 사실로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다.³⁾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연구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를 연구하고 이것을 연구대상으로 승격시키고자 한 의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美國)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전쟁 속에서 한국전쟁의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 또는 “무시된 전쟁”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KWVA 약사(略史)를 통해서 『그레이비어즈(The Graybeards)』의 위상 및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엄현섭, 「한국전쟁의 표상과 지역문학의 재인식 - 전상국의 동행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60집』, 2014.3.31.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과 지역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전쟁 연구는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고 정치적 역학관계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물론 역사연구에서 이념적 입장과 주관성을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 시선들을 최대한 수집함으로써 폐쇄적 관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전쟁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다양한 관점을 일상과 문화에서부터 미시적으로 수집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전체적 형태를 점진적으로 그려나가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다. 우리의 한국전쟁 연구는 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남북한을 제외한 수십 개 국가들이 참전했던 대규모 국제전이였다. 일례로 중국의 참전 인력 규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백만 명의 몇 배 이상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거의 3차 대전 직전까지 도달했던 전쟁이 한국전쟁이다. 해외참전국들의 관점은 일률적이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민족이나 이념의 문제로 한국전쟁을 규정할 경우 지극히 편협하고 폐쇄적인 관점에 함몰될 우려가 있다.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총체적 관점의 획득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 본질의 인식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압도적으로 상황을 주도한 한국전쟁 상황과 관련하여 유럽 여러 참전국의 한국전쟁 관계 당사자들은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 또는 “무시된 전쟁”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전쟁을 재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획은 물론 한국전쟁의 전모를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대부분에게 잊혀진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함으로써 한국전쟁 연구의 재인식에 기여할 것이다.

3. 국내의 연구 성과

미국, 소련, 중국의 방대한 외교문서와 북한노획문서를 치밀하게 고증하여 ‘도발 받은 정의의 반공격전’이라는 개념으로 한국전쟁 형성사를 다룬 정병준의 연구⁴⁾는 실증성과 문제 제기의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정보의 실패’라는 미국의 전쟁대응 오류를 드러냄으로써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등의 수정주의적 시각에 내재된 중심부 결정론을 반박하고 지역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연구자와는 다른 국내연구의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박태균의 『한국전쟁』⁵⁾은 한국전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저작이다. 이 연구 역시 수정주의의 중심부 결정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 전쟁에서 미국 역시 실

4)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5) 박태균, 『한국전쟁 :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책과 함께, 2005.

패한 당사국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연구와 함께 또 하나의 주목할 최근의 연구 경향이 미시사(微視史)이다.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던 ‘마을’을 단위로 하여 전쟁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려는 연구들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단위의 경험이 개별주체들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각 주체들의 고유의 경험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총체적인 성격에 다가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소련, 북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의도가 기원이나 개선이 한국전쟁의 성격을 모두 말해준다고 볼 수는 없다. 촉발된 전쟁은 기성의 사회관계망을 타고 생활공간에서 특수한 성격들을 ‘형성’시켰으며 한국전쟁이란 그러한 개별적인 사건들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마을’이나 개별주체들의 전쟁경험에 관한 연구는 민족국가 단위의 전쟁연구가 보여주지 못하는 전쟁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작업이다.⁶⁾ 그 영향으로 역사학이나 사회과학계에서 한국전쟁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담은 연구 성과 및 공동연구⁷⁾가 진행되고 있다.

6) 김영미, 「한국전쟁과 마을 연구」, 『중앙사론』3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6, 325쪽.

7) 박찬승, 「한국전쟁과 진도 동쪽 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 현실』39, 2000.

정진상,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한울, 2000.

_____, 「종족마을 간의 신분갈등과 한국전쟁: 부여군 두 마을의 사례」, 『사회와 역사』69, 2006.

이용기,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경기도의 한 ‘모스크바’ 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6, 2001.

김귀옥, 「한국전쟁의 사회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성공회대학논총』19, 2004.

표인주 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 한울, 2003.

김경학 외, 『전쟁과 기억』, 한울, 2005.

이러한 일련의 연구경향은 ‘미시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미시사적 이야기를 통해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정치, 사회, 경제의 구조가 아닌 작은 인간들의 삶이다. 구술사(Oral history)는 기층민들의 직접적인 구술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고 그들의 과거를 보존함으로써 모든 집단을 포함하는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제공한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시사적 연구는 마을주민들의 기억과 구술증언을 바탕으로 한 구술사 연구이다. 대체로 구술사 방법론은 상실 혹은 망각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기억들과 생애, 경험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우리에게 역사에서 배제된 혹은 감춰진 사건들, 느낌, 그리고 태도와 생활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한 과거를 재현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 구술사 방법론은 한국전쟁 경험과 생활세계를 드러내는데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⁸⁾ 최근의 구술사 방법론은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뿐만 아니라 문학연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에서 분단 트라우마로 진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추출하여 그 실례를 보이고, 문답식의 인터뷰가 아니라 생애담을 구연하는 가운데 이야기 형식으로 조사를 수집하는 방법⁹⁾으로 활용되었다. 최근의 구술사 방법론은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뿐만 아니라 문학연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여러 지역

8) 염미경, 「역사학자가 밑으로부터 쓴 한국전쟁의 미시사」, 『한국민족문화』3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411쪽.

9) 김종근,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빨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47, 건국

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에서 분단 트라우마로 진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추출하여 그 실례를 보이고, 문답식의 인터뷰가 아니라 생애담을 구연하는 가운데 이야기 형식으로 조사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문학연구에서 구술사를 토대로 유형별로 정리하는 작업은 나름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방법론에서 주의 깊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의 문학연구에서 고구(考究)하고 있는 ‘트라우마 양상과 치유의 문제’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미국, 러시아에서 행했던 연구 성과이다.

한국정부는 1967년부터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사』(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전9권)를 간행했다. 이 책은 참전자들의 인터뷰와 국방부 내

대 인문학연구원, 2009.

_____, 「구술을 통해 본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논총』51,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1.

_____, 「한국전쟁체험담 구술에서 찾는 분단 트라우마 극복 방안」, 『문학치료연구』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김정은, 「‘완장 단 사람’의 특성으로 본 ‘지역빨갱이’의 모방서사와 트라우마 : 한국전쟁 체험담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3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신동훈, 「경험담의 존재양상과 문학적 특성-6,25체험담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23, 국문학회, 2011.

_____,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속의 남성과 여성 - 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26, 국문학회, 2012.

신동훈 외, 「한국전쟁의 체험담의 전승양상과 담론 특성」, 2013 한국전쟁체험담 조사연구 중간보고,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 전남의 한 동족마을 사례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부의 소장 자료를 활용한 방대한 연구물이다. 국방부는 1977~79년 『한국전쟁사』 1-2권의 개정판, 1995년 『한국전쟁』, 2004년 『6·25전쟁』 시리즈 등을 잇달아 발간하며 국내 한국전쟁 연구를 선도해 왔다. 한국정부 공식 전사(戰史)의 가장 큰 문제는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면담자와 구술자,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연구자들의 객관적·학문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의 한국전쟁 연구로는 한국전쟁기 현역 군인으로 전사 편찬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로이 이 애플만(Roy E. Appleman) 소령이 집필한 『한국 전쟁에서의 미국 육군 : 남쪽에서 낙동, 북쪽에서 압록까지』¹⁰⁾가 있는데 한국전쟁 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책은 군사사로는 탁월하지만 전쟁의 정치적 배경과 한국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제외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한 종합적 고찰로서는 한계가 있다. 1990년 미군은 빌리 모스맨(Billy C. Mossman)을 통해 한국전쟁 작전사로서 『엵과 플로우, 1950년 11월 - 1951년 7월』¹¹⁾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상의 한국과 미국 공식 전쟁사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서술된 것들로서, 전쟁의 기원과 발발, 전개과정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자

10)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Dept. of the Army, 1961.

1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US Army, 1990.

국의 관점을 강하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서술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한국전쟁 문서 공개와 연구의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연구서들이 등장했다. 1977년 이후 미국 국립 문서보관소는 문서공개법을 기초로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들을 대량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문서들의 공개는 한국전쟁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1981년과 1990년에 출간된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1990)는 그 대표적 결과물이다. 커밍스는 미국 국립 문서보관소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인용함으로써 한국전쟁 연구의 신기원을 개척했다. 그는 일제시기까지 분석대상으로 삼으며 한국전쟁의 내전적 기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고, 1945~50년 남북한 갈등의 전개양상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 외 1980년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메릴(John Merrill), 메트레이(James Matray) 등이 새롭게 공개된 미국자료를 활용하며 한국전쟁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러시아 자료의 공개는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도약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소련의 몰락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후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는 냉전 시기 구소련 자료가 유출되기 시작했고, 이 자료에 근거한 주요 연구 논저들은 냉전

의 형성과 유지의 주요 책임자로 구소련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연구경향은 한국전쟁 연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4년 6월 러시아정부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총 216건 548쪽 분량의 한국전쟁 극비 문서들을 넘겨준 것은 국내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도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한국전쟁 연구는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러시아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이 미국 우드로윌슨 학술센터의 냉전국제사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CWIHP) 팀은 이를 입수·번역해 저널과 인터넷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CWIHP는 1994년 가을부터 1996년 겨울까지 총 124건의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들을 번역·공개했다. 이후 러시아의 에프게니 바자노프와 바자노바, 토르쿠노프, 센즈화(沈志華) 등이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구소련 문서 공개 이후 소위 후기수정주의, 신정통주의적 한국전쟁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윌리엄 스투크(William Stueck)의 『한국 전쟁 : 국제사』¹²⁾와 박명림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2 (나남, 1996)는 대표적 예이다. 두 연구자는 한국전쟁의 내전적 해설에 반대하며, 전쟁 발발 이전 시기 북한-소련-중국의 전쟁 모의과정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후

12)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한국전쟁 연구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내전적이면서도 국제전적인 복합적 성격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학계에서는 구술사적 연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쟁피해자, 전쟁미망인 등과 같은 소외된 민중의 목소리를 복원해내는 데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구미(歐美)지역 한국전쟁 연구는 거시적인 역사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실증주의적 사관과 정치적 관점에 의거하여 한국전쟁을 파악하였다. 물론 거시적인 틀에서 국제정치적 상황과 민족적 문제를 천착하는 관점은 의미가 있으며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쟁참가자들의 눈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보고 당시와 현재의 관련 문화유산을 자료화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은 요원한 상태이다. 실제로 역사인류학계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공식적 기록물뿐 아니라, 개인과 소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사적인 기록, 편지, 여행기, 과거에 대한 회고담, 기억과 구술 등의 자료는 공식적 사료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자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계망과 문화체계를 이해하도록 해 줌으로써 역사의 온전한 실상에 접근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한국전쟁을 체험한 이들의 증언과 그들의 행적 및 사회적·문화적·제도적 관계망을 추적하고 공식적 기록물과의 접점을 찾아냄으로써 한국전쟁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작업이다. 특히 본 연구가 기획하듯이, 여러 국가 소속의 참전자들과 그들의 관계망에 대한

자료가 수집될 경우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은 점차적으로 풍성해지고 한국전쟁의 총체적 규정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 한국전쟁 연구는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고 정치적 역학관계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념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물론 역사연구에서 이념적 입장과 주관성을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 시선들을 최대한 수집함으로써 폐쇄적 관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전쟁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다양한 관점을 일상과 문화에서부터 미시적으로 수집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전체적 형태를 점진적으로 그려나가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다. 우리의 한국전쟁 연구는 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남북한을 제외한 수십 개 국가들이 참전했던 대규모 국제전이었다. 일례로 중국의 참전 인력 규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백만 명의 몇 배 이상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거의 3차 대전 직전까지 도달했던 전쟁이 한국전쟁이다. 해외참전국들의 관점은 일률적이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민족이나 이념의 문제로 한국전쟁을 규정할 경우 지극히 편협하고 폐쇄적인 관점에 함몰될 우려가 있다.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총체적 관점의 획득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 본질의 인식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압도적으로 상황

을 주도한 한국전쟁 상황과 관련하여 유럽 여러 참전국의 한국전쟁 관계 당사자들은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 또는 “무시된 전쟁”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전쟁을 재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

II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Inc)와 전쟁인식

1. 미국의 자료 상황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각종 층위에서 수집 보존하고 있다. 본고를 위한 자료 조사 차원에서 다음의 주요 단체 혹은 기관들이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³⁾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는 미국 내 가장 큰 자료보관소이다. 이는 또한 한국현대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자료 소장처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도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는 개별 참전용사들의 복

13)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트루먼 대통령 도서관(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미 의회 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각 주 아카이브, 각 주 역사박물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협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Inc) 등.

무기록들을 열람하거나,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쟁 섹션 하에는 미국 내 한국전쟁에 대한 포괄적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가령 1952년 한국전쟁 휴전 협정 초안문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보관소가 가지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온라인으로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열람이 가능하더라도 일부만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트루먼 대통령 도서관(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에는 방대한 분량의 한국전쟁 관련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있다. 이 아카이브는 미군과 미 행정부의 한국전쟁에 대한 각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전쟁에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고위 핵심 인물들의 구술사 인터뷰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 행정부 공식 문서인 1948년 4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보고서 8 “한국에서의 미국의 위치”나, 미출간 된 비공식 문서인 1947년 1월 13일에 트루먼 대통령과 김구가 주고받은 전보, 1949년 2월 7일,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의 서신과 같은 자료가 대표적인 예이다. 트루먼 대통령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전쟁자료는 한국전쟁 파일(The Korean War File)이다. 한국전쟁 당시 국무부와 국방부가 남긴 방대한 자료 중 선별된 자료로서 전체 분량은 11,200페이지에 달한다. 트루먼 대통령 도서관에는 한국전쟁 파일과 관련된 다른 파일들도 보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트루먼의 군사 자문 위원이었던 조지 M. 에슬리 파일이 있다. 미 의회 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은 한국전쟁에 대한 방대한 양의 서적 자료, 비디오 자료, 보이스-레코딩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참전용사 역사 프로젝트(Veterans History Project)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구술사 인터뷰이다. 미 의회는 2000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국이 참여한 주요 전쟁에 대한 참전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술과 경험을 집성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제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방대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 대해서도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000여 명에 해당하는 구술사 인터뷰이다. 이 인터뷰 자료는 시민 참여형으로 축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 분량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가 저장되고 보관되어 있는 방식 역시 카세트테이프나 DVD부터 디지털 파일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부 인터뷰는 인터넷으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주마다 공식 아카이브가 있다. 이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것은 각 주의 역사박물관 위원회이다. 각 주는 공식 아카이브 이외에도, 사실상 이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주 역사박물관이 있다. 각 주의 공식 아카이브와 주 역사박물관에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각 주 내 한국전쟁 관련된 전쟁 기념비의 정보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기념비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우나, 각 주의 아카이브 홈페이지나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의 실체는 검색되는 자료 분량의 방대함과 산재성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미국 뉴욕 주 아카이브에서 Korean War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투퍼 호수(Tupper Lake) 마을

사람들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투퍼 호수 유물 컬렉션이 검색된다. 일견 한국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나, 이 컬렉션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사진, 기사, 에세이들이 모아져 있다. 뉴욕 주 역사박물관에는 넷 스프링(Nat Spring)이 기증한 한국전쟁 참전 당시 유니폼에 달았던 휘장과 유니폼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품들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고, 문서 보관함의 박스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제 파악이 더욱 어렵다.

2. KWVA 약사(略史)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이하 KWVA)는 1985년 6월 25일 뉴욕 주에서 뉴욕 주 워터 포드(Saratoga County)의 미들 타운로드 302번지에 설립된 연방 세금 면제 단체이다.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KWVA)의 설립자는 한국전쟁 당시 제25보병사단인 F사단의 일원이었던 뉴욕의 윌리엄 T. 노리스 씨였다. 법인화 약관에 따르면, 법인은 7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5년 1월 31일까지 한국전쟁 중 명예로운 봉사를 본 사람들의 협회를 조직하고, 홍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두 날짜 모두 포함되며, 특정 다른 사람들의 경우, 한국전쟁 참전용사 협회의 부칙에 규정될 회원 자격을 규정한다.
- 협회 전체의 회원 그룹에 헌장을 수여한다.
- 협회 회원들 사이에 접촉과 소통의 수단을 제공한다.
-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나 사람을 기념하는 전쟁 및 기타 기념물의 설치를 촉진하고 수립한다.
- 궁핍한 협회 회원과 그 아내 및 자녀, 그리고 사망 당시 회원이었던 사람들의 과부와 자녀를 돕기 위해.
- 국가 본부를 설립하고 유지하라.
- 협회의 선행 사업과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계약과 지불, 증서 또는 고안, 보유, 소유, 관리, 차입, 임대, 임대, 대출, 할당, 전달, 판매, 처분, 수탁자 또는 처분 등을 포함한다. 신탁 수혜자 한국전 참전용사협회가 처음 등장한 해의 수탁자 수는 9명이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의 형성 역사는 창립자인 윌리엄 T. 노리스가 썼다. 이 역사는 2003년 3월/4월 그레이비어즈(The Graybeards, KWVA의 공식 잡지)의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1985년 7월 26일 약 56명의 사람들이 알링턴에서 KWVA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들은 미국 우체국의 새로운 한국전쟁 참전 용사 우표의 첫 번째 호를 인정하는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알링턴에 있는 호텔을 떠났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40명의 참전 용사들은 오후 2시에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KWVA의 창립 멤버로 회원 회비를 실

제로 등록하고 지불하였다. 창립 멤버 40명 명단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여기에 등재돼 있다. 명료화의 한 부분으로서, 독자들은 39명의 회원이 종종 KWVA의 창립 멤버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마흔 번째 창립 멤버가 1985년 7월 26일 오후 2시(랄프 E. 버틀러)에 조금 늦게 들어왔고, 당시 회원 회비를 지불했다.

- 창립자 윌리엄 T. 노리스
- 데일 W. 릭스
- 윌리엄 부커
- 조셉 퍼크
- 윌리엄 메이슨 주니어
- 로버트 A. 맥위터
- 빈센트 A. 에스텔라
- 아서 T. 패터슨
- 도널드 E. 넬슨
- 게이브 라마그나
- 앨런 스미스
- LeRoy M. Stucker
- 리처드 윈터스타인
- 존 허버트
- 다니엘 루시 주니어
- 에드워드 호스
- 케네스 보르차트
- 랄프 W. 멜처
- 윌리엄 맥카빗
- C.J. 리튼하우스
- 토마스 C. 해리스 주니어.
- 웨스 워삼
- 해리 윌리스
- 허먼 보울링스
- 찰스 리테누어
- 리처드 지엠바
- 랄프 루고
- 스탠리 해든
- 허버트 파노
- 찰스 소울스
- 잭 클로먼
- 마리오 스카셀레타 주니어
- 하워드 M. 스틸 주니어
- 빅터 거스트
- 로버트 오히라
- 조셉 브라운
- 조셉 P. 맥칼리온
- 허버트 왓슨
- 밀턴 H. 올라자가스티
- 랄프 버틀러

한국전쟁 참전용사 협회(KWVA)는 1986년부터 『그레이비어즈(Graybeards)』라는 제목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2005년 이후 간행물은 다행히도 디지털화가 되었다. 이는 미 의회의 참전용사 협회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온 미국 내 참전 용사들의 집단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간행물의 입수와 디지털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 사료된다. 또한 미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홈페이지는 미국 각주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 기념비의 사진을 제공한다.

국가	잡지명	발행처
1. 미국	『The Graybeards』 (그레이비어즈)	한국전 미군 참전협회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Inc)

잡지 샘플 『The Graybeards』



『그레이비어즈(Graybeards)』는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의 공식 잡지다. 창립자 빌 노리스는 1987년 9월, 10월 뉴욕 주에 그레이비어즈(Graybeards) 상표를 설계하고 “등록”했다. 1997년 8월·9월, 빌 노리스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뉴욕 주 법률부의 닉 파파스(당시 KWVA 회장)에게 그레이비어즈(Graybeards) 상표 등록증이 곧 만료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닉은 KWVA 회원인 알프레드 스키아리노 변호사인 N.Y. 법무 고문과 접촉하여 KWVA Inc.에 따라 상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빌 노리스의 아내의 승인은 상표를 KWVA로 이전하도록 요구했고 필요한 서류는 파파스 회장이 작성하고 서명했다. 뉴욕 주는 KWVA, Inc.에 따라 그레이비어즈(Graybeards) 상표 등록 인증을 승인했다.

1985년 당시 초기 멤버들이 밝힌 창립 취지에는 왜 이들이 뒤늦게야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를 창립했는지 잘 드러나 있다. 이를 요약한 ‘미션 스테이트먼트(Mission Statement)’를 보면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의 지향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개하면 ▲국가방위(DEFEND our Nation), ▲베테랑 돌보기(CARE for our Veterans), ▲유산의 영구화(PERPETUATE our Legacy), ▲실종 및 사망 전우들을 기억하기(REMEMBER our Missing and Fallen), ▲메모리얼의 유지(MAINTAIN our Memorial), 그리고 ▲자유 한국 지원(SUPPORT a free Korea) 등이다. 특히 이들이 벌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물 설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는 전국에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나 조형물을 설립하기 위해 각종 모금행사는 물론 지역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여 연방정부 보훈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다. 이들의 ‘흔적 남기기’는 전쟁 당사자인 한국 국민들조차 놀랄 정도로 줄기차게 전개되어 2015년 5월 현재 미국 전역 41개 주에 무려 112개 이르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 또는 기념 조형물들을 구축했다. 주별로 살펴볼 경우, 가장 많은 한국전 메모리얼 파크를 가진 주는 뉴욕 주와 매사추세츠 주로, 각각 11개를 기록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와 미주리 주가 각각 8개, 참전 베테랑들의 은퇴지로 인기가 높은 플로리다는 6개, 펜실베이니아 5개, 캘리포니아 4개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는 24개 주였다.¹⁴⁾

3. 한국전쟁의 성격과 강원(江原)

한국전쟁에 관한 명칭은 지금도 연구자들의 입장(stance)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한국전쟁’과 ‘6.25사변’ 또는 ‘6.25동란’이 그것이다. 특히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전쟁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한 커다란 저항이 있었다. 이것에는 특정 집단의 특정 의도를 담지 한 용어라

14) 김명곤, 「‘무시당한 전쟁’의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오마이뉴스』, 2017.10.22.

는 주장이다. 게다가 전쟁이 6월 25일에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니다.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디딘 1945년 9월부터 1950년 6월 이전에 남북 사이의 이념 갈등과 투쟁 과정에서 약 10만 명이나 희생되었는데, 전쟁이 6월 25일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남쪽 안에서 일어난 이념 갈등은 빼더라도, 1949년부터 38선 일대에서 남북의 군대가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적지 않았다. 남침도 있었고 북침도 있었다. 또한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도 이 과정을 모두 ‘6.25사변’이나 ‘6.25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바람직한가.¹⁵⁾ 이 주장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 괴뢰군 ‘먼저’ 남한을 쳐들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며 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질문은 한국전쟁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성격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한때 많은 동의를 얻었다. 한반도의 해방과 동시에 반혁명 및 반공산주의의 미국 점령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10만 명 이상이 두 세력 간의 투쟁에서 희생되었다는 점, 38선 또는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남한 내의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간에, 그리고 남북 사이에 실질적 전투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 이승만이 공공연하게 북진통일론을 부르짖고, 김구나 김규식 등 당대 지도자들이 동족 상잔의 가능성을 계속 경고해 왔던 점, 해방 직후부터 주한미점령군

15) 이재봉, 「남이랑북이랑」, 『월간 전복』, 2005.11.

사이에서 남·북간 또는 미·소간의 전쟁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 없이 나돌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무의미한 행위라는 것이다.¹⁶⁾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조선을 도와 미국에 항거함)’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참전하기 전까지를 ‘조선 전쟁’이라고 칭하고 참전 후부터 ‘항미원조전쟁’이라고 구분 짓는 경우도 있다. 국제법적으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자국을 침략하지 않은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 초기 북조선군의 군복을 입고 참전했다.¹⁷⁾ 이런 논의의 확장 선에서 한국전쟁을 내전이나 국제전이나는 문제도 또 다른 궤를 형성하였다.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라고 칭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전쟁의 성격을 국제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와 내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로 대비된다. 국제전적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인식하는 연구서로는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¹⁸⁾이 있으며, 내전적 관점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연구서로는 알란 밀레(Allan R. Millett)의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전쟁, 1945-1950: 불타는 집(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¹⁹⁾을 출판되었다. 아울러 대표

16) 이재봉, 「위의 책」, 『월간 전복』, 2005.11.

17) 마오쩌둥(毛泽东)은 1949년 7월 약 2만2000여 명에 달하는 팔로군 소속 조선인 부대를 한국전쟁 남침(南侵)을 준비하는 김일성에게 넘겨주었고, 이들은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인민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김일성은 이들을 6·25 남침의 주력으로 삼았다.

18)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19) Allan R. Millett, 『1945-1950년 한국 전쟁 : 캔자스 주 로렌스의 가옥 굽기』, 캔자스 대학 출판부, 2005.

적인 내전론자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도 『한국전쟁(The Korean War)』을 출간하였다. 한편 이완범²⁰⁾은 한국전쟁이 내전 또는 국제전이라는 일방적인 정의보다는 양자적인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전쟁이라는 입장을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전쟁은 미·소 냉전이라는 외인(外因)과 한국 내의 좌·우 대립이 상호작용하여 발생 한 전쟁으로 ‘복합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국전쟁을 냉전 혹은 국제전이라는 일방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양자가 상호 결합한 양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재홍²¹⁾은 한국전쟁의 원인이 군사적 불균형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의 원인-남북 군사력 불균형에서 소련이 지니고 있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익이 구체적인 전쟁으로 옮겨지게 된 계기는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대한반도 정책으로 말미암은 남북한의 비대칭적 군사력 구조였다고 분석하였다.²²⁾ 본고에서는 한국전쟁의 용어에 관한 심층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글의 방향성은 복합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내전에 UN군과 중·러군이 합세한 국제전(國際戰)이며 현대 지정학의 형세를 결정지은 세계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²³⁾

20) 이완범, 「6·25전쟁은 복합전으로 시작되었다: 내전설과 남침 유도설에 대한 비판적 조망」, 『한국전쟁학회』,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명인, 2007, 233~254쪽.

21) 고재홍, 『한국전쟁의 원인 - 남북 군사력 불균형』, 한국학술정보, 2007.

22) 손경호,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5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3, 206쪽.

23) 엄현섭, 「한국전쟁(韓國戰爭) 해외기록 문화유산 자료구축 연구 방법」, 『국제어문』82, 2019.

강원지역만 국한해서 본다면 6월 25일 이전부터 끊임없이 격전이 있었다. 해방직후 남한 내 좌익세력은 1945년 9월 초 조선공산당을 설립하고, 남한 내에서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남로당을 결성하고 노동대중들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 특히 해방직후 미군정이 한반도 내 정치세력에 대한 유화정책과 한국국민의 정치운동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남한 내에서 좌익세력은 자파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였다. 당시 우익계가 확고한 기반을 다지 못한 상황에서 좌익은 조직 강화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여 각 시·군·면·리·동은 물론이고 각 직장에 이르기까지 세포조직을 구성할 정도로 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대해 미군정과 우익세력들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 좌익들의 정치·사회 활동에 대해 불법성을 표명하였다. 1947년 5월 7일 남조선과도정부는 행정명령 제2호를 발표하고, 좌익계 중심으로 구성된 민족청년동맹의 해체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족청년동맹이 해체령에 따라 없어지자 좌익계는 그 단체를 기초로 민주애국청년동맹을 결성하면서 좌익계의 재조직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해체 당하고 말았다. 민족청년동맹에 이어 민주애국청년동맹이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해체되자 남한 내 공산당 세력은 지속적인 좌익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하조직으로 활동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에 1947년 8월 15일 해방 기념일을 기하여 폭동을 도모하였고, 이에 대해 미군정은 1947년 8월 15일 기해 전국적으로 좌익계열에 대한 일대 검거작전에 착수하여 공산당 주요 간부 및 극심한 좌익인사들에 대한 검거를 통해 공산당의 활동을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 세력들은 산 속으로 들어가거나 일부는 월북을 기도하였다. 특히 산 속으로 들어간 일부 공산당 간부들은 남로당의 재건과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유격야산대(遊擊野山隊)를 조직하면서 활동을 지속화하였다. 1946년 가을 강릉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한 농민봉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나 실패하였다. 1947년 봉기를 일으킨 자들은 태백산으로 들어가 게릴라 활동을 했거나 북한에서 내려온 유격대와 함께 게릴라전을 계속하였다.

이처럼 강릉인근 38선 부근에서도 1948년에 들어오면서 북한 보안대원의 빈번한 월경을 비롯한 경찰지서의 습격, 가옥의 파괴와 가재의 약탈, 우익 청년단원의 살상 등 남로당의 활동이 5·10선거를 전후하여 단선·단정반대 투쟁이²⁴⁾ 극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5·10선거를 중심으로 강릉지역에서 전후 18회에 걸쳐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비롯하여 향보단 간부 등 우익 요인 집에다가 수류탄 등을 던지는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수 명의 인명을 빼앗았고 수십 명의 중경상자를 내어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수립 후에도 남로당의 지하인민유격 활동은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 남로당이 남조선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을 지하선거로 비밀리에 선출하려다가 발각되었는데 강릉읍 용강동에 사는 김모씨가 북조선과 긴밀한 연락 하에 지하 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체포되었고 비밀지령서

24) 임호민, 「강원지역 공비토벌 연구 - 1948 ~ 6·25전쟁 직전까지 -」, 『군사연구』145, 육군군사연구소, 2018, 55쪽.

도 압수당하였다. 11월에 이르러서는 여순 10·19사건을 전후하여 강릉일대에서도 불온배라 살포사건 등 인민공화국 만세소동사건이 있어 경찰당국에서는 삼엄한 경계망 속에 5일 새벽 좌익계열로 지목되는 인물을 총검거하기 시작하여 피검자가 100여 명에 달하였다.²⁵⁾

동해안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제2군단 예하의 제1경비여단과 제5보병사단, 그리고 제766부대와 해군 제945육전대였다. 전체 공격부대는 완전편성 1개 경비여단, 2개 보병연대, 그리고 2개 연대 규모의 상륙부대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주력은 북한군 제5사단이었는데, 양양에 사령부를 두었던 이 부대는 원래 중공군 제164사단 출신의 조선인 병력 1만 명을 근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내전에서 많은 전투경험을 쌓은 병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앞세운 북한군은 은밀하게 38선에 배치되어 남침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제1경비여단은 양양-강릉 방향을 공격하고, 공격 개시 당일에 강릉 남쪽 10km지점에 상륙하는 상륙부대와 합류, 연곡천 부근에서 국군 제8사단을 섬멸하려 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은 나남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원산을 경유 선발대가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한 후 23일까지 양양 일대에 배치 완료했다. 제5사단은 제2군단의 제2제대로서 제12사

25) 임호민, 「위의 책」, 『군사연구』145, 육군군사연구소, 2018, 55쪽.

단을 따라 진격하여 흥천 지역에서부터 횡성·원주 방면으로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 임무였다. 제1경비여단에 배속된 제5사단 제10연대는 경비여단의 제2제대로서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 임무였다.²⁶⁾ 북한군 총참모부가 직접 통제한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는 아군의 측방과 후방에 상륙 후 기동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한 뒤 포위 및 격멸을 시도하였다. 제945육전대는 강릉 남쪽 10km지점에 상륙하여 국군의 증원 병력이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 전선에서 공격하는 제1경비여단 부대들과 합류하여 강릉 북쪽에서 국군을 포위·섬멸하려 하였다. 남로당원 및 강동 정치학원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제766부대는 삼척 인근에 상륙하여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물 파괴,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²⁷⁾

보병 2개 연대만으로 편성된 국군 제8사단의 38선 경계지역은 우측 진흥동으로부터 동해안의 잔교리에 이르는 26km에 달했다. 국군 제8사단 사령부는 강릉에 있었으며, 제10연대는 38선 경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삼척을 중심으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던 중이었다. 또한 제18포병대대와 야전 공병대대가 제8사단을 지원하였다. 제8사단은 창설 이후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집중할 겨를도 없이 게릴라 소탕에 열중하였는데, 제10연대는 38선 경계임무와 더불어 북쪽

26)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27)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5.

의 오대산 일원에서, 그리고 제21연대는 강릉 남쪽에서 동해안을 통해 침투한 게릴라 소탕 및 침투로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임무는 북한군의 전면남침이 개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동해안지역에서 대치한 북한군과 국군은 병력과 장비, 그리고 훈련 수준에서 큰 격차가 있었다. 북한군은 제5사단·제1경비여단·제945 및 제766부대를 포함하여 총 2만여 명의 규모였다. 북한군 제5사단은 소련군 전술 교범에 따라 함경도 일대에서 사단급 훈련을 마친 상태였고, 제945부대와 제766부대는 상륙 및 후방 침투, 유격훈련까지 정예 공격부대였다. 반면에 국군 제8사단은 2개 연대로 감소 편성된 상태였으며, 병력은 7,000여 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1948년 후반 이후 태백산맥의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공비토벌과 38선에 대한 경계임무 수행 등으로 인해 소부대 전투훈련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다.

피아의 전력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는 장비와 무기의 불균형이었다. 동해안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SU-76 자주포 16문·122mm 야포 12문·120mm 박격포 18문·82mm 박격포 81문·76mm 직사포 36문·45mm 대전차포 48문 등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국군은 105mm 곡사포 15문, 57mm 대전차포 12문, 81mm 박격포 24문, 2.36" 로켓포 120여 문이 고작이었다. 이처럼 양측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의 불균형과 훈련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여 실제 교전이 시작되

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였다. 북한에 의한 잦은 국경선 도발을 경험한 국군 제8사단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수립한 방어계획의 기본개념은 ‘수세 후 반격’이었다. 즉, 적이 전면 남침할 경우 38선상의 진지에서 저지하다가 진지가 돌파되면 작전의 중점을 동해안에 두되, 인구리~어성전리에서 적을 저지한 이후 연곡천 일대에서 적을 유도하여 격멸하려 하였다. 이러한 작전계획의 근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릉을 확보한 이후, 중국에는 공세 이전을 통해 반격하겠다는 의도였다. 제8사단은 1950년 3월부터 이 계획에 근거하여 각종 진지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전쟁 발발 2개월 전에는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가 현지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춘천과 인근 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38선을 연한 작전지역 내에서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따라서 북한군이 서울과 중부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었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춘천은 철도와 도로를 통해 서울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홍천과 원주로 연결되는 원활한 도로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쪽에서 춘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산악지역 사이를 주요 도로를 통해 이동해야 했다. 춘천지역에는 화천 - 춘천 - 홍천을 잇는 5번 도로, 양구 - 춘천 - 가평으로 연결된 46번 도로, 인제 - 홍천 - 서울로 이어지는 44번 도로, 그리고 인제 - 현리 - 홍천 간의 451번 도로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도로는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동서로 횡단하

는 도로가 제한되어 횡적 연락 및 작전지원에 불리하였다. 따라서 북쪽의 주요 고지와 인근 산간지대를 잘 방어할 경우 북한군의 남침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었다.

한편 춘천지역의 전반적 지형은 험준한 산악과 불규칙한 지형조건, 소양강과 북한강을 따라 발달한 도로망 그리고 울창한 삼림으로 인해서 전술적 시계가 제한되는 등 대규모 부대 기동과 정면공격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공격과 방어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경과 형태의 곡사화기가 필요했으며, 구불구불한 산악과 계곡 사이에 발달된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공격보다는 산·언덕·계곡·하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또한 북한군이 기습 남침한 6월 하순에는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많아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후 및 기상 조건 역시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춘천 정면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북한군 제2군단은 전체 작전계획 중 조공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즉, 북한군의 주공을 담당한 제1군단이 서울 북방에서 정면 공격을 개시하여 국군 주력과 한강 이북에서 결전을 하는 사이에, 제2군단의 일부가 춘천을 거쳐 가평을 지나 서울을 측방에서 압박함과 동시에 제2군단의 주력이 수원으로 진격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북한군 제2군단은 예하의 보병사단 2개와 독립전차연대 1개를 춘천 방면으로 투입하였다. 북한군 2제2군단장 김광협 소장은

제2사단에게 6월 25일 당일에 춘천을 점령하고, 이후 강촌~가평 방면으로 진격하여 서울의 동남 방향을 압박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제12사단에게는 홍천을 점령한 이후 원주 방향으로 주력을 남하시키고, 603 모터사이클 연대의 일부를 수원 방면으로 진격시킬 예정이었다. 한편 제2군단의 예비로 편성된 제5사단은 제12보병사단이 공격을 개시하면 이를 후속한 후 홍천 지역에서 전투에 최초 투입되어 횡성~원주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전과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군 후방사단의 증원을 차단하는 한편 군단의 제1단계 목표인 원주~삼척선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제12사단이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후속하는 제5사단 예하부대가 춘천~홍천~원주 방면의 국군 후방으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부대와 합류한 다음, 국군의 병참선을 마비시키고 서울로부터 후퇴하는 국군의 퇴로차단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김중오 대령이 지휘하던 국군 제6사단은 춘천 방어에 집중하되, 적이 공격하면 최초에는 진지 전방에서부터 격파하여 38선을 확보하겠다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적의 주공이 화천~춘천 접근근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한 제6사단은 포병화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도록 제16야전포병대대를 춘천에 배치하였으며, 또한 전방에 배치된 2개 연대에 사단 공병 1개 중대씩을 배속하였다. 적 주공의 접근로인 화천~춘천 사이를 방어하던 국군 제7연대는 이러한 방어개념에 따라 방어지역의 도로상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대전차진지를 구축하였

다. 38선으로부터 춘천까지의 거리가 13km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7연대는 원활한 방어 작전 수행을 위한 강력한 진지구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상급부대의 지원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사단공병 1개 중대와 춘천 시민·학생 등의 도움으로 진지공사에 착수하였다.

국군 제7연대는 적의 예상 접근로로 선정된 9개 지역에 철근 콘크리트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중에는 적의 전면공격이 개시될 경우 모진교 방면으로 접근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모진교 우측과 동남쪽 1km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된 것도 포함되었다. 한편 국군 제6사단을 일반 지원하는 제16포병대대는 포병화력의 집중 운용을 위해 5개소에 포진지를 구축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춘천 정면의 제7연대 작전지역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제2연대 정면에는 콘크리트 진지는 하나도 없었으며, 대부분 통나무로 쌓은 유개호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지를 구축하였다. 게다가 인제 정면에는 철조망 설치나 대인지뢰 매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전 직전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는 북한군에 비하여 크게 열세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춘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국군 제6사단과 북한군 제2군단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북한군 제2군단은 대체로 약 3만 5,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반면, 국군 제6사단은 9,300여 명이 고작이었다. 게다가 북한군의 기습남침이 개시된 6월 25일에는 육군본부의 지시에 의해 병력의 약 1/3이 외출 및 외박 등으로 부대를 떠나 있었다. 한편 국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력 불균형 현상은 장비에 있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

다. 북한군 제2군단은 122mm 야포 36문·76mm 야포 108문·120mm 박격포 240문·82mm 박격포 480문·자주포 30여 대 등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국군 제6사단은 미미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개전 직전 국군 제6사단의 화기를 포함한 장비 수준은 북한군 제2군단이 보유한 장비의 성능이나 수량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였음을 알 수 있다.²⁸⁾

28)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21, 2011, 발췌 요약함.

—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

Ⅲ 『그레이비어즈(The Graybeards)』속의 한국전쟁(韓國戰爭)²⁹⁾

1. 개전(開戰) 초기

포병의 봄이 조셉 R. 다리고 대위를 깨웠다. 곧 개성 북동부 가장자리에 있는 그의 집에 조개 파편과 작은 무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5시. 지프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면서 그는 2~3개 대대의 군대가 하역하고 있는 반마일 떨어진 기차역을 볼 수 있었다. 이전에는 38선에서 남한과의 국경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 의해 트랙이 점령되었다. 이날 오전 한국공화국(ROK) 제1사단에

29) 테네시 주 안티오크의 잭 위커는 KWVA에 자신의 ‘한국전쟁의 슬픔 계정’의 전체 텍스트를 KWVA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허가를 주었다. 교사, 학자, 참전용사, 일반 대중은 한국전쟁에 대한 이 훌륭하고 응축된 간략한 설명을 알아야 한다. 널리 알려진 책자 위커의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은 한국전쟁의 본질을 30페이지 만에 차용하기로 한다. 2013년 말 미국 국방부는 책의 “Brief Account” 책자 25,000부를 인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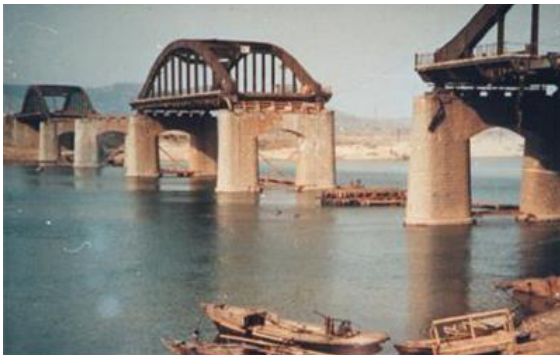
배속된 한국군 자문단(KMAG, Kay-Mag)의 일원인 다리고 대위는 미국 장교 중 유일하게 평행선에 올랐다. 이번 공격은 아직 장마철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에 있는 유나이티드 프레스와 함께 수상한 저널리스트인 애크 제임스는 많은 사람들이 침략을 예상했지만 장마 이후에야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북한군의 국경 증강이 보도됐지만 미국 관리들은 이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수백 건의 국경 충돌이 있었고 한국은 더 많은 군사 원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사례의 수와 심각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군은 고도로 유능한 러시아 훈련 러시아 장비³⁰⁾를 갖춘 13만 5천명의 군대를 배치했으며 그 중 거의 3분의 1이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참전 용사였다. 이들 세력은 지난해 10월, 대만으로 도주해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든 민족주의 중국인을 물리쳤다. 남측이 북한을 침공하려 할 것을 우려한 미국은 6만5000명의 한국군을 경무장시켰을 뿐 500명의 미국 고문(KMAG)을 공급했다. 한국은 또한 45,000명의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투 훈련을 받지도 않았다. 북한인민군(NKPA)은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탱크라고 믿는 러시아제 T-34 전차에 의해 주도되었다. 적절한 대전차 무기가 없으면 용감한 한국 군인들은 이 강철 괴물들을

30) 소련의 스탈린은 전차(戰車) 300대, 전투기(戰鬪機) 200대, 대포(大砲) 1300대, 군사고문 3000명을 보내 김일성의 6·25 남침을 적극 도왔다. 6·25 한국전쟁은 이렇게 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 김일성의 치밀한 계획 하에 꾸며진 전략의 일환으로 일어난 공산 침략 전쟁이다.

육탄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90명을 잃은 뒤 별다른 성과 없이 이 관행은 중단됐다.

한국 방위는 북한인민군(NKPA) 공격의 무거운 무기(러시아제 T-34 전차를 지칭)에 의해 무너졌다. 한국군 병사의 3분의 1가량이 휴가 중이었다. 난민들은 서울의 수도로 달아났다. 불행히도 한강의 다리는 조기(早期)에 없어져서 한국군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중장비로 남쪽으로 철수하는 것을 막았다. 한강 북쪽에서 많은 국민과 부사관(NCO)들이 실종됐다.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북한인민군(NKPA)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처형시켰다. 백선엽 대령은 강남 쪽 제1조 한국사단 3개 연대 중 2개 연대를 간신히 조직하였다. 처음에 압도적인 패배에 충격을 받고 당황한 군인들은 “미국인들이 우리를 도울까?”라는 질문을 거듭 던졌다. “미국인들이 우리를 도울까?” 얼마 후, 미군 전투기 폭격기들이 낮게 들어와 실수로 한국군을 공격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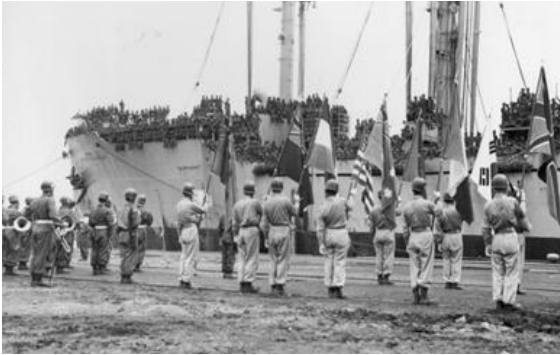
▲ 끊어진 한강 인도교. 1953년 1월 1일 모습. 존 리치 촬영³¹⁾

2. 유엔과 미국의 개입

워싱턴은 공식 채널 전에 국무부에 도착한 잭 제임스의 UPI 파견으로부터 북한의 침략 소식을 들었다. 한국에서의 선거를 감독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유엔에 통보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5성 장군에게 “이건 유엔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유엔이 북한군 철수를 요구한 반면 도쿄에 본부를 둔 극동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물류 지원을 제공했다. 이 같은 항의가 무시되자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알렸다. 트루먼은 미 해군과 공군에게 한국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맥아더 장군은 미군만이 침략을 중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6월 30일 대통령에 의해 한국에 파견되었는데, 대통령 재임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미국 방위의 경계에서 제

-
- 31) 김태완, 「현대사에 가장 길었던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30분」, 『월간조선』, 2013.7
- 32) 1950년 6월 27일, 전쟁발발 3일째에 전세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수도 서울이 위협받았다. 이날 새벽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열차 편으로 대전으로 떠났다. 바로 비상 국무회의에서는 정부를 수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군은 서울을 사수하기로 하고 창동 방어선에 가용한 전력을 모두 집중시켰으나 이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6월 27일 11시, 긴급회의를 통해서 채병덕 총참모장은 서울 사수를 포기 후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와 함께 한강상의 교량을 폭파하기로 결정하였다. 폭파 시기는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2시간 뒤로하였다. 6월 27일 12시에서 오후 3시30분 한강 인도교, 경부선 철교, 경인선 철교 폭파 장치 완료하였다. 그날 미 군사고문단 라이트 대령이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곧 한국 전선에 전방지휘소(ADCOM)를 설치한다는 소식과 함께 육군본부를 서울로 복귀 권고하여 채병덕 총참모장은 육본을 다시 용산으로 복귀시키고 한강교 폭파를 연기하였다. 미아리와 회기동을 연결하는 선에서 서울 사수를 결정하였고, 한강상의 각 교량

외되었지만 국가안전보장이사회는 1948년 대한민국이 미국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구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침략을 당한다면 유엔의 “경찰 조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³³⁾





▲ 1950. 9. 20. 부산. 한국전에 참전하는 유엔군 병력을 태운 군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이들의 환영식을 거행하고 있다.(NARA)

에 설치했던 폭발물도 일부 제거하고 차량과 열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이때 한강교 폭파 지휘 계통도 총참모장-참모부장(김백일 대령)-공병감-공병학교장으로 확정하였다. 아마도 한국군 수뇌부에서는 북한군에게 밀릴 것이라 생각하였다. 6월 27일 밤 11시30분, 폭파 준비 명령 하달하고, 미아리 방어선에서 공방전이 전개될 무렵 6월 28일 1시45분, 한강교 폭파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 서울을 버리고 이미 6월 27일 새벽 특별 열차를 타고 대구까지 피란을 떠났다가 대전으로 올라온 상태였다는 점 ▲ 미리 녹음한 라디오 방송 담화를 계속 들려주며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는 점 ▲ 서울 수복 이후 한강 인도교 폭파의 잘못을 고백하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국회의장단이 권유하자 거부하고 대신 인도교 폭파로 피난하지 못했던 국민들을 '부역자'로 몰아 처형한 점 ▲ 한강 인도교 폭파의 모든 책임을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떠넘겨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집행함으로써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한 내용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 『6.25전쟁

한국전쟁에서 가장 빨리 도착한 군(軍)은 미국이다. 이 기간 동안 총 570만 명이 군복을 입고 150만 명이 국내외로 전투를 했다. 3년간의 전투 사망자는 33,627명으로 베트남 전쟁의 경우 47,367명에 비해 많았다. 한국에서의 전투 사망자는 군대 27,704명, 해병대 4,267명, 공군 1,198명, 해군 458명이다. 전투 부대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국가로는 호주(2,282), 벨기에·룩셈부르크(944), 캐나다(6,146), 콜롬비아(1,068), 에티오피아(1,277), 프랑스(1,119), 그리스(1,263), 네덜란드(819), 뉴질랜드(1,389), 필리핀(1,296), 남아프리카 공화국(826), 태국(1,294), 터키(5,455) 및 영국(Great Britain 14,198), 의료부대는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이 제공했다.

현장 읽기』, 2014 참고)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교 조기 폭파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선고하였다. 64년(14년 후) 부인이 제기 항소심에서 그의 조치는 상관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고 판단, 무죄 선고를 받았다.

- 33)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 12일 미국 프레스 센터에서 미국 국무장관 D. G. 애치슨이 발표한 극동에서의 미국의 방위선 구상이 애치슨라인(Acheson Line)이다. 그 내용은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泽东)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沖繩)-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며,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이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고 그들 지역들은 국제연합(UN)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사 속에서 애치슨 연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한국전쟁과의 관련이다. 학계의 전통주의자들은 이 연설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시켰음을 선언한 것이었으며, 북한은 이를 남침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미국의 결정적 실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은 애치슨 연설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음모적 술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일면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미국이 한국을 자신들의 이익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p> 	<p>미국의 참전 병력은 연인원 178만 9,000명이며, 지상군의 경우 전쟁 기간 중 국군을 제외한 유엔군 병력의 80%를 차지했다. 미 지상군은 제8군 사령부 이하 3개 군단(제1·9·10군단), 8개 육군 사단(제24·25·2·7·3·40·45보병사단 및 제1기병사단), 1개 해병 사단(제1해병사단), 그리고 2개 연대전투단(제5보병연대·제187공수연대) 및 이들의 지원 부대들이 투입되었으며, 전쟁기간 중 최고 병력이 30만 명에 달했다. 해군은 미 극동해군 사령부의 해군 및 제7함대의 전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제90·제95기동함대를 주축으로 작전 상황에 따라 해상 작전 또는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고, 해군 항공 부대는 공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미 공군은 극동공군의 통제 하에 제5공군과 전략폭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고갈시키기 위한 폭격과 유엔 지상군이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접지원 작전을 펼쳤다. 미 공군은 전쟁의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북한군과 중공군에 큰 피해를 입혀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미군은 전쟁 기간 중 전사 3만 6,94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 13만 7,250명의 인적 손실을 겪어야 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42개 주와 괌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총 140여 개에 이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영국</p> 	<p>영국은 유엔 참전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전투 부대를 한국에 파병한 국가이며,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지상군과 해군을 6·25전쟁에 파견하였다. 영국 육군은 먼저 홍콩에 주둔 중인 2개 대대와 지원부대로 제27여단(이후 제28여단으로 개칭)을 구성해 곧바로 낙동강 방어 작전에 뛰어들었다. 제27여단은 압록강으로의 북진작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영국은 추가로 제29여단을 편성해 참전했다. 1950년 9월 초부터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 해군 해병 1개 특공대가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지상군의 총 병력은 1만 4,198명이었다. 이후 영국은 영연방 국가의 부대들이 도착하자 모두 통합해 1951년 7월 28일 영연방 제1사단을 창설했다.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을 비롯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모두 6개국 군으로 구성되었다. 영국 해군은 1950년 6월 29일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p>

<p style="text-align: center;">영국</p> 	<p>구축함 2척, 프리깃함 3척을 파견해 미 극동해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 하에 미 해군 함정과 함께 동서 해상의 작전에 동참했다. 이후 영국은 연인원 약 1만 7,000명의 해군병력이 한국 작전에 참가했으며, 50여 척의 함정이 종전 때까지 교대로 해상작전을 수행했다. 휴전 후, 영국 해군은 1955년 3월에 철수를 완료하고, 지상군은 1954~1957년 사이에 철수하였다. 주요 전투로는 정주전투(1950.10.29~30), 박천전투(1950.11.4~6), 고양전투(1951.1.2~3), 적성전투(1951.4.22~25), 가평전투(1951.4.23~25)등이 대표적이다. 인명 피해는 총 4,908명으로 전사 1,078명, 부상 2,674명, 실종 179명, 포로 977명 등이다. 영국 내 참전 기념비는 전역에 걸쳐 300여 개가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캐나다</p> 	<p>캐나다는 6·25전쟁에 다섯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지상군·해군·공군을 모두 파견하였다. 여단급 규모의 지상군 병력 중 최초로 파견된 제2대대(PPCLI)는 영국 제270여단에 소속돼 작전을 수행했다. 1951년 5월 초 캐나다 제25여단의 본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새로 창설된 영연방 제1사단의 일원으로 전투에 임했다. 참전 규모는 연인원 2만 5,687명이며, 지상군은 보병 1개 여단(병력 6,146명), 해군은 구축함 3척, 공군은 수송기 1개 대대를 파견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캐나다 공군은 1953년 7월, 해군은 1955년 9월, 그리고 지상군은 1957년 6월에 철수하였다. 주요 전투로는 가평전투(1951.4.23~25), 자운리전투(1951.5.30), 고왕산전투(1952.10.23) 등이 대표적이다. 인명 피해는 총 1,557명이며 전사 312명, 부상 1,212명, 실종 1명, 포로 32명 등이다. 캐나다 내 참전 기념비는 30여 개가 분포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벨기에</p> 	<p>벨기에는 6·25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하였으며 1950년 8월 25일부터 지원병을 모집하여 1개 대대를 편성하였다. 벨기에의 참전 규모는 연인원 3,498명이며, 보병 1개 대대(병력 900명)를 유지했다. 1951년 초부터 미 제3사단에 소속된 영국군 제29여단에 배속돼 작전을 수행했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전문적인 전술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주요 전투로는 금굴산전투(1951.4.22~25), 학당리전투(1951.10.11~13), 김화 잣골전투(1953.2.26~4.21)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 기간 중 벌어진 금굴산</p>

<p style="text-align: center;">벨기에</p> 	<p>진지를 방어하며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영국 제29여단의 철수를 도왔으며, 큰 인원손실 없이 위기를 벗어났다. 이 전투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는 미국 대통령, 미 제8군 사령관, 벨기에 국방장관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전사 99명, 부상 336명, 실종 4명, 포로 1명 등 총 440명이며 1955년 6월에 철수하였다. 벨기에 내 참전 기념비는 브뤼셀, 앤트워프 등에 총 12개가 분포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룩셈부르크</p> 	<p>룩셈부르크는 유엔 참전국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았던 ‘미니부대’였다. 6·25전쟁 당시 인구가 20여 만 명에 불과했던 까닭에 많은 병력을 파견하기가 곤란했으며, 사전에 벨기에와 협의해 벨기에 대대에 1개 소대 병력을 포함시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으며, 1개 소대를 편성하여 벨기에 대대에 편입시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를 구성하였다. 룩셈부르크 소대는 전쟁 기간 내내 48명의 병력을 유지하며, 벨기에 대대에 소속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참전 규모는 작지만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결코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만은 없었다. 주요 전투로는 벨기에 대대와 함께 치른 금굴산전투(1951.4.22~25), 학당리전투(1951.10.11~13), 김화 잣골전투(1953.2.26~4. 21) 등이 대표적이다. 인명 손실은 전사 2명, 부상 13명이었으며 벨기에 대대와 함께 1955년 6월에 철수하였다. 룩셈부르크 내 참전 기념비는 두 개가 건립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프랑스</p> 	<p>프랑스는 6·25전쟁에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하였다. 연인원 3,421명이 참전했으며, 보병 1개 대대(병력 1,119명)와 구축함 1척을 파견하였다. 프랑스대대는 줄곧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는데, 특히 1951년 2월의 지평리전투에서 그 용맹성과 전투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그들은 백병전으로 원주 탈환에 전과를 올렸고, 지평리전투(1951.2.13~16), 단장의 능선 전투(1951.9.13~10.13), 화살머리고지전투(1952.10.6~10) 등의 격전에서 용맹을 떨쳐, 프랑스 국가표창 6회, 미국 대통령 표창 3회, 한국 대통령표창 2회 및 많은 훈장과 개인 표창을 받았다. 인명 피해는 총 1,289명으로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실종 7명, 포로 12명 등이다. 참전 규모로 볼 때 전 병력의 3분의 1 이상이 희생된 셈이다. 프랑스 내 참전 기념비는 파리, 로자휴 등에 총 7개가 있다.</p>

<p>네덜란드</p> 	<p>네덜란드는 한국에 네 번째로 전투 부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하였다. 참전 규모는 연인원 5,322명으로 보병 1개 대대(병력 819명), 구축함 1척 등이다. 지상군은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여했는데 대대급의 전투부대로는 잘 훈련되고 책임감이 강한 부대였다. 또 영어를 구사하는 장병이 많아 미군의 협조도 원활했다. 특히 원주에서 북한군 제5군단 예하 부대를 맞아 치열한 전투를 치렀으며, 이 전투에서 북한군 1,100명을 살상 혹은 포로로 잡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통적 해운국인 네덜란드는 육군 이외에도 구축함 등 6척의 함정을 파견해 동서 해상에서 미 극동해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주요 전투로는 횡성전투(1951.2.12~13), 인제전투(1951.5.30~31), 대우산전투(1951.7.15~31), 별고지전투(1952.2.18) 등이 대표적이며 휴전 후 지상군은 1954년 12월, 해군은 1955년 1월에 철수하였다. 인명 피해는 총 768명으로 전사 120명, 부상 645명, 포로 3명 등이다. 네덜란드 내 참전 기념물은 아펠도른, 루즈달, 로테르담, 스타르스베르헌, 유티레흐트 등에 5개가 있다.</p>
<p>호주</p> 	<p>6.25전쟁 발발 직후 6월 28일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호주 정부도 30일 참전을 제의하였고, 영연방 극동해군사령부에 파견중인 2척의 함정과 일본에 주둔중인 1개 비행대대의 파견을 통보하였다. 비록 그 파병 규모는 작았지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육·해·공군을 파견한 나라가 되었다.</p>
<p>뉴질랜드</p> 	<p>뉴질랜드는 1950년 7월 3일 프리깃함 2척을 출동시켜 7월 30일 한국해역에 도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당시 제한된 정규군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상군 파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병을 통하여 우수 장교와 사병을 선발하여 680여 명 규모의 포병부대를 신편하여 12월 31일 한국에 참전시켰다.</p>
<p>필리핀</p> 	<p>6.25전쟁이 발발하기 4년 전에 독립한 필리핀은 공산반란군과 교전상태에 있어 국내정세가 불안하였으나 5,000여 명 규모의 1개 연대전투단을 파견하였다. 한국에 도착 10일 만에 현지적응 훈련을 마친 대대는 9월 28일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진주 남쪽의 사천으로 이동하여 비행장 경비임무를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인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p>

<p>터키</p> 	<p>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중립국에서 친서정책으로 전환한 터키 정부는 7월 중순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파병요청 제의를 받자 단시일 내에 4,5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10월 17일 부산에 도착한 후 경비 임무를 수행중인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대구-대전 간의 주보급로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p>
<p>태국</p> 	<p>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와 같은 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한 태국은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도 자국의 주생산물인 미국 지원을 유엔에 통보하였으며, 1950년 7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상군 4,000명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해군과 공군을 파견함으로써 공산침략을 응징하는 유엔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였다.</p>
<p>남아프리카공화국</p> 	<p>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리적인 여건상 어려움을 표시하였지만 1950년 8월 4일 국회 동의를 얻어 전투비행대대의 파견을 결정하고 부대편성에 착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용맹을 떨쳤던 제2전투대대는 9월 26일 더반(Durban)항을 출발함으로써 건국 이래 최초로 극동지역에 병력을 파견하게 되었다.</p>
<p>에티오피아</p> 	<p>1935년 이탈리아에 침공을 받았을 당시 국제연맹에 지원을 호소했으나 무위로 끝난 경험이 있었던 에티오피아는 황실근위대에서 1,200명을 차출, 1개 대대규모를 파견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들은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카그뉴 대대'란 명칭으로 창설,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p>
<p>콜롬비아</p> 	<p>콜롬비아는 9월 18일 프리깃함 1척의 파견 결정을 시작으로, 1951년 4월 중순 중공군의 춘계공세로 전쟁이 가열되기 시작한 시기에 약 1,000명으로 편성된 제1보병대대를 투입,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규모는 소규모이었지만, 콜롬비아는 유엔의 라틴아메리카 회원국 중 유일한 6.25전쟁 참전국이었다.</p>
<p>그리스</p> 	<p>그리스는 한국전쟁 당시 지상군 1개 대대와 수송기 1대 편대를 파병했다. 그리스 대대는 1950년 12월 9일 부산에 도착해 적응훈련을 마치고 미 제1기병사단에 속해 격전을 치렀다. 대대는 이천 부근 381고지 방어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려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적의 주요 거점인 임진강 부근 고양대, 대노리고지를 놓고 수차례 공방전을 거듭했다. 그리스 제13수송편대는 1950년 12월</p>

<p>그리스</p>	<p>DFL본에 도착한 이후 장진호 전투를 지원했으며, 미 해병사단을 직접 지원해 전, 사상자를 후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p>
<p>스웨덴</p> 	<p>영세 중립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서방국가와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남침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원조를 권고받자 스웨덴 정부는 야전병원단의 파견을 결정, 적십자사에 이 임무를 위임하였다. 6.25전쟁에서는 후방병원으로서 부상자 치료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p>
<p>인도</p> 	<p>1947년 8월 15일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한 인도는 중립 또는 비동맹노선을 지지하였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월 31일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를 결의하자 이에 동의, 의료지원부대인 제60야전병원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1950년 11월 20일 부산을 통해 상륙하여 미 제8군에 배속되어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p>
<p>덴마크</p> 	<p>덴마크는 1950년 6월 27일 유엔이 한국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최신 의료시설, 장비, 의약품, 그리고 탁월한 의료진을 갖춘 병원선 유틀란드야호를 파견하였다.</p>
<p>노르웨이</p> 	<p>노르웨이 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계획하고 국회가 1951년 3월 2일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에 동의하자 노르웨이 적십자가 편성한 83명으로 구성된 이동외과병원을 통해 동두천에서 7월 19일부터 천막으로 된 임시건물에서 진료 업무를 개시하였다. 1951년 12월에는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외래환자 진료소도 설치 운영하였다.</p>
<p>이탈리아</p> 	<p>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었던 이탈리아는 국제적십자연맹이 한국 전쟁에서 전상자 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자국의 적십자사를 통해 이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참전국 중 유엔 비회원국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으며 참전국 중 가장 마지막에 파견한 국가가 되었다.</p>

34) 국가보훈처, 『6.25전쟁 60주년 UN참전 기념시설물 도감. 3, 국외 시설물』, 국가보훈처, 2010.

35) 국가보훈처, 『위의 책』, 국가보훈처, 2010.

3. 1945년에서 1950년까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은 1894-1895년 중일전쟁과 1904-1905년 러일전쟁 등 갈등에 휘말려 왔다. 한국인들은 금속활자를 개발하였고³⁶⁾, 고대부터 강건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반도는 일본과 대륙 아시아 사이의 문화, 교육, 종교, 과학 및 산업 교류의 통로였다. 16세기 후반에 두 번,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여 끔찍한 수준의 잔인함, 죽음 및 파괴를 초래했으며 많은 한국 숙련된 장인을 일본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1945년 남부에 상륙한 미군은 점령지역(GARIOA)의 정부지원과 구호의 형태로 많은 필요한 지원을 가져왔다. 동유럽에서의 소비에트의 비타협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은 자치권이 확립 될 때까지 한국을 감독하기 위해 소련을 포함한 신탁 통치에 대해 이전에 합의된 계획을 따로 세웠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고 느끼며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했다. 그러나 소련이 신탁 통치권을 요구했을 때, 공산주의 동조를 가진 파벌들은 소련 편을 들었다. 러시아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일본과의 협력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투표를 거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유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할 수 없었다. 반면에 미국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

36) 한글의 창제 당시는 28자였으나 후에 한글의 기본 자모음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로 총 24자로 변화였다.

다. 미국은 남북 38선에서 장벽을 해체하려 했지만 소련은 통일된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이를 거부했다. 또 산업북부(인구 900만 명)는 석탄, 전기, 비료 등 기타 재화의 공급을 대폭 줄임으로써 농업 남부(인구 2,100만 명)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러시아 군대의 잔학 행위와 약탈을 피하기 위해 약 2백만 명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쳤고 소련 점령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박해를 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난이 수반되어야 했다. 이 난민들은 남한에 식량을 공급받아 수용해야 했다. 수천 명이 남에서 북으로 건너갔다. 미국은 북한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각 부문의 행동을 하였고, 대부분 북한에서 제한되어 있던 정치적 반대를 허용했으며, 이들 집단이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계속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어떤 정치 파벌도 인정하지 않았다.

소련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미국은 1947년 9월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겼다. 1948년 5월 유엔의 후원으로 선거가 열렸지만 북한은 참여를 거부했다.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북한에 백석이 비워져 있지만 답이 없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북한에서는 소련에서 살았던 한국 망명자인 김일성을 총리로 선택한 소련식 선거가 열렸다. 두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통일을 주장했고,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가 되었다.³⁷⁾ 아시아의 경험이 풍부한 영국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를 가장 고무적인 것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결합이 있었지만 동양에서는 민주주의가 전통이 아니

었다. 러시아인들은 북한에 군대를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추었고, 철수했으며, 미국에도 도전했다. 한국과 미 국무부는 미군이 머물기를 원했지만 점령지역(GARIOA) 기금은 1949년 6월 20일에 만료되었으며 미군은 군대를 유지할 자금이 없었다. 그들은 철수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군이 남아 있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1970년에 출판된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스탈린의 승인을 위해 모스크바에 갔다. 러시아 참모들은 세부 사항을 계획했지만 미국인들이 소련의 개입을 감지할 것을 우려한 스탈린은 한국에서 7,000명의 러시아 고문 중 대부분을 철수시켰다. 흐루쇼프는 남아 있었다면 북한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김 위원장은 이승만의 억압적인 정부에 맞서서 전복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단시간에 끝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37) 이승만은 ‘북진통일론’, 김일성은 ‘국토안정론’을 표방하며 통일의 의지를 불태웠다. 엄현섭, 「한국전쟁의 표상과 지역문화의 재인식 - 전상국의 『동행』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2014.



▲ 왼쪽부터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³⁸⁾

4. 태스크포스 스미스(Task Force Smith)

찰스 브래드 스미스 대령은 일본에서 한국 부산으로 급파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주둔했던 제2보병연대, 제24사단 출신이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오산 근처에 배치된 열차가 그들을 북쪽으로 데려갔다. 그들의 임무는 오만한 무력을 보여주고 더 많은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인민군(NKPA)의 주요 진격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브래드 스미스는 34세였고, 그의 부하들은 대부분 스무 살이나 그보다 젊었다. 여섯 명 중 한 명은 전투 경험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초보 병사였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보기’ 위해 합류했다. 미군은 독일과 일본을 이겼다는 자만심에 차 있었다. 일본의 편한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다. ‘진주만 기억’이란 건 없었다. 왜 그들이 그곳에 있었을까? 다음날 아침 7시에 북한인민군(NKPA) 부대가 멀리 나타났다.

38) 김병륜, 「다시 쓰는 6·25전쟁」, 『국방일보』, 2013.1.5.

그들은 T-34 탱크 33대를 보유한 약 5,000명의 군인들로 두 연대의 연합이었다. 포병과 무반동 소총 발사는 전진하는 전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05mm 곡사포는 대전차 무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비상용으로 특수 고폭약 대전차(HEAT) 라운드가 개발되었다. 한 장의 장작이 도로를 따라 직사포를 발사하기 위해 전방에 잘 배치되었다. 병사들은 극동 지역의 할당량의 50%인 6개의 특수 고폭약 대전차(HEAT) 라운드만 가졌다. 나머지는 우선권을 가진 유럽으로 보내졌다. 젊은 병사들은 특수 고폭약 대전차(HEAT) 라운드가 다 떨어지기 전에 두 개의 탱크를 파괴할 수 있었다. 다음 탱크가 그들을 쓰러뜨렸다. 적의 나머지 장갑용 강철판이 그들의 위치를 뚫고 지나가자, 올리 코너는 2.36인치 로켓 발사대에서 탱크 후방으로 22발을 발사했지만 별로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다. 탄약이 남아서 많은 탄환이 터지지 않았다. 탄약은 오래되었고, 많은 탄환이 폭발하지 못했다. 이 무기는 1943년 독일군의 갑옷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T-34는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뒤쪽에 주차된 미국의 차량을 격추시켰다. 탱크 3대를 보유한 북한인민군(NKPA) 보병이 접근했다. 스미스 기동대에서 대규모 포격이 발생해 정면 공격을 중단했다. 수비수의 입장에서 꾸준한 화재를 계속하면서 북한군은 각 측면을 중심으로 큰 힘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탄약 공급이 줄어들면서 LTC(Lieutenant Colonel, 중령) 스미스는 오후 2시 30분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소대가 약속한 곳에 이르지 못했고, 태스크포스(스미스 부대)는 이 단계에서 사상자 대부분이 발생하였다. 이 미국 젊은이들

은 거의 하루 동안 적을 붙잡고 185명의 사상자를 냈다. 브래드 스미스는 북한인민군(NKPA)의 전투력이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크게 과소평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제34 보병연대, 제24 사단은 침략자들과 교전하는 다음 부대였다. 작전 장교(S-3) 존 J. 던 소령에 따르면, 이 장비는 연대에 공급된 것이 국가적 불명예였다고 한다. 그는 소형 무기의 25%에서 50% 사이가 쓸모없다고 주장했다. 로이 F. 콜린스 경사는 첫 전투에서 소대의 31개 소총 중 12개가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 모르타르 탄약은 너무 오래되어 경우에 따라 10발 중 8발이 폭발하지 못했다. 라디오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 스미스 기동대 연대의 나머지는 그들이 승선하기 전에 녹슨 일본 화물선 3대와 전쟁 잉여 LST(랜딩 선박 탱크) 두 대를 지휘해야 했다. 한 기동대는 “전쟁을 하기에는 정말 힘든 방법이었다”고 말했다.³⁹⁾

39) 이 패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었다. 당시 미군하면 세계 최강의 화력과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던 터에 공산군과의 첫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은 미군은 물론 우리 정부와 군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 이때의 패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대대장 스미스중령 이하 장병 모두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북한군을 3류 군대쯤으로 알고 보고 있었다는 점, 더구나 5년 동안이나 일본을 점령하면서 긴장이 풀어졌고 장병 대부분이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전후(戰後) 보충된 신병이었다는 점 등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이 최초 전투에서의 패배는 도쿄 미 극동군사령부는 물론 워싱턴의 미 합참까지 경악하게 하였다. 도쿄의 미극동군사령부는 미 본국에 지원 병력의 긴급증파를 요청하였다. 워싱턴 당국은 영국, 프랑스와 공동으로 유엔안보리의 소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소집된 안보리는 7월 7일 “미합중국으로 하여금 유엔군 통합사령부를 설치케 하고, 사령관 임명권을 부여하며 유엔기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맥아더 장군을 사상 최초의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다.



▲ 태스크포스 스미스는 1950년 한국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다.(Task Force Smith arrives in South Korea to begin the Korean war in 1950. US Army via Wikimedia Commons)

5. 미국방어정책

미군은 전투를 단순하게 했다. 사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공격을 당했으며 고도로 동기 부여된 북한인민군(NKPA)에 의해 압도당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는 병사들의 젊음을 전투에 바쳤으며,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보급이 잘 되지 않았다. “군대를 전투에 투입하고, 유인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은 범죄에 불과했다.” 평시 육군 부대는 3분의 2의 힘에서 있었는데, 이는 보병 연대가 평소의 3개 대대가 아니라 2개의 소총 대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소총부대는 대부분 200명 이상의 공인된 병력보다 50% 이상 낮았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군대를 보유했

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4류의 북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왜? 전통적으로 미국은 전쟁에 대비한 적이 없었다. 혁명전쟁으로 이어진 사건을 시작한 것은 평시 방위 예산에 대한 분쟁이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프랑스와 인도 전쟁 때 영국군의 보호를 원했다. 영국 왕의 장관은 전투가 끝났을 때 재무부가 고갈되면서 미국인들에게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20개 대대의 레드코트 비용⁴⁰⁾의 3분의 1을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대규모의 상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억압적인 정부나 군사 강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거절했다. 약간의 자금을 모으기로 결정한 설탕세는 엄격하게 시행되었고,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 스탬프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 세금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대표 없이 세금”을 내렸고, 물론 혁명으로 이어졌다.

미국 역사의 위기를 수반하는 육군전쟁대학에서 수업을 가르치던 중 해리 서머스 대령은 제3세계 국가의 한 장교로부터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민사통제의 원칙은 군대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비록 전 세계에서 일어났지만, 이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았다. 형태를 갖추는 데 충실하기 때문에 전후 국방 예산은 적었다. 적에게 A폭탄(핵폭탄)을 떨어뜨리고 빠른 승리를 거둘 공군으로부터 더 많은 가성비를 얻기 위해 트루

40) 붉은 제복은 17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역사 속 영국군의 정복이 붉은 색의 코트였기 때문에 붙여진 용어이다. 원어로서의 레드코트(Redcoat)는 본래 그 군복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군복을 착용한 군인 또는 당시의 영국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먼 행정부는 그 지점을 가장 큰 비중으로 주었다. 해군은 일부분만 감축되었지만, 가장 큰 감축은 육군에 넘겨졌다. 모든 사람들은 다음 전쟁이 푸시버튼, 로켓, 미사일 등과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땅개(육군을 비하하는 말 :foot-slogging riflemen)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수많은 불필요한 사상자 및 일부 굴욕적인 패배를 초래했다.

1949년 8월, 소련은 원자폭탄을 폭발시켰다.⁴¹⁾ 미국은 더 이상 핵 독점권을 갖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공산당은 본토를 통일했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장면의 변화로 인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소련의 거대한 재래식 화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

41) 1949년 8월 29일은 소련이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날이다. 1945년 7월 16일 사상 처음으로 원폭 실험에 성공해 4년간 독보적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소련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핵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끌어들이고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소련의 핵 개발은 공산정권에게는 힘이 되었지만 특히 1947년 마셜 플랜에 따라 재건 중에 있는 유럽에게는 충격과 공포의 소식이 되었다. 원폭실험은 9월 3일 미 공군의 장거리 정찰기가 캄차카반도 동쪽의 북태평양 상공에서 대기 중에 다량의 방사능을 감지함으로써 알려지기 시작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9월 23일 이 사실을 발표했다. 침묵을 지키던 소련도 9월 25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로젠버그 부부의 처형과 같이 소련에게 핵 기술을 넘긴 자들에 대한 검거에 혈안이 되었고 또한 1950년에는 공산주의자 색출에 열을 올린 매카시즘이 시작되었고 이는 1954년까지 지속되었다. 소련의 핵 실험 성공의 직접적 피해자는 한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소련 간에 1945년 7월말에 열린 포츠담회담 당시만 해도 회담에서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뛰어드는 대가로 홋카이도의 반을 넘겨달라고 했지만 미국은 거절했고 그 힘의 근원은 핵무기였다. 결국 소련은 홋카이도 대신 한반도를 분할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핵실험 성공으로 미국의 독점적 우위는 무너졌다. 결국 1949년까지 남침에 반대했던 스탈린은 핵 실험 성공 후 마음을 바꾸어 남침을 승인하게 되었다.

해 미국 지상군이 전례 없는 평시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이런 국제현장의 변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68)는 소련의 거대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지상군을 전례 없는 평시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비록 그 생각에 호의적이지만, 트루먼은 의회도 미국 국민도 평화시 방어를 위해 그 계획이 요구한 500억 달러를 쓰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재 예산은 130억이었다. NSC-68⁴²⁾은 북한의 공격이 승인될 때까지 보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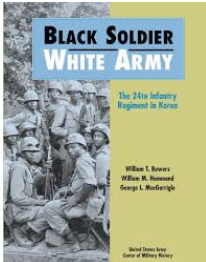
▲ 소련 핵실험 직후 소련에 핵기술을 넘긴 간첩 혐의로 처형된 로젠버그 부부⁴³⁾

42)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제68호 또는 통칭 NSC-68은 미국 트루먼 정권기 중 1950년 4월 14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한 전체 58쪽의 비밀 정책 문서이다. 이는 미국 냉전 정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서중 하나로 공산 세력 확대에 대한 봉쇄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담고 있어 냉전기의 향후 20년간 미국 외교 정책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NSC-68이 주장한 전략은 소련의 붕괴와 미국식 자유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하는 “신세계 질서”의 출현과 함께 최종 승리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9월 30일에 트루먼 대통령이 NSC-68에 공식 서명했으며 1975년에 기밀 지정이 해제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NSC-68>(검색일: 2019.9.18.)

43) <https://ko.wikipedia.org/wiki/>

6. 철회 연속

북한인민군(NKPA)의 주력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축을 따라 있었다. 미국 25보병사단(트로픽 번개)은 중앙 지역에서 한국군을 지원하고 대구에서 적의 작전을 막기 위해 배치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T-34 전차가 움직일 수 없는 산악 지역에서 방어를 하였다. 사실, 북한인민군(NKPA) 군단 지휘관은 그의 느린 진보 때문에 안심했다. 7월 19일, 중요한 도로 교차점인 예촌 마을은 떨어졌지만 모두 흑인으로 구성된 25사단의 24보병 연대⁴⁴⁾에 의해 다시 점령되었다.



▲ black soldier white army⁴⁵⁾



▲ 24 보병연대⁴⁶⁾

44) 한국전에서는 흑인들로만 이루어진 제24 보병연대가 있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인종적 차별로 얼룩져있다. 1997년 미 육군 군사 편찬소가 발행한 ‘검은 병사, 흰 군대(Black Soldier, White Army)’란 제목의 책자에는 이들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드러나 있어 흑인 참전용사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보병 24연대는 당시 다른 부대만큼 잘해냈으나 근거해이 등으로 미8군 소속 다른 부대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군대로 묘사돼 있었던 것이다.

45) William T Bowers, William M Hammond, George L Macgarrigle, 『위의 책』, 2005.6.5., 86쪽.

46) <https://brunch.co.kr/@elyzcamp/50>

전쟁 특파원 톰 램버트는 이를 “...한국전쟁의 첫 번째 미국 지상 승리”라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흑인 전투기 조종사인 찰스 부시 대위는 전투 기술자로서 실버 스타를 수상했다. 미국으로 돌아 왔을 때, 제24연대에 들어가달라고 요청하는 흑인들이 모집 사무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8일 오전 주한미군을 모두 포함해 8군 사령관 윌튼 위커 장군이 대전에 도착해 제24사단 사령관(CO) 윌리엄 딘 장군⁴⁷⁾에게 미군 1기병사단에서 막 착륙한 부대가 20일까지 이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지 물었다.(명목상 ‘기갑’이었다.) 대전에서 철수하려고 했지만, 딘은 위커에게 붙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

47) 윌리엄 프리시 딘(William Frishe Dean, 1899.8.1~1981.8.24.)은 미국의 군인으로 제2차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한국의 군정기 당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의 군정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전쟁 참전 중에 조선인민군에 납치되어 평양으로 끌려가기도 했으며 휴전 이후 미국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딘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맨 처음 투입된 부대인 미8군 제24사단을 맡았다. 그는 대전 전투에서 전선의 맨 앞에 나아가 3.5 인치 바주카로 T-34 탱크를 사냥하였다. 사단장 딘 소장은 3.5"로켓포 반을 지휘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7월 21일 오후 34연대 지휘소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딘 소장은 34연대의 마지막 소대와 함께 50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계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매복한 인민군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여 차량을 버리고 후퇴하였다. 딘 소장이 탄 지프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본대와 분리되게 되었다. 딘 소장과 함께 있는 병력은 미군의 전선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였는데, 딘 소장은 함께 가던 부상병에게 물을 떠다 주기 위하여 어둠속에서 물을 찾아 계곡을 내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실신하였다. 무주, 진안 근처에서 헤매던 그는 박종규의 도움을 받아 피할 수 있었으며, 36일 후 경찰부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에서 한두규의 밀고로 인민군에 생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딘 소장의 전속부관이 한두규에게 사살되었다. 한두규는 9.28 수복 후 경찰에 체포되어 1954년 9월 23일에 “불법체포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그는 무죄를 주장하였다. 복역 중에 딘 소장이 그의 감형을 탄원하여 1957년 좌익수전향자로 감형되어 출소하였다. 그는 1953년 10월 4일까지 포로로 있다가 풀려났다. 『세전북신문』, 이치백의 전복의 기억 <7> 미군 ‘딘’ 소장, 2009.10.08

장 큰 실수였다. 북한인민군(NKPA) 3, 4사단에 의해 공격당하고 측면에서 포위되고 괴멸되었다. 딘은 포로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다.

미국 병사(GI)는 때때로 용감하게 싸웠다. 또 어떤 때는 압도적이고 수치적으로 우세한 세력과 맞닥뜨리면, 그들은 그들의 정부가 인간의 배설물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이 악취가 나는 신이 포기한 장소로 그들을 보낸 것에 대해 저주하면서, 후방으로 “밀려나갔다”고 말했다. 7월 22일 제1기갑대에 의해 타격을 입은 미국 24사단은 17일 전 전력을 절반을 잃어버렸다. 31개의 105mm와 5개의 155mm 곡사포를 포함하여 전체 부서를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를 잃어버렸다. 고위 장교들에게는 끔찍한 피해가 있었다. 딘 장군 외에도 연대 간부 3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1명이 살아남았다. 한 연대 간부는 부상당했고 두 명의 참모가 붙잡혔다. 2명의 참모들이 포로로 잡히는 동안 연대 간부 1명이 부상했다. 소총대대장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야전 포병대(FAB) 소속 2명을 포함해 수많은 야전급 장교들이 전사, 포획, 부상 또는 해직되었다. 야전포병대대(FAB)에서 2명을 포함해 수많은 다른 야전급 장교들이 살해, 생포, 부상 또는 해임되었다. 7월 6일 제63차 FAB가 전투에 참가한 PFC 셰필드 클라크는 이렇게 기억한다. “그것은 미친 듯이 뺨소니치는 전술이었고, 남쪽으로 달리는 전쟁이었다. 탄약과 보급품이 부족했다. 타이거 탱크(러시아 T-34)는 악몽이었고 로켓 발사기(대전차 무기)에는 탄약이 없었다. 한때, 우리의

야전포병 부대는 우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제3보병대보다 2,000 야드 앞섰다. 침입자(북한군)들은 우리를 마치 한국 노파처럼 옷을 차려입고 전쟁터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피난민으로 위장하고, 우리의 전초기지를 지나가기 위해 권총으로 한국 노년 여성들을 잡고 있었다. 우리 자리는 우리 뒤에 들어온 침투자들에 의해 압도되었다. 공격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우리의 기관총은 죽었고 우리 자신의 기관총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105대대를 잡았고 그들을 위해 탄약을 잔뜩 가져갔어. 대전으로 돌아갈 무렵에는 우리 부대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열두 명뿐이었소.”

일본 내 보급 및 군 복무 인력은 보병으로 재분류되어 한국으로 보내졌다. 예비역들은 신속히 현역으로 출동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전투를 본 랄프 엘튼 상사는 5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 첫해 동안 전투에 참가했다. 그는 두 번째로 부상당해 허리 아래가 마비됐다.

당황한 한국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벗어나 10일간의 훈련을 받고 미국 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이상한 관습을 가진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일부는 눈에 띄게 잘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놀랄 것도 없이 예상했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투사(한국군 증원)는 점차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 극단적인 전선 교체 부족은 육군 통합의 “어머니”가 된 필요성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에 그러한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흑인 병사들은 여전히 24보병 연대와 같은 모든 흑인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제9보병 사령관인 진슬론은 검은 충전재(흑인병사)를 수용했다. 그의 대대 지휘관 중 한 명인 부치 바베리스는 이렇게 기억한다. “나는 반도 안 되는 힘으로 남성들에게 매우, 매우 낮았고, 더 많은 군대를 얻기 위해 지옥을 일으켰다. 사단 G-1(인사 장교)은 전화를 걸어 내가 이전에 흑인 부대를 지휘했다는 것을 알고, 내 대대에서 복무했던 부산의 노동부대에서 거의 2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와 함께 복무할 수 있다면 보병으로 전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나는 그 부대를 갖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훌륭한 전투원이었소.”

이처럼 군은 한국사회에서 뛰어난 기회균등 고용주가 되었다.⁴⁸⁾ 아프리카계 미국인 콜린 파워 장군은 높이 평가받고 효과적인 합참 의장이 되었다.⁴⁹⁾ 포트 노우에서 학교 부대로 봉사하는 제 70탱크 대대의 일원인 짐 해리스는 곧 퇴역할 예정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70일

48) KSC(Korean Service Corps=한국근로봉사단)라는 지계부대원, 즉 비전투원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30~40대 청장년들로 각처에서 징발된 노무자들이었다. 지계에 무거운 포탄이나 식량들을 짊어지고 전투지역 최전방 고지까지 오르내린다. 물론 군번도 발급도 없으며 최소한의 호신용 무기조차 없이 포연탄우(砲煙彈雨) 속을 누빈다.

49) 1948년 7월 26일은 헤리 트루먼 대통령이 병영 내부에서 흑인 차별을 철폐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미군 내부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날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세월동안 흑인 4성 장군은 고작 10명(육군 5명, 공군 4명, 해군 1명)만이 배출됐고 현재는 현역 4성 장군 38명 가운데 단 1명뿐이다. 역대 흑인 4성 장군 가운데 유명세를 탄 인물로는 콜린 파워(Colin Powell) 전 국무장관과 17세에 군에 입대해 4성 장군이 된 조니 윌슨(Johnnie E. Wilson)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은 한국으로의 이적을 위해 짐을 싸는 데 96시간을 주었다. 해외로 보내질 충분한 입대 시간이 없었던 13명의 남성들에게 특별한 호소가 있었다. “미국 GI는 러시아제 탱크에 의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3명 모두 2 부와 함께 한국에 나타난 1명을 제외하고 다시 입대했다. 대대는 탱크가 너무 부족하여 포트 녹스 주변의 기념물로 콘크리트 받침대에 있는 사람들은 엔진, 변속기 및 기타 장비를 설치하여 작동해야 했습니다. 그런 부품들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날아와야 했다. 남자들은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곤장 일을 마쳤지만, 마감일은 지났다.

흑인이 국무장관이 된 것은 콜린 파월이 처음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1950년 한국전쟁이 미 군부대에서 인종 간 차별이 철폐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적과의 싸움에서 흑인과 백인 병사들 사이의 화합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펜타곤(국방부)은 마치 “색맹”이 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체 육·해·공군 장성 923명 가운데 흑인 장성의 비율은 5.6%다. 계급별로는 흑인 중장이 8명, 흑인 소장은 17명, 흑인 준장은 26이며, 흑인 준장 가운데 3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 흑인 병사는 전체 군인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흑인 장교는 전체 장교 비율의 9%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장성을 비롯한 군 고위직에 흑인들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은 개인 사정에서부터 군 내부에 흑인 선임자가 없는 것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군에 입대한 흑인들이 전투 병과보다는 군수와 통신, 엔지니어링 등 제대 이후 사회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병과를 선호한 결과 흑인 장성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인종차별 보다는 흑인 병사들 스스로 “군 바깥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경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전투 병과에 소속된 흑인 비율은 25%정도였지만 지금은 2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유는 장교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흑인 학생들의 비율이 백인 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시아와 라틴계 학생들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美 흑인 장성★ “하늘의 별따기”』, 『노컷뉴스』, CBS 박종률 특파원, 2008-07-24

적의 T-34와 대등한 이들 M-4와 M-26 중전차가 14일 합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올라오자, 초췌하고 전투에 지친 전선 부대들, 일부는 공개적으로 흐느끼며 그들을 맞으러 앞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보기 흉한 강철 괴물들 주위에 몰려들어 마치 피투성이가 된 말이라도 된 것처럼 토닥거렸다. 짐 해리스가 동포들을 돕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안 것은 그때였다. 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감정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녹슨 헬크는 오래된 태평양 2차 세계 대전 전장에서 수집되어 일본에서 단장되었으며 필요한 또 다른 탱크 대대인 70번째를 장착하는 데 사용되었다. 34세의 톰 돌빈(웨스트포인트 39) 사령관은 12일 미국 내 골프장에서 구두 명령을 받고 8월 2일 한국에서 전투를 벌였다. 24사단을 구한 제1기갑사단은 전시(戰時) 공인된 18,900명의 병력 중 11,000명만 보유했다. 비임무 장교 중 약 750명이 처음 행동했을 때 24일로 옮겨졌다. 카브는 대전/대구 도로에서 강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인민군(NKPA)의 진격을 지연시켰다. 무거운 전투 중에 한 대대(제8연대 제2대)가 포위되어 단절되었다. 포병들은 보병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다가오는 적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 위해 관을 내렸다. 포위된 병사들에게 돌파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지만 2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7월 24일 밤, 대대는 분열되어 차량과 중장비를 남겨두고 친선(親線:우호적인 선)으로 다시 침투했다. 제25사단의 제27연대(올프하운드)는 본격적인 북한인민군(NKPA) 공격을 완전히 물리친 최초의 미국 연대였다. 2개 대대 중 한 개 대대가 줄지어 있었고, 나머지 한 개 대대는 예비로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처음 공격은 강력하고 접전 끝에 진압되었지만, 6대의 탱크가 대대 지휘소(CP)로 침투했다. 그러나 6개의 탱크가 대대 지휘소(CP)로 침투했다. 3대는 지상 화재로 파괴되었고, 나머지 3대는 공군 F-80 제트기에 의해 파괴되었다.

적들이 그날 밤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믿었던 마이클리스 대령은 일선 부대가 어둠 직후 예비 대대를 따라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공격은 새벽에 재개되었다. 버려진 위치를 이중으로 감싸려고 하는 북한인민군(NKPA)은 두 개의 볼프하운드 대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간 양 측면을 중심으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그들의 집중 사격은 너무 파괴적이어서 적이 그 분야에서 공세를 펼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카엘리스(Michaelis)는 어린이들(젊은 병사)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그 중요한 자신감을 바로 발전 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너무 거칠어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울프하운드(Wolfhounds)를 자신의 소방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주변 지역의 분쟁지역에 파견될 것이다.

7. 부산 주변

위커 장군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올프하운드 호를 소방대로 동원해 주변 문제의 장소로 보내곤 했다. 제8군이 북한인민군(NKPA)의 시끄러운 타격에 계속 휘청거리자, 위커 장군은 맥아더 장군의 방문을 약속 받았다. 위커는 제2보병사단, 제5해병대, 육군 제5연대 전투팀(RCT)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더 이상 철수는 없을 것이다. 위커는 6주 동안 유지해야 했고, 2개 사단의 예비군이 건설되어 황해 인천항의 적선 뒤에 착륙했다. 이로 인해 남쪽의 북한인민군(NKPA)에 공급이 끊기고 패배를 보장할 수 있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제8군은 참아야 한다. 위커는 언론이 그의 “서 있거나 죽는”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의 군대 지휘관에게 발표했다. 더 이상 후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선을 지킬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유엔군은 부산 주변으로 알려지게 된 한국 남동부에 있는 그들의 빈약한 발가락을 따라 파고들었다. 미군이 유인한 서쪽 가장자리는 낙동강을 따라 북쪽으로 약 85마일 떨어진 한국 해협에서 달렸다. 대구 북쪽에 있는 이 선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동해의 포항까지 약 50마일을 달렸다. 한국군은 이 산악 지대에서 방어했다. 그들은 예상보다 더 잘 수행했고 공격자들에게 심각한 사상자를 냈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 선박의 해군 총포 지원을 받았다. 일단 해안을 따라 후퇴하자 제3사단은 포위되었다. 해군은 그들을 이륙시켜 남쪽으로 더 내려주었다.

김일성은 사상자에 관계없이 북한군에게 8월 15일(한국 시간)까지 부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일본군의 항복 기념일이었다. 동양에서는 점성술적 계산, 시기, 날짜가 중요하다. 싸움은 격렬했다. 북한군은 사상자를 겪었지만 부산을 점령하지 못했다. 미국 무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손실에 굴복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은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이 지역에 더 많은 군대를 쏟아 부었다. 시간은 그들에게 불리했다. 유엔군이 북한인민군(NKPA) 승리를 배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되기 전에 그들은 지금 승리해야 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밤에 사람과 물질을 이동시킴으로써 유엔의 공기 통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군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 민기식 한국 대령은 연대 규모(태스크포스 민)의 부상당한 부대를 결성해 남서부를 통과해 진격을 지연시켰고, 이 지역의 쌀을 상당 부분 압수해 부산으로 보내 배급 문제를 추가했다. 북한인민군(NKPA)은 이 땅에서 살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 주변은 몇 야드마다 2인용 은닉처가 연달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부대가 너무 적었다. 오히려 공격적인 방어였다. 관측소는 전방을 따라 늘어져 있었고 적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후방에 위치한 군대가 앞으로 나와 북한인민군(NKPA)를 공격하여 낙동강을 넘어 다시 밀어내곤 했다. 그들은 공군과 해군이 관측과 근접 지원 지원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전술 임무의 44%는 해안에 위치한 항공모함 갑판에서 해군과 해병대에 의해 비행되었다. 그러나 공

군은 이 시기에 상당한 불리한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왜냐하면 F-51과 C-47 유형의 항공기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두 개의 스트립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 K-2와 동해안의 연일 K-3 전술기들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날아왔다. 전투는 치열했다. 유엔군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신병들은 재빨리 전투에 투입되었다. 오키나와에서 온 29보병대 2개 대대는 오키나와에서 온 제29보병 2개 대대는 새로 발행된 무기의 야포(野砲)를 청소하기 전에 투입되었다.

육군 예비군에 있는 울프하운드는 이곳저곳에서 핫스팟으로 옮겨졌다. 낙동 벌지에서 적의 침투를 방출하기 위해 첫 번째 해병 임시 여단이 두 번 소집되었다. 24보병사단과 2보병사단의 육군은 이 지역에서 11일 동안 심장을 내고 적의 진격을 막았지만 너무 약해 북한군을 강을 건너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를 경험한 윌리엄 R. 엘리스 중위는 제9보병연대가 훌륭하게 싸웠다고 말했다. “원래 장교들은 용감하고 순위가 낮았지. 대부분의 회사 지휘관들은 첫 번째 중위였는데, 이것은 불명예 그 자체였다. 그들은 40세의 회색 머리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고 1950년에도 여전히 중위였다. 나는 그들 모두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용감한 것에 대해 알려지지 않고 보상받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내가 그들과 합류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E사는 다섯 번에 걸쳐 모든 장교들을 전멸시켰다. 입대할 제34보병연대의 찰스 페인은 이렇게 기억한다. “깡패들의 무리(적)가 언덕 위와 홍수처럼 틈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 사람들은 노련한 기

병처럼 싸우고 있었지만, 막 압도당하고 있었다. …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북한 사람들을 저지했다. …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다. 우리가 사람을 잃을 때마다 그들도 많은 사람을 잃을 것이다. 땅은 죽은 자들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보호를 위해 죽은 자들을 우리 주위에 쌓아두었고, 전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오늘날, 혹은 그때까지도 북한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 고통과 고통, 최고의 영웅적 노력과 용맹을 아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 미국은 6주 동안 전쟁 전체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 만약 대중이 이 모든 중요한 전투를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병커 힐, 알라모, 바탄, 코레지도르와 나란히 순위를 매길 것이다.⁵⁰⁾



▲ 낙동강 방어전선

50) <https://namu.moe/w/6.25>

8. 인천상륙

적진에 훨씬 뒤쳐진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이 지난달 29일 한국행 개인정찰에서 착안한 것이지만 한반도를 밀고 내려오는 북한인민군(NKPA)을 강하게 밀어 부쳐 지연시키기 위해 그가 계획한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연기되어야 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물론 맥아더의 참모가 아닌 대부분의 육군 요원도 작전에 반대했다. 한 제독은 “우리는 착륙에 대한 모든 자연적, 지리적 장애 목록을 작성했고 인천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착륙지로 가는 좁은 통로는 쉽게 차단될 수 있었고, 해류는 8노트나 되어 있었고, 해변은 없었고, 쉽게 방어할 수 있는 도시는 인천만 있었다. 가장 나쁜 것은 썰물 때 진흙 바닥만 남긴 32피트 높이의 조수였으며, 이로 인해 12시간 동안 두 번째 착륙을 기다려야 했다.

8월 23일 도쿄 회의에서 해군은 장애물에 대한 발표에서 85분을 보냈지만 가장 어려운 작전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현재 해군, 육군, 제 5공군, 맥아더 장군 및 그의 직원 중 일부가 참석했다. 그 후 맥아더는 복잡한 군사 작전을 훌륭하게 설명했다. “철자법”은 포레스트 서먼 해군 제독과 J. 로튼 콜린스 육군 총사령관이 묘사한 방식이었다. 제임스 도일 제독은 맥아더가 무대에 올랐다면 세계는 존 배리모어(John Barrymore,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유명한 미국 배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상륙은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움직임 중 하나가 되었다. 부산 경계선 주변에서 정면승부를 하는 살육은 중단될 것이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예방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급히 200척 이상의 선박을 모아 7만 명의 병력을 그런 위태로운 곳에 성공적으로 상륙시킬 수 있는 수단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군이 더 밝게 빛나지 않았다.” 극동 사령관의 말이다. 제1해병사단은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33분 월미도(인천 입구를 지키고 있는 요새화된 섬)에 대대(2BN, 5연대)를 상륙시켰다. 한 시간 뒤 섬은 안전해졌다. 조수가 높기 때문에 인천에 착륙하기 전에 12시간 동안 어려웠다. 그러나 작전에 성공했고, 제1해병연대와 5대대의 나머지 병력은 놀란 적의 가벼운 저항에 부딪쳤지만 목표는 달성했다. 해병과 해군이 하늘을 지배했다. 해양과 해군의 공기가 하늘을 지배했다. 한국 해병대는 인천을 점령했고, 제7연대 소속 해병대는 20마일 떨어진 서울로 이동했다. 제7보병사단은 해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남쪽에 착륙하여 이동했으며, 남쪽에서 도망친 북한인민군(NKPA) 요원을 차단하고 부산 주변에서 탈출한 병력과 연결되었다.

상륙 부대는 X군단으로 지정되었고, 제1해병사단 사령관 올리버 스미스를 불쾌하게 한 무뚝뚝하고 우월한 장교인 네드 아몬드 소장의 지휘 하에 있었다. 스미스는 육군 지휘 하에 있는 것에 분개했다. 해병대가 서울 서쪽의 중무장지대를 공격하자, 아몬드 장군은 스미스에게 1개 연대를 남쪽으로 보내서 바로 한강을 건너 수도로 들어가자고 제

안했다. 스미스 장군은 연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해병 사상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아몬드는 사람이나 장비를 잃지 않고 군대의 32연대를 보냈다. 그 뒤를 이어 제17연대가 뒤따랐다. 육군 부대에 대한 강한 공격 이후 주요 북한인민군(NKPA) 부대는 철수했지만, 그들의 후방 경비대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싸우는 해병대에 대한 강한 저항을 계속했다.⁵¹⁾



▲ 인천상륙작전 1 함포사격



▲ 인천상륙작전 2 육지상륙

9. 북한 침공

인천 상륙은 북한인민군(NKPA) 패배를 보장하면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전쟁의 운명을 바꾸었다.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장군은 맥아더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면 대부분 믿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극동 사령관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9월 27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홍보와 선전도 없이 38선을 건너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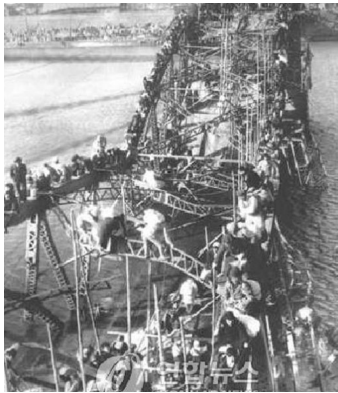
51) 아래 사진의 출처는 <https://yourincheon.tistory.com/entry/이다>.

명령을 받았다. 목표는 남은 북한인민군(NKPA) 군대를 파괴하고 남한 정부 하에서 북한을 단결시키는 것이었다. 유엔은 이 조치를 다소 꺼려했다. NSC-81⁵²⁾의 이유 중 일부는 (1) 2,500명의 미국인과 25,000명의 한국 포로가 억류되어 있었다. (2) 대규모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갑옷, 중포, 공중 지원이 부족한 군대가 있는 적중국은 아마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3) 러시아의 영향에서 북한을 빼앗는 것은 미국과의 화해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4) 북한이 회복된 후에도 다시 침략할 수 있다. (5)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통일을 목표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6) 미국인들은 미군에 대한 적의 잔혹행위에 격분했다. 그리고 (7)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승리로, 공산주의에 연연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트루먼 행정부는 그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맥아더는 한국에서 마주치는 중국군과 교전할 예정이었다. “.....당신의 판단으로는, 지금 당신이 통제하고 있는 힘에 의한 행동이 합리적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

맥아더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 완강한 저항을 두려워한 나머지, 8군단이 남쪽으로부터 공격한 동안 동쪽에서 한국의 ‘좁은 허리’를 가로질러 평양을 향해 공격하기 위해 X군단을 철수시켜 동해안에 상륙시켰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8군의 침공을 위해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웠

52) 1950년 9월 9일 국가 안전보장이사회보고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행동 과정” : 국가 안전 보장 이사회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국의 가능한 행동 과정에 대해 보고합니다. 남한의 북한 침공에 대한 대응.

던 만큼, 중국이 한국에 배치할 시간과 북한인민군(NKPA) 부대에 대한 약간의 복구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교통 시스템을 과부하시켰다. 평양은 10월 19일 제1차 케이브와 제1차 한국사단에 의해 점령되었다. 한국군은 동해안으로 너무 빠르게 진격하여 X군단이 바다로 도착하기 전에 원산의 상륙지를 점령했다. 평양 북쪽의 제187공수연대 전투팀이 완벽하게 실행된 공중 투하기는 낙하산 부대원들이 상륙하기 전에 학살당한 미군 포로들을 구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북한인민군(NKPA) 500의 부대는 187과 호주 대대 사이에 잡혔다. 27번째 영국 연방 여단은 기병과 연결되기 위해 진격했다. 그들은 미국인들을 칠 것을 두려워하여 총검을 충분히 지급하였지만 270명이 사살당하고, 200명을 포로로 잡혔다.⁵³⁾



▲ 1950년 12월 12일 AP통신 기자가 대동강 철교를 찍은 사진⁵⁴⁾

53) 한국전쟁 당시 피난은 이승만은 하루 전에, 김일성은 8일 전에 탈출하였다.

54) 「'끊어진 대동강 철교' 찍은 기자 별세」, 『중앙일보』, 2018.02.21.

10. 중국 개입

1860년대까지, 팽창주의 러시아는 차르 휘하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에 도착했다. 일본과의 갈등(1904~1905)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일본을 이 지역에서 천적으로 여겼다. 193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 중 조셉 스탈린은 장개석 통치하에서 민족주의 중국인을 지지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당시 일본인을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마오쩌둥(毛泽东)은 다른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당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는 적 장개석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었다. 마오쩌둥(毛泽东)과 스탈린의 관계는 냉정했다. 민족주의자들이 패배하고(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을 때, 미국의 극동 정책이 바뀌었다. 장개석에 대한 지지는 부패한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중단되었다.

1949년 12월, 미국 대사관은 민족주의자들이 도망친 타이완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함락되면, 그것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권고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화해는 만주를 탐내는 러시아가 중국의 진짜 적임을 보여 주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스탈린은 이 변화를 알게 된 것 같다. 미국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영국 정보부에서 일하는 McLean, Burgess 및 Philby는 나중에 소련 스

파이로 밝혀졌다. 마오쩌둥(毛泽东)의 지속적인 성공은 그를 국제 공산주의의 지도력의 라이벌로 만들 것이다. 스탈린이 북한 주민들을 돕기로 약속했듯이, 그는 또한 침략을 위해 타이완 맞은편에 20만 명의 군대를 집결시킨 중국인들에게 원조를 제공했다.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먼저 침략하도록 강요하여 중국인들에게 도움을 늦출 구실을 제공했을까? 한국 침략에 대한 그의 지지는 미국/중국의 화해를 방해하려는 노력이었을까?

인천 상륙 작전이 한국전쟁의 전 과정을 바꾸자 스탈린은 중국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군력을 약속했다. 10월 1일 회의에서 대부분의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중공업의 80%가 만주에 있었고 북한에서 생산된 전력에 가장 의존했지만 개입에 반대했다. 중국공산군(CCF)을 지휘할 쑹더화이(彭德懷) 장군은 미국인들이 압록강(한국과 만주 사이의 국경)에 도달하면 중국을 침공할 구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쩌둥(毛泽东)은 중국이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입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러시아의 압력이 아니라 자국의 국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군(CCF) 제4야군(20만 명)의 병력은 이미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으로 건너갔고 제3야군(12만 명)의 병력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했다. 이 부대는 주로 전략적 역할인 목표물의 위치와 폭격 평가에 고용된 유엔 항공 정찰에 의해 탐지되지 않았다. 마오쩌둥(毛泽东) 의장은 현장에서 지휘관들에게 “애완견, 주구(走狗) 이승만”의 2~3개 부서를 먼저 파괴하라

고 지시했다. 군은 평양-원산선을 넘어 진격하지 않았고, 중국공산군(CCF)은 러시아 포병과 공군력을 공급받은 후 6개월을 기다렸다가 모든 적군을 한국에서 추방해야 했다.

유엔군은 진격을 계속했으며, 10월 25일 평양에서 북쪽으로 70마일 떨어진 운산에서 한국 15연대는 10월 17일부터 산에 배치된 중국군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미 8기병 연대는 전체 대대를 잃었다. 6사단의 한 연대가 압록강까지 갔으나 섬멸되었다. 다른 두 개의 한국 연대가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불가사의하게 철수했다. 본부로 돌려보낸 죄수들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정보당국은 2만 7,000명(추후 70,000명으로 증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의 중국인이 없다고 추정했다. 32만 명이 있었다! 겨울 옷 등 물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 제8군(11만 8,000여 명)의 진격이 재개됐다. 일부 소총수들은 탄약을 16발 정도 갖고 있었다. 중국공산군(CCF)은 국군 2군단을 대대적으로 공격해 후방으로 보냈다. 왼쪽으로는 미국 2·25사단도 격렬하게 폭행을 당해 일부 지점에 침투했지만 상황을 복원하고 버티는 데 성공했다. 한국군의 붕괴는 제2사단의 측면을 노출시켰고 유엔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2연대의 2개 연대는 군우리에서 거의 파괴되었지만, 나머지 육군은 기동력을 발휘하여 단 며칠 동안만 공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중국공산군

55) 운산은 미군이 중공군과 첫 조우한 곳이다.(운산전투 1950.10.25~11.3) 맥아더는 “중공 불개입”할 것이라 오관하여 무방비로 중공군을 맞아 운산을 지키던 미군 8기병연대 부대원 600명을 잃고 패퇴하였다. 30만 중공군 반격에 대패 6·25 최대실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CCF)을 따돌리며 순조롭게 철수했다.

동쪽의 X군단 부문에서는 7사단의 연대가 혜산진의 압록강에 도착했지만 해병대는 장진 저수지⁵⁶⁾에서 멈추었다. 올리버 스미스(Oliver Smith)는 보고되는 것보다 이 지역의 적을 더 많이 감지한 채 네드 아몬드(Ned Almond)가 그에게 재촉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길을 따라 탄약과 물자를 비축했다. 그의 경고는 그의 지휘권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치하지 않는 2개 대대, 포병, 그리고 다른 지원 부대로 구성된 육군 기동대가 해병 오른쪽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제 위치에 들어갔다. 두 개의 불일치 대대, 포병 및 기타 지원 부대의 육군 태스크 포스가 해병대 오른쪽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배치되었다. 이 지역의 12만 중국공산군(CCF) 중 대부분이 해병대와 육군 태스크 포스를 강타했다. 겨울은 영하 24도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었다. 무기와 차량이 얼어붙었다. 해병대는 4,418명의 전투 사상자와 7,313명의 비전투 사상자(대부분 기상 관련)를 냈다.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 박스 카(C-119 형 항공기)는 트레드웨이 다리(통로 다리)를 떨어 뜨려 다리를 파괴한 펀치 린 패스(Funchilin Pass)를 통해 무거운 장비를 꺼낼 수 있었다. 낙하산 부대원 프레드 피셜(Pred

56) 해병대가 초신 저수지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동부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후 적군은 철수했다. 당시 한국군은 군대 작전에 활용할 만한 정밀한 지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에 미군 등 유엔군은 식민지 시절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국 지도를 구해 군사작전에 썼다. 이에 한국 지명의 일본어식 발음이 영어로 옮겨지게 되었다. 장진(長津)의 일본어 발음이 ‘초신(chosin)’이었기에 미군의 뇌리에는 ‘초신 저수지’로 각인된 것이다.

Fishel)은 일본에서의 실습 강하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12월 11일까지 마지막 병사는 미국 제3사단이 보유한 흥남의 숙소 지역의 안전하게 도달했다. 성가시게하는 카투스(Katusa), 부족한 탄약, 그리고 4명의 상급 지휘관 모두를 잃은 불운한 육군 부대(태스크 포스 맥린/페이스)는 죽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원래 2,500명 중에서 385명이 임무에 적합했지만, 해병대의 오른쪽 측면을 보호하고 중국공산군(CCF) 80사단과의 전투에는 효과가 없었다.

중국공산군(CCF)은 유엔을 북한에서 강제로 몰아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공산주의 측에 유리한 소식통은 유엔이 적에게 20대 1의 비율로 사상자를 냈다고 추정한다. 평덕화이(彭德懷) 장군은 마오쩌둥(毛澤東)의 본부로 날아가서 군대가 지쳤고 옷, 장비 및 지원이 그러한 군사작전에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불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X군단은 거의 10만 명의 민간인들이 공산주의 밑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가운데 해상으로 대피했다. 오른쪽 측면이 산산이 부서진 제8군은 X군단과 합류한 38선에서 남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한반도의 더 좁은 지역으로 퇴각했다. 유엔은 휴전을 요청했지만 세계적 호평을 받은 의기양양한 중국인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더 많은 군대에 투입된 그들의 목표는 한국의 유엔군의 배제였다. 워커 장군은 24일 지프 사고로 숨졌다. 매튜리지 웨이 장군은 패배, 실망, 사기가 떨어지는 8군대의 지휘권을 이어 받았다. 철수의 곤경(困境)이 언론에서 크게 과장되었다고 믿었던 리지 웨이는 곧 군대를 돌려 중국공산군(CCF)

과 북한인민군(NKPA)을 북한으로 다시 밀어 넣기 시작했다. 합참의장 오마르 브래들리 5성 장군은 그의 훌륭하고 운전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지도력이 미국 군사 역사에서 다른 장군이 아닌 전투의 물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한국전쟁 발발 당시 중공군⁵⁷⁾

11. 미국 정책

냉전 기간 동안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통제되고 모든 행동이 모스크바에서 지시되었다는 미국의 정책을 방해한 하나의 잘못된 개념. 조지 케넌, 칩 볼렌, 아베렐 해리먼 등 러시아 전문가들은 소련이 전쟁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고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인들은 북한의

57) 유용원, 「BEMIL사진자료실 6.25 전쟁 때 짚개여군」, 2010.10.3.

침공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 제 7함대는 타이완 해협으로 진입하여 민족주의 중국 본토의 침략을 막았다. 물론 이 때문에 1949년 12월 미국이 화해를 모색하고 있던 인민 공화국에 적대적인 신호가 전달되었다.⁵⁸⁾



▲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는 모택동⁵⁹⁾

58)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정부는 무창(武昌起義), 신해혁명(辛亥革命)을 통해서 1911년 10월 10일 아시아에선 첫 번째로 생겨난 민주공화국이었다. 하지만 1937년 일본의 침략으로 8년 동안 대일항전(對日抗戰)을 겪고 8년 동안 황폐해진 국토와 약해진 국력 속에 다시 국공내전을 시작해(1946-1949)해서 결국 패전의 패전을 거듭하여 1949년엔 대만으로 정부를 옮기게 된다. 중국대륙을 점령한 공산당에겐 이제 남은 건, 대만 섬에 잔존한 병력을 섬멸하는 거였다. 그래서 마오쩌둥(毛泽东)은 주산군도를 점령한 뒤, 인만해방을 위해 50만 병력을 투입하기로 작전을 계획했었다고 한다. 여기서 당시 국제적으로, 미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대만에 관한 문제엔 개입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마오쩌둥(毛泽东)에겐 더욱 대만을 치기 좋은 시기였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이틀 후인 6월 27일 “627”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엔 미국의 공해군 병력은 즉각 한국전쟁에 참여하며, 미 해군 제7함대는 즉각 대만해협으로 진입한다는 내용이였다. 한국전쟁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를 바꿨던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김명호, 『중국인 이야기』, 한길사, 2013.6.7. 참조.

59) <https://news.stanford.edu/2015/05/06/mao-walder-book-050615/>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의 승리가 첫 번째 목표였고 태평양은 2차 우선 순위였다. 인천에서 방향전환을 끝낸 후 합동 참모 총장은 맥아더에게 유럽을 위해 얼마나 빨리 사단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중국의 개입은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고조시켰다. 브래들리 장군은 우리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전쟁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중국 본토로의 전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의 전투 기간 동안 6개의 미국 사단이 유럽으로 보내졌고,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미국 사단이 7개였다. 유럽을 두려워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의 전쟁을 진정시키고 싶어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설적인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는 아시아에서의 승리가 유럽에서 평화를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전쟁을 확장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러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1951년 4월에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큰 소동이 뒤따랐지만, 전쟁이 그러하듯이 곧 대중의 마음속에서 잊혀졌다.

유엔군이 계속 북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서울은 3월에 다시 점령되었다. 4월에 수도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고, 5월에는 동부 중앙에서 그들의 공격이 큰 손실 때문에 5월 대학살로 이어졌다.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을 취했을 때 소련은 회의를 거부하고 있었다. 1951년 6월 소련 대표인 제이콥 말릭은 유엔에 휴전을 제안했다. 러시아 기록 보관소는 북한 주민들과 중국인들이 스탈린에게 평화 회담을 요청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록 보관소

를 조사한 유일한 미국인인 폴리처상 수상자 존 톨랜드는 양국이 스탈린의 행동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다소 불만을 품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수의 사상자를 겪었고, 평화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련은 공산주의 세계에서 체면을 잃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러시아가 감소함에 따라 커졌다. 마오쩌둥(毛泽东)은 세계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얻었다. 영국과 미국 모두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나토(NATO)는 미국 장군의 지휘 아래 현실이 되었다. 서독은 주권국가로, 자체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도요타가 거의 파산할 뻔한 일본에서의 미국의 국방 지출은 일본을 경제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소련은 어디에서나 부족했다. 그들의 유일한 성공은 미·중 화해는 20년 후 닉슨 대통령 시기까지 연기되었다.

12. 휴전선과 전투전선

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휴전선이 정확히 평행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선의 북쪽에 있는 좋은 방어 위치에서 평행선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되돌아 가기를 거부하자 주저했다. 그 후 중국공산군(CCF)/북한인민군(NKPA) 대표

단은 퇴장했다. 유엔은 평화 회담에서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축소된 공격 행동을 재개했다. 힘들고 힘든 싸움에서 미국 2사단, 프랑스 대대 및 일부 한국 군대는 북한인민군(NKPA)을 블러디 리지와 하트 브레이크 리지에서 강제로 몰아냈다. 북한군은 이번 전투가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전투라고 주장했다. 이 압력으로 1951년 11월 27일 공산주의자들은 평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 왔고 협상에서 느리고 느린 진전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포로 교환이었다. 유엔이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죄수들은 공산주의 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15개월 동안의 싸움이 연장되었고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정의”가 단순히 미국의 빈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엔의 공격행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동안, 북한인민군(NKPA)/중국공산군(CCF)은 정상적인 활동 중에 기동력이 떨어지는 군대에 대해 재배치하였으며 포병을 키웠다. 그들은 깊이 파인 포를 준비 했는데 일부는 20마일이나 거슬러 올라간다. 정적 전쟁(Static warfare)이 전개되었다. 1951년 11월 이후, 유엔은 평화가 임박했고 획득한 땅은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전면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 펀치볼과 철의 삼각지대에서는 전투가 벌어졌고, ‘올드 볼디’, ‘화이트 호스’, ‘잭슨 하이츠’, ‘티본’, ‘포크 칩’ 같은 이름의

전투고지는 ‘산의 왕(king of the mountain)’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다. 그들은 맹렬한 열기, 악취, 쥐와 벌레, 비, 극심한 추위, 눈과 얼음, 병커에서의 삶과 싸웠다. 그들은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순찰 임무를 수행했다. 제45사단과 제40사단은 일본으로 돌아간 제1기 병사단과 제24사단을 대체했다.

지상군이 높이 평가한 것은 U.N. 전투기 폭격기의 긴밀한 지원이었다. 초기에 공군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된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지상군(전술 임무 중 가장 복잡한)에 대한 균일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는 유럽, 하나는 중앙 태평양, 하나는 남태평양이었다. 전술항공통제단(TACP, Tactical Air Control Parties)는 각 보병 연대에 배속되었고, 이 보병 연대는 최전선에서 1,000 야드 이내의 목표물에 자체 포병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병대는 충분한 포병을 구할 수 없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작은 섬의 침공을 기반으로 항공 지원을 포병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소총대대(연대당 3개 대대)에 대한 지휘관을 제공했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전쟁 내내 계속되었다. 북한의 대규모 폭격으로 전쟁 노력이 확실히 방해받았지만, 옹호자들이 주장한 것만큼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전쟁 초기에 유엔 공군은 적은 병력의 북한군을 쉽게 물리쳤다. B-29 공중요새는 북한 전역에 걸쳐 있었지만 1950년 11월까지 중국이 전쟁에 돌입하면서 대부분 야간 작전을

강요받았다. 중국어로 위장한 러시아 조종사들은 만주 공군기지에서 MiG-15 전투기를 비행해 북쪽의 폭격기를 공격했다. 제트 항공기 간의 첫 공중 전투에서 MiGs는 유엔 F-80과 F-84⁶⁰⁾을 능가했다. 그러나 유엔 조종사의 우월성은 러시아 비행기와 일치하는 F-86 Saber가 도착할 때까지 공중에서 우위(優位)를 유지했다. 미그보다 10 대 1의 사살 비율이 더 높았다. 공산군의 공군은 그들의 병력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전투 전선에 근접해 주둔하고 있는 새로운 이동 외과병원(Mobile Army Surgical Hospitals:MASH)은 제2차 세계대전의 50%까지 전투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였다. 헬리콥터는 부상병과 보급병, 수송병을 대피시키는 데 처음 사용되었다.

전쟁 첫 6개월 동안 대부분의 미군 포로들이 붙잡혔는데 그들의 약 50%가 상처, 질병, 노출,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했다. 가혹하고 원시적이고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그들을 공산주의로 개종시키는 프로그램인 “뇌세척”을 받았다. 뒤에 남아 있던 22명(영국인 1명 포함)은 “턴코트(turncoats)”⁶¹⁾에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고, 3,766명의 미국인과 977명의 영국인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뇌세척’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많은 포로들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공산주의자

60) F-80: Shooting Star(유성)/F-84: Thunder Jet(천둥제트)/F-86:Saber(군도) <https://injunech.tistory.com/>

61) 한 의견에서 반대 의견으로 바뀌는 사람.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turncoat>

들은 유엔에서 폭동에 대한 강경파를 선동했다. 그들은 캠프 지휘관을 체포했고 나중에 석방되었지만 매우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인도의 중립군에 의해 진압된 약 22,000명의 공산주의 포로들이 귀환을 거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 2만 5천명을 석방하였다. 1953년 5월과 6월에 북한인민군(NKPA)/중국공산군(CCF)은 평화 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전쟁의 가장 큰 공격 중 일부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된 휴전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이제 경험 많은 지도력과 더 나은 장비, 더 나은 훈련된 인원으로, 한국 부대는 적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었다. 이처럼 크게 개선된 부대는 유엔군의 3분의 2를 점거했다. 이승만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1953년 7월 27일 다른 교전국들이 한 휴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1952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이젠하워(미국 제34대 대통령, Dwight David Eisenhower)는 53년 5월 협상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핵폭탄의 사용과 맥아더가 주창한 이전의 조치들을 암시하는 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무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PBS 뉴스 아워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말했다. 북한이 군사력을 통해 공산국가에 영토를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시도했을 것이다. 한국의 군부 공격이 패배했기 때문에 세계 현장에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다. 침략자들에게는 반격에 맞설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경보가 울

려 퍼졌다. 세계 현장에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적인 껍질을 완전히 벗어 던졌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자유세계의 지도자의 역할을 완전히 받아 들였다. 한국 전쟁 이전에 미국은 서반구 밖에서 단 한 가지 약속만을 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한국, 대만, 일본 등 라틴 아메리카 이외의 20개국과 연계된 36개국에 450개의 군사 기지가 있었다. 북한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널리 간주되는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한국은 경제 기적을 일으킨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다. 1995년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강력한 경제 및 자동차 생산국 중 5번째로 큰 생산국이 되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있는 놀라운 번영을 가져 왔다.



▲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 중국의 평더화이(좌) / 북한의 김일성(중간) / 미국의 클라크(우)⁶²⁾

62) <http://theimpeter.com/34816/>

—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

Ⅳ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지역 — 『그레이비어즈(The Graybeards)』를 중심으로

1. 중공군의 7차 공세(攻勢)⁶³⁾

서구에서 왜 그리고 어째서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는 전쟁원인의 탐구라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탐구에 있어서 2개의 주요 학설이 있다.⁶⁴⁾ 첫 번째로, ‘전통주의학과’들은 공산주의 혁명의 세계적 확대를 막으려하는 미국을 시험할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오쩌둥(毛泽东)과 손을 잡은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주장한다.⁶⁵⁾ 마오쩌둥

63) 大韓民國 國防部 編, 『韓國戰亂 一年誌』, 『韓國戰亂 二年誌』, 『韓國戰亂 三年誌』, 國防部, 1954.

——, 『韓國戰亂 四年誌』, 國防部, 1955.

——, 『韓國戰亂 五年誌』, 國防部, 1956.

홍학지, 『항미원조전쟁회의』, 해방군문예출판사, 19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3권, 2005에서 부분 발췌, 요약함.

(毛泽东)은 스탈린이 제시한 ‘노력분담의 원칙’을 받아들였다. ‘노력 분담의 원칙’이란 소련은 서양에서 혁명을 담당하고 중국은 동양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평양을 돕기 위하여 반드시 개입하여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 학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Richard Walker, 공산주의하의 중국(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Philip E. Moeley, 크렘린과 세계정치(New York: Vintage Books, 1960); A. Doak Barnett, 공산 중국과 아시아(New York: Vintage Books, 1961); Alexander Dallin, 스탈린 이후 소련의 외교정책(Philadelphia: J. B. Lippincott, 1961); Marshall Shulman, 스탈린 외교정책의 재검토(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David Rees, 한국: 제한전쟁(New York: St. Martin's Press, 1964); Harold Hinton, 세계정치에서의 공산 중국(Boston: Houghton & Mifflin Co., 1966).

-
- 64) Rosemary ot, “Making known the unknown war: Policy analysis of the Korean conflict in the last decade”, *Diplomatic History*, Vol. X V, No.3(Summer 1991), 혹은 그녀의 최신판인 “Making known the unknown war: Policy analysis of the Korean conflict since the early 1980s”, in Michael J. Hogan(ed.), *America in the World: The historiography of American reign relations since 1941*(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Kim Hak-joon, “International trends in Korean War studies: A review of the documentary literature” in *Korea and World Affairs*, Summer 1990, and “Interplay among the North Korean leaders, Stalin and Mao in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한국전쟁: 역사적 기록의 평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 65) Tsui, David, 『(한국전쟁)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7-2, 한국전쟁 개입을 위한 준비: 1950년 1월-9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분명하게 전쟁의 원인이 공산권에 있다고 하면서도 ‘전통주의학과에 속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전쟁개시를 주도한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재통일하려고 열망했다. 전쟁이 소련과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탈린은 처음에 김일성의 요청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김일성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재통일 요청을 계속 주장했고, 결국에 스탈린은 마오쩌둥(毛泽东)과의 상의 후에 수락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스탈린의 주도가 아니었다”와 “주도자이기 보다는 조정자 역할의 러시아”⁶⁶⁾라고 주장하는 캐서린 워더스비(Kathryn Weathersby)에 의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된다. 이런 견해들은 또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시작한 전쟁에 부득이 휩쓸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Pollack, Hao와 Zhai, Zhang Shunguang, Chen Jian, Xue Litai, Zhai Qiang 그리고 Christensen은 이런 시각을 공유한다.⁶⁷⁾

66) Kathryn Weatherby, “한국전쟁의 새로운 발견”, CWIHP Bulletin Issue 3(1993년 가을), p.14. Kathryn의 논증을 반박하면서 Adam B. Ulam은 아래와 같이 은유함: “운동 경기 대회에서, 육상경기는 쭈그려 앉아 있는 선수에 의해 시작되지 않는다. 경기는 달리기 시작하는 선수에 의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스탈린이 한 것이다.” 이 표현은 아래 자료에 인용됨, “서문들: 스탈린, 김일성 그리고 한국전쟁의 원인”, CWIHP Bulletin Issue 4 (1994년 가을), p.21 Nikita Khrushchev의 회고록에서는 한국을 침략한다는 아이디어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스탈린이 아니라 김일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소련의 공문서 개방과 함께 Khrushchev의 주장은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진실에 가깝게 되었다. Nikita Khrushchev, Khrushchev의 기억, 번역. Strobe Talbott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1970);과 “한국전쟁에 관한 진실: 회고록”, Far Eastern Affairs (Moscow), Nom.1 1991을 참조.

67) Chen, 중국의 길, 217~218쪽 참조.

두 번째 주류는 ‘수정주의 학파’들인데,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침공했다거나 혹은 한국을 침공하도록 북한을 유인했었다고⁶⁸⁾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Isidor 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2); David Horwitz가 편집한 'Containment and Revolution'에서 John Gittings, "The origins of China's foreign policy"(Boston: Beacon Press, 1967); Edward Friedman과 Mark Seldon이 편집한 수정주의 에세이에서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New York: Vintage Books, 1971).

수정주의 학파의 새로운 세대는 전쟁의 시발자가 북경, 모스크바, 워싱턴 모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쟁의 원인은 한국 내부의 요인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그 전쟁은 “혁명적 북한”과 “남한의 반응(Reaction)” 사이에서의 내전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침공했는지 남한이 그랬는지 질문하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제2권(Princeton, New Jersey: Princseton University Press, 1981, 1990)은 위에 말했던 경향을 주도한다. 새로운 많은 자료들이

68) Tsui, David, 『앞의 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공개되는 초기단계 이전, 한국전쟁 사료편찬위원인 김학준은 1990년 전통주의학자들의 구세대를 제외한 서구의 학자들에게 유력시되는 견해가 ‘중국이 비록 북한의 전쟁준비를 알고 있었고, 또 북한의 승리를 원했으나 사실상 전쟁의 준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구소련의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이 나오기 이전, 중국의 참전 목적에 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이 “중국영토에 대한 막강한 위협(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원치 않는 반응” 혹은 “모스크바의 전체적 냉전 전략의 부차적 행동”이었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⁶⁹⁾

우선, 새로 공개된 중국의 한국전쟁 관련 부차자료들의 등장은 이러한 주장들을 크게 강화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중국을 마음이 내키지 않는 혹은 마지못한 동반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들 문서들은 중국이 오히려 대만을 공격하려 하였다거나 국내 재건설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구소련 공문서의 공개와 함께, 전쟁의 원인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해석보다 전통주의자들의 해석이 더욱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Weathersby의 “To attack”과 “New Russian documents”(1995, 1996)와 Christensen의 “Useful Adversary”와 같은 가장 최근에 출판된 학술서들은 비록 그들이 본서에서 소개된 새롭게 공개된 중국의 자료들을

69) Chen의 책에서 지적, 중국의 길, 2-3쪽.

다루는 만큼 심도 있게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이 논쟁에 구소련의 가장 가치 있는 공문서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공산권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의 종합적이고 치밀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전통주의 학파의 시각을 지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소극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쟁준비에 참여했고, 따라서 Whiting의 “중국이 한국전쟁의 준비와 계획에 참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⁷⁰⁾는 결론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었다. 두 번째로 Robert R. Simmons가 그의 책에서 그들의 관계를 긴장된 동맹: 북경, 평양, 모스크바, 그리고 한국전쟁의 정치(New York; Free Press, 1975)로 불렀던 것처럼, 1950년 초반기에, 북경과 평양의 관계, 그리고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가 특별히 “긴장되지(strained)” 않았다. 적어도 평양을 지원하라는 모스크바의 지시를 북경이 부득이하게 따르게 만들만큼 긴장되지는 않았다. 세 번째로, 중국은 미국의 위협의 대응 또는 소련의 요구에 대한 부응 등을 제외한 소련의 지원에 대한 중국 해방군의 현대화와 경제적 개선과 같은 그들 스스로의 한국전쟁 개입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뒤의 두 가지 사례에서, 소련요인이 미국요인보다 더 결정적이었고, 소련요인은 우리가 전에 생각해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70) Allen S. Whiting, 『중국이 압록을 건너다: 한국 전쟁에 참전으로의 결정(China crosses)』, 뉴욕: The Macmillan Company, 1960, 24쪽.

첫째, 중국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깊숙이 한국전 참전을 준비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지도부는 한국전쟁 발발 6개월 전에 7개의 야전 사단에 대하여 중국 동북지방 압록강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참전 2개월 전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전쟁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었다. 둘째, 중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출병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설정하고 있었다. (1) 출병부대에 대한 중국의 전적인 통제 (2) 외국군의 한반도 개입 혹은 38선 북진 (3) 소련의 군사적인 지원 등이 그것이었다. 셋째, 전쟁의 전개과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국은 미국이 미 지상군보다는 일본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오판하였다. 반면 미국이 한반도를 거쳐 중국 본토까지는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판단하였다. 중국은 미군의 38선 북진을 막기 위한 경고성의 외교적 노력을 실제로 몇 번 실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38선 돌파 및 그에 이은 북한 쪽으로의 깊숙한 진출을 오히려 유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의 외교적인 경고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에 상징성을 띠는 군대의 파견을 사전에 실시하지는 않았다. 넷째, 중국은 참전과정에서 24가지의 목표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을 구제 ②스탈린의 의심 제거 ③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전 참전 경험 ④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촉진 ⑤중국 경제제건의 활성화 ⑥대만 해방에 필요한 중국의 역량강화 ⑦유엔 가입 ⑧남한영토와(대만으로부터의) 미군 철수의 맞교환 ⑨대만 내 국민당 세력에 대한(본

토로의) 유인 ⑩미국의 보복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의 제거 ⑪남북한을 전쟁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결국 중국은 한반도를 지배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소련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종속(이는 1949년 이전까지 중국이 소련의 전반적인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로부터 연유한다.)이 한국전 참전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오쩌둥(毛泽东)이 그 스스로 지키려 했던 그리고 그 혼자만이 관여할 수 있었던 중국의 전쟁 개입의 주된 목적은 마오쩌둥(毛泽东)이 스탈린에게 두 개의 역사적인 빛을 갚으려 한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간단히 말하면, 처음에는 1921년에서 1949년 사이 스탈린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인 지원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외몽고 경계에서 소련군의 지원으로 재무장 한 후, 1941년과 1942년 사이에 중국 북부와 동북 중국의 남부에서 소련의 극동지역을 위협하는 일본군에 대항하여 군대를 급파하라는 스탈린의 거듭되는 요구에 마오쩌둥(毛泽东)이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처럼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마오쩌둥(毛泽东)은 스탈린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냉대 받고, 심지어는 소인배로 여겨졌다. 이러한 경험에서 확실히, 마오쩌둥(毛泽东)은 마음속에 2가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본다. ①소련의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면,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잡고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며, 자기 방어와 국가 재건설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

을 것이다. ②소련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적극적 협력과 기여 없이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⁷¹⁾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논리는 너무 강력해서 마오쩌둥(毛泽东)으로서는 한반도에 중국 군대를 보내라는 스탈린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르게 말하면, 스탈린은 실질적으로 힘을 장악하고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마오쩌둥(毛泽东)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했다. 스탈린의 명령을 따른다면 마오쩌둥(毛泽东)은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생존과 번영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고,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마오쩌둥(毛泽东)은 냉대 받고, 처벌 받거나 혹은 스탈린에게 버려질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감소, 혹은 심지어 소멸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비대칭적 힘의 관계라고 정확히 정의내리고 있다. Whiting이 말하기를, “중-소 연맹에서 비대칭적인 힘은 스탈린의 정책에 반대하는 중국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⁷²⁾ 하지만 역사적인 두 가지 빛과 스탈린의 요구로 한국전쟁에 가담하기로 한 마오쩌둥(毛泽东)의 결정 사이에서의 이런 추측은 여전히 좀 더 공식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⁷³⁾

71) Tsui, David, 「한국전쟁」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7-2, 한국전쟁 개입을 위한 준비: 1950년 1월-9월, 『전략연구』14-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205쪽.

72) Allen S. Whiting, 『중국이 압록을 건너다: 한국 전쟁에 참전으로의 결정(China crosses)』, (뉴욕: The Macmillan Company, 1960, 51쪽.



▲ 1951년 임진강 전투의 중공군⁷⁴⁾

한국전쟁 중 중공군은 총 7차 공세를 하였다. 한국전쟁은 사실 3년 내내 전투만 벌어진 게 아니고 한반도 지형 상 거의 대부분의 기간은 특정 고지를 장악하기 위한 고지전투였다. 큰 전투는 1951년 1월~6월 단 6개월 내에 다 몰려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대규모 전투는

73) 이 연구는 「중국의 한국전참전: 1949년 5월-1951년 7월」은 David Tsui 박사가 옥스퍼드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저술이다. 이 논문은 최근에 공개된 공산측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정과 배경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나 통설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전략연구」는 이 자료를 차후 몇 차례에 걸쳐 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번 첫 게재는 위 논문의 서문에 해당되며, 저자의 문제의식, 저술에 활용된 자료의 문헌적 고찰, 기존 학설의 분석 및 논문의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avid Tsui, 「(한국전쟁)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 1949년 5월부터 1951년 7월까지」,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11, 159-175쪽.

74) <https://blog.naver.com/pajuhistory/221614612229>

휴전 바로 직전에 아주 좁은 곳에서 거의 100만 명이 붙은 금성전투(Battle of Kampong, 金城戰鬪)였다. 금성전투는 1953년 7월 강원도 김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이것은 뒤에 자세하게 기술하겠다.

중공군 1차 공세(1950년 10월 25일)는 1950년 10월 하순에 이르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머지않아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다. 작전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국군과 유엔군은 추수감사절(11월 23일)까지는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수감사절 공세’를 계획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UN군의 북진을 적유령산맥(狄踰嶺山脈)에 숨어있던 중공군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 공격을 시도했다. 북진하던 UN군은 잠깐 움찔했으나 중공이 시위용으로 보낸 1~2개 사단뿐일 거라 오판하게 된다. 접전이 전개될 무렵 국군의 선봉부대인 제6사단 제7연대는 그 진출로가 중공군의 공격 경로와 엇갈렸던 관계로 26일 압록강변의 초산에 도달했다. 대부분 공격하던 부대들이 중공군의 저항에 부딪쳐 붕괴되거나 그들의 포위망에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붕괴되었고, 미 제1군단의 사정도 비슷했다.

중공군 2차 공세는 중공군의 제1차 공세에 의해 철수한 미 제8군이 청천강(淸川江) 남쪽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11월 7일 경,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중공군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에 따

라 전선은 소강상태가 조성되었다. 중공군의 개입 사실을 인정한 맥아더 원수는 그들의 조직적인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공세를 계획하게 된다. 그는 “이번 작전이 전쟁의 최종공세가 될 것이며, 1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고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 목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11월 24일 ‘크리스마스 공세’를 단행하게 된다.⁷⁵⁾ 그때 중공군은 제13병단이 적 유령산맥 남쪽 일대에서, 제9병단이 장진호 및 개마고원 일대에서 전투대형을 갖추고 국군 및 유엔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엔군이 크리스마스 공세를 시작한 바로 그 다음날인 25일, 그들의 두 번째 공세를 시작했다. 중공군의 제2차공세도 제1차 공세와 같이 유엔군에게 기습적이었다. 유엔군 측에서는 크리스마스 공세를 취할 때까지도 중공군의 병력은 의용군으로 구성된 단지 몇 개 사단에 불과하며, 중국이 주력을 투입해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

75) 그때 맥아더는 10월 15일 태평양 웨이크 섬에서 트루먼과 화담을 갖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한국전쟁은 추수감사절(11월24일)쯤에 끝나고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중공군이 파견한데도 6만 명쯤에 불과하고 그들은 탱크도 대포도 없는 취약한 병력이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금방 전 세계에 전파 되었고 아들을 한국전에 보낸 부모들은 「맥아더는 영웅이다」고 환호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판이었다. 당장 10월 19일 중공군 20만이 압록강을 넘어 만포진에 나타나 산속에 깊이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잇달아 계속 60만의 대병력을 몇 차례나 거듭하여 도합 230만을 투입시켰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엄청난 인हे전술로 전선을 온통 뒤덮었다. 중공군은 각자 총알 8발, 수류탄 3개, 4일분의 식량이 전부일 만큼 원시적인 빈약한 군대였는데도 한밤중 팽가리, 나팔, 피리 소리를 한꺼번에 크게 소리 내어 온산이 뒤흔들려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10월 25일부터 53년 7월 19일까지 제1차부터 7차까지 원시적인 인हे전술로 공격 해왔기 때문이다. 임찬순,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충북일보』, 2019.07.23.

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적 지휘체제를 갖춘 중공군 30개 사단 30만여 명이 투입되어 있었던 것이다.⁷⁶⁾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도처에서 출현한 중공군과 격돌하게 되었다. 중공군은 미 제8군의 우측방으로 주요 공격을 정하여 청천강 이남으로 진출했다. 동부전선에서는 장진호 일대에서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게 된다.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중공군은 엄청난 힘으로 밀어닥쳤다. 군우리(軍隅里)에서 미 제2사단이 괴멸 되었으며, 장진호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포위되어 버리고 만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한 유엔군사령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마치 눈사태를 만난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공세를 중단하고 남쪽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중공군의 전술은 영원을 거쳐 순천, 평양까지 우회하여 연합군의 퇴로를 차단 및 포위 섬멸하여 전쟁을 바로 끝낼 참이었으나 이제 막 참전한 터키군이 덕천에서 중공군을 3일 동안 막아낸다. 이때가 사실 6.25 전쟁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투 중 하나였다.

미군은 한국 전쟁에 참가한 UN군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내렸고, 특

76) 초기 중공군 규모는 30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전쟁 끝날 무렵에는 중공군 145만, 북한군 45만 합쳐서 도합 180만까지 불어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게는 300만까지 보는 견해도 있다.



▲ 한국전쟁당시 터키군⁷⁷⁾

히 이는 미국과 영 연방국가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상군을 파견했던 터키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당수 남겨두었다. 터키군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 다만 여러 아쉬운 점을 미군 지휘관들이 토로하고 있다. 극동군 민군참모였던 코트니 휘트니(Courtney Whitney) 장군은 터키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⁷⁸⁾하고 있다.

“터키군은 자신들의 자동화기류를 언덕이나 산 능선의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경사면에 자동화기를 배치하여 킬존을 형성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높은 지형에 의지하여 원거리에서부터 적을 관측하고 화력을 퍼붓는 것을 터키

77) <http://fun.jjang0u.kr/chalkadak/view?db>

78) Fox, William J, 『History of the Korean War: inter-allied co-operation during combat operations』, Combined Arms Research Library Digital Library, 2012.

군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참호를 팔 때 있어서 중공군 및 북한군의 포격으로부터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은 참호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교전에서 적 보병이 밀어 닦했을 때 과연 터키군 보병들이 제대로 사격이나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깊었던 모양이다. 하도 깊어서 미군 측도 처음에는 포격으로부터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행동으로 인식했다가, 군이 저렇게까지 파서 전투력을 보존해봐야 적 보병이 들이닥치면 참호가 너무 깊어서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보게 된다. 터키군은 정찰을 중요시하기는 했으나, 위력 정찰과 같은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을 선호했다. 즉 정찰 중에 적을 조우하거나 혹은 위력 정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정찰 도중 교전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한다. 이는 터키군이 정찰 도중 교전을 하는 것은 병력을 과도하게 낭비하려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코트니 휘트니 장군은 이러한 터키군의 태도가 그들의 용맹함을 까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는 부연하고 있다. 블랙 시어 엠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장군은 터키군에 대해서, 전투 행동 보다는 일선 지휘관들의 행동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전술 계획을 짤 때는 매우 세심하게 진행했지만, 문제는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사령부에 일절 보고 하지 않고 사전 조정 없이 자주 전술 계획 내지 작전 기획 바뀌버렸다는 점에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자주 터키군 지휘부와 UN군 및 미군 사령부는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터키군 일선 지휘관들이 행동한 것은 파병된 터키군에 고

급 지휘관 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또 대단위 작전을 감독할 만한 역량도 부족해서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군 측 고급 장교가 배속되어서 이들의 작전 계획을 감독해줌으로서 해결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터키군은 당시에 UN군 내에서도 상당히 훈련이 잘되어 있기도 했고, 이스탄불에 미 군사고문관 5명이 상주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책을 반영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장에 파견해달라고 요청까지 해왔던데, 이는 제1여단을 한국에 파병하기 전, 45일간 엄격한 훈련을 해온 결과이며 이 때문에 미국제 장비 숙달 및 포병 훈련만 제대로 더 하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전투 의지나 사기도 높았다고 한다. 물론 터키군 장교들의 경우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신념이랑 위배되는 것은 지시나 조언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 때문에 설득 자체가 안 된다고 어려워했지만 실제 훈련이나 전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않았다고 한다. 사수들은 잘 훈련되어 있고, 켄터키식 조준을 즐겼다고 하는데 워낙에 사격을 잘해서 저 켄터키식 조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터키군은 상당히 괜찮은 평가였던 것 같다.⁷⁹⁾ 춘천MBC에서는 다큐멘터리로 “코레아일라(Kore Ayla)”라는 것을 만들어서 터키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것은 영화로 만들어져 2018년 개봉하였다.

79) Jeffrey Grey, 『The Commonwealth armies and the Korean War : an alliance stud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New York, 1988.



이 3일을 못 버텼으면 연합군 대부분이 전멸할 수도 있는 위기였다. 이 전투로 터키군은 참전하자마자 부대 인원의 절반을 잃었으나 연합군이 후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들였다. 후퇴는 성공했으나 평양에서 방어선을 계획한 연합군은 항공촬영 결과 남하하는 모든 신작로, 대로, 산길, 농로 등에 중공군이 개미떼처럼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심지어 평양 동측으로 또다시 우회하는 중공군 확인하고 “38선으로의 후퇴” 말고는 답이 없다며 전면 철수를 명령하게 된다.

두 차례에 걸친 중공군 3차 공세는 강력했고, 아군의 피해가 누적돼 있었다. 38선까지 후퇴한 아군은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부대를 배치한다. 미 1군단, 25사단과 국군 1사단은 임진강에 배치됐고, 미 9군단



▲ 제2차 공세 : 중공군을 몰아내고 국군의 자신감을 회복시킨 용문산 전투⁸⁰⁾

에 배속된 국군 6사단과 미 24사단은 각기 동두천과 포천에 배치하게 된다. 춘천 일대에는 새로 창설된 국군 3군단, 2·5·8사단이 배치됐고, 9사단이 동해안에 배치됐다. 큰 피해를 보았던 부대는 후방에 배치된다. 미 1해병사단은 마산에, 2사단은 원주에, 기병사단은 의정부에, 3사단은 평택에, 7사단은 대구에 배치되었다. 역시 큰 피해를 본 국군 7사단은 원주에 배치되었다. 문제는 개전 초기 그어진 38선에 있었다. 그냥 일자로 쭉 그은 선이니만큼 각 부대가 맡아야 할 공간이 너무 넓었다. 그때 아군이 바라던 것은 북진 때 김일성이 바라던 것과 같았다. 중공군이 38선은 넘지 않을 거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그 기대는 북진 때 그랬듯 산산이 조각난다. 중공군이 38선을 넘는 순간 예정된 건 방어 가 아닌 후퇴였다. UN군이 38선을 점령하고 재정비를 하는 동안 중

80)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61799

공군도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다. 문제는 차기 공세를 언제 할 것이냐였다. 평덕화이(彭德懷)는 12월 중후반으로 생각했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38선 이북에 UN군이 남아 있을 때였고, 38선을 넘는 공세는 2~3월을 생각하고 있었다.

“조기에 38선을 돌파해 서울을 점령 후, 1~2개월 정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이것을 마오쩌둥(毛澤東)은 거부하였다. 시간을 끌어봤자 UN군에 유리해질 뿐이라는 거였다. 3차 공세, 혹은 정월 공세의 시작은 12월 31일이었다. 이를 위한 사전공작이 시작된다. 북한군 강원팔유격대와 10사단을 중부 전선의 후방으로 침투시킨 것이었다. 기존의 빨치산과 함께 이들의 침투는 성공리에 끝났고, 인제-현리는 물론 홍천까지 침투에 성공한다. 미 공식 전사에서는 이를 “군사적 묘기이며, 북한군 2군단은 걸어 다니는 공수군단”이라고 평했다. 목표는 개전 때와 비슷했다. 서부전선에서는 서울을 점령하고 중부 전선에서 아군을 격파하고 배후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서부전선에서의 공세는 1차 공세부터 계획한 그대로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내려앉는 어둠 속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특유의 피리와 팽과리 소리가 난 뒤에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이 시작됐고, 이어 적들이 나타났다. 엄청난 수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군이 들이닥치면서 전면에 있던 12연대가 뚫리기 시작했다. 동료의 시체를 넘고 넘어 물밀 듯이 전진하는, 전형적인 중공군식 인해전술(人海戰術)이었다. 한국군 1사단과 인접 국군 6사단 사이의 경계인 전투지경선이 먼저 밀렸다. 미군 쪽에서는 12

연대가 나가 있던 곳이다. 15연대를 예비진지에 투입한 뒤 전황을 파악하기에 급급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앞에 나가 있던 부대와는 통신도 끊겼다. 11연대는 그대로 버티고 있었으나 12연대와 15연대는 견잡을 수 없이 밀리고 있었다. 중공군의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 공병대와 통신대 병력까지 투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은 6사단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아예 공격받지 않은 1사단 옆의 미 25사단과 달리 6사단과 같이 있던 미 24사단은 같이 공격받았다. 중공군은 국군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언제나 최소 3배의 적을 상대해야 했다. 거기다 겨울이라서 땅이 굳었고, 강도 얼어서 방어선을 제대로 짤 수도 없는 상태였다. 공세 3일째인 1월 2일, 리지웨이는 직접 의정부로 달려가 국군 6사단과 같이 공격받은 미 24사단의 후퇴를 목격한다. 이어 바로 철수 명령을 내린다. 서울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딱히 서울의 정치적인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군의 전력을 보존하는 것이다.



▲ 중공군 3차 공습 : 인해전술(人海戰術)⁸¹⁾

1월 4일 오후 1시에 마지막 엄호부대가 철수하고 오후 3시에 중앙청에 4개월 만에 또다시 인공기가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1.4 후퇴가 시작된다. 그래도 개전 때보다 미리 서울을 포기해서 많은 사람이 피난갈 수 있었고, 한강이 얼면서 피난도 비교적 쉬웠다. 이때 남쪽으로 피난 간 계 서울시민과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포함해 220만 명이었다고 한다.

중공군 4차 공세는 1950년 2월 11일부터 일주일간의 전투이다. 중서부 전선의 연합군을 섬멸할 목적으로 수십만 중공군 대군이 또다시 남하한다. 이때 중공군의 남하 돌파구는 양평의 “지평리”였다. 여기서 지평리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이 지평리만 접수하면 중공군으로서는 4차 공세마저 성공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공군은 지평리의 후방인 곡수리까지 차단하여 후방지원을 막은 후 약 4개 사단으로 포

81) <https://blog.naver.com/papa3378/110129175617>

위한 다음 야간에 공격명령을 내린다. 미국 2보병사단 23연대 전투단 (Regiment Combat Team, RCT)과 23RCT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가 중국 인민해방군 39군과 3일간 벌인 격전이었다. 중국 4개 사단을 불과 1개 연대와 1개 대대로 전부 다 막아내게 된다. 보급은 이제 막 발명된 “헬리콥터(helicopter)”가 그 위력을 떨치게 되고 보급품 수송과 부상자 후송 등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무려 3일 밤낮 동안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급기야 미군 특공대가 후방의 곡수리를 돌파하여 연합군과 지평리가 다시 연결된다. 이때 참여한 중공군은 그 피해가 너무도 막대하여 이후 전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지금까지 1~4차 공세 중 유일하게 연합군이 승리한 전투가 된다. 이후 서울까지 탈환하게 되었다.



▲ 4차공습: 가평 전투가 끝난 후 치하하는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⁸²⁾

82) <http://cafe.daum.net/yonggo20/ijjB/>

중공군 5차 공세는 4월 22일, 공산군의 5차 공세, 춘계공세, 혹은 4월 공세가 시작된다. UN군 대 공산군의 힘과 힘의 대결이었다. 개전 이후 최고 규모의 충돌이었고, 이것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것이었다. 중공군 33개 사단과 북한군 12개 사단이 참가한 4차 공세가 시작된다. “공격 간에 적들은 남쪽으로 10-50km 격퇴되었고, 중공군 및 북한군의 평균 공격속도는 서부전선에서 1일 6~7km였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공군 및 북한군은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중 우세권과 큰 기동성을 이용, 적은 격멸되는 것을 피해 38선 남쪽의 사전 준비된 방어선으로 후퇴하였다. 따라서 상호 협동조직과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부대의 부분적인 정지는 큰 승리를 쟁취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서울 북방의 사창리에서는 국군 6사단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대참사를 겪었지만, 설마리에서는 영국군이 최대의 혈투를 벌이는 등 연합군의 막강한 화력과 보급능력이 서서히 제 능력을 발휘하여 최종적으로 공세를 전부 다 막아내게 된다. 중공군은 참전 이후 최악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4월 26일, 팡더화이(彭德懷)는 마오쩌둥(毛泽东)에게 공세의 실패를 보고하고 29일까지 조기 종결하였다. 진격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UN군의 후퇴는 패배가 아닌 계획된 철수였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큰 피해가 나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가 공세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차기 공세를 빨리하기 위해 이번 공세를 미리 끝낸 것이다. 이렇게 5차 공세도 연합군 승리로 끝났다.



▲ 1954년 4월 중공군 5차 1단계 공세 막바지에 송추 지역으로 몰려드는 중공군을 향해 폭격을 가하는 미군⁸³⁾

중공군 6차 공세는 중공군 5차 공세(1차 춘계공세)가 좌절되었음에도 마오쩌둥(毛泽东)은 6차 공세(2차 춘계공세)를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5월 첫 주, 미군 정찰기는 중공군 후방에서 4,000대 이상의 차량 이동을 관측하였고, 그 가운데 반 이상이 남으로 향한 것이었다.” 5월 10일, 밴 플리트의 정보 참모 타켄트는 중공군의 서울에 대한 전면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음 날 밴 플리트는 8군의 공격작전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리지웨이에게 9개 중공군 사단과 3~4개 북한군 사단이 72시간에서 96시간 안에 공격해 올 것을 알렸다. 그리고 10개 중공 및 북한군 사단이 주공을 도와서 견제 공격을 할 것도 예상하였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서울이 아닌 적부대 격멸로

83) 백선엽, 『백선엽의 6.25 전쟁 정비록』, 출판 책밭, 2016.7.26.

목표를 바꾼다. UN군의 화력을 잘 쓸 수 없었던 중동부 산악 지대로 전장을 바꾸고 거기 몰려 있는 국군을 격파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목표가 됐던 것은 국군 3군단 3·7·9사단이었다. 이를 위해 3중 포위망을 준비한다. 여기에 좌측의 국군 5사단과 우측의 국군 1군단 소속 수도, 11사단까지 섬멸하는 계획이 준비된다. 이를 위해 평덕화이(彭德懷)는 38개 사단 중 18개를 동원한다. 남은 20개 사단 중 12개 사단은 서부지역에서 UN군을 견제, 나머지 8개 사단은 다시 가평-춘천 방향으로 기동해 서부와 동부를 다시 가를 예정이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국군 6사단이 여기에 다시 맞서야 했다. 5월 12일, 중공군 사단들이 공격을 위해 집결하기 시작한다. 5월 16일, “9개 중공군 사단과 4개 포병 연대는(미군 정찰기에) 탐지되지 않고 화천 저수지 동쪽 인제 가까이에 전개하여 한국군 5·7·9사단에 대한 주공 준비를 마친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얼마 후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6차 공세 하루 만인 5월 17일 밤 강원도 인제군 현리 일대의 3군단이 중공군의 공세에 패퇴하였다. 현리전투(縣里戰鬪)라고 칭해지는 약 9일간의 전투는 사실상 일방적 패주에 가까웠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양측의 피해가 막심한 상태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내심 휴전을 원하고 있었다. 후방지원을 해주던 소련 역시 전쟁을 중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51년 6월 24일,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밀라크가 휴전을 제안한다. 드디어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제 전쟁의 끝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사실 그것은 더욱 처참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협상은 2년을 넘게 질질 끌었고 그사이 양측은 서로 유

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년간보다 더 참혹하고 무의미한 전투에 매달렸기 때문이다.⁸⁴⁾



▲ 현리전투를 준비하는 중공군



▲ 중공군 기계화 사단



▲ 현리전투에서 국군 3군단을 포위전멸시키고 모택동의 깃발을 하사받는 중공군



▲ 현리전투 후 중공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 국군

중공군 7차 공세는 이것은 6차 공세에서 무려 2년이 지난 1953년 5~7월의 전투이다. 그 2년 동안은 처음에 얘기했듯 고지전(高地戰)이 주류였고 전면 영토변화는 별로 없었다. 7차 공세는 사실 휴전협정이

84)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현리전투 - 인민해방군 사진기록」, 『조선닷컴』, 2009.01.10.

이미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의 기 싸움이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북한의 금성지역이다. 사실 6차 공세가 끝났을 당시만 해도 금성지역은 아군의 영토였다. 그런데 7차 공세에서 무려 5개 군단급의 수십만 대군이 금성지역을 포위하여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 금성천 북방 지역의 땅을 북한군에 내주고 말았다. 만약 끝까지 버텼으면 국군 6사단, 8사단은 후방 차단되어 전멸했을 것이다. 사실 이 7차 공세에서 중공군은 금성 돌출부를 공격하여 자기네들 땅으로 만들고 금성천까지 건너 내려와 백석산 적성산 초입까지 공격했다. 놀란 국군이 백석산 적성산에 방어선을 쳐 겨우 막아냈고 다시 금성천 남단까지 공격하여 중공군을 쫓아내 버린다. 연합군은 금성천을 건너 다시 돌출부를 장악하려 했지만, 휴전협정 파기를 우려한 연합군 지휘부의 명령으로 거기서 반격을 멈추는 바람에 결국 그대로 휴전선이 되어버렸다. 백석산 적성상 북쪽에 있는 금성천이 바로 DMZ 한가운데 있다.⁸⁵⁾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1953.

_____,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3권(홍학지, 『항미원조전쟁회의』, 해방군문예출판사, 1991). 200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大韓民國 國防部 編, 『韓國戰亂 一年誌』, 國防部. 1954.

_____, 『韓國戰亂 二年誌』, 國防部. 1954.

_____, 『韓國戰亂 三年誌』, 國防部. 1954.

_____, 『韓國戰亂 四年誌』, 國防部. 1955.

_____, 『韓國戰亂 五年誌』, 國防部. 1956.에서 발췌, 요약 정리하였다.



▲ 중공군 대공세 당시 포병대 모습



▲ 중공군의 7.13공세 준비 모습⁸⁶⁾

▲ 7차공습 : 한국전쟁의 마지막 금성지구 전투

다음은 『The Graybeards』⁸⁷⁾ 속에 있는 강원 관련 기사이다.

전선은 본질에서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남한과 유엔의 통제 하에 재건된 초원과 북한 내에서 평강과 함께 삼각 지대의 남쪽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DMZ 일부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화천 저수지와 인제 시의 북쪽인 철 삼각지대⁸⁸⁾의 남동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고지에는 공산주의자들을 판문점의 평화 협상 테이블로 몰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똑같이 우유부단한

86) 대한민국 훈남훈녀, 『6.25전쟁의 마지막 금성지구 전투, 중공군의 대공세에 맞서다』, 2017.07.21./전쟁기념관 https://www.warmemo.or.kr/newwm/sub06/sub06_01_view.jsp?idx=229

87) 『The Graybeards』, 『June 1994 FEATURES (Contd)』, 1994.6, 6쪽.

88) 철의 삼각지대(鐵의 三角地帶)는 강원도의 평강군, 철원군, 김화군을 잇는 지리상의 삼각지대이다. 중부 전선 장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최적의 방어 지형을 지니고 있어 조선인민군의 대한민국 공격의 본거지 역할을 하였다. 한국 전쟁 당시 남북 간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진 곳으로, 전쟁 후 결국 남북이 이 지역을 양분하였다.

싸움도 벌어졌다. 그 지형은 전쟁 중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펀치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해병대와 제2군단, 제7군단, 그리고 이후, 때때로 40군단과 45군단이 관여했다. 영국 연방 사단과 터키 여단은 보통 미국 연대에서 “4대대”를 구성하는 다른 유엔 대대와 함께 서쪽에 더 많이 주둔했다. 다음은 철의 삼각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毛泽东)도 한국전쟁 참전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것은 본인의 아들을 잃은 것이다. 1950년 11월 25일 정오 무렵, 북한 평안북도 동창군(지금의 삭주군) 대유동. 연합군으로 참전한 미국의 공군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했다. 전날 두 대의 P-61 정찰기가 중공군의 위치를 탐지했고, 다음날 정오에 미국 공군 A-26 폭격기가 4개의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이 폭탄이 중국 국가주석 마오쩌둥(毛泽东)의 맏아들 마오안잉(毛岸英)이 숨어있던 동굴 근처에 떨어졌다. 마오안잉은 그 폭탄이 폭발하면서 숨졌다.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김일성이 수고한다며 내려준 계란을 요리해 먹다가 새어나간 불빛 때문이었다. 그가 결혼을 한지 1년 1개월 되던 날이었다.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그해 10월 25일 중국공산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이래 꼭 한 달 만의 일이다.

89) 김인영, 「마오쩌둥 맏아들, 한국전에서 사망」, 『오피니언뉴스』, 2018.11.25.



▲ 마오안잉과 류송린이 결혼 직후 사진 / 위키미디어(중국판)⁸⁹⁾

2. 철의 삼각지와 크리스마스 회고(回顧)

기병 피프스(Phipps)는 후에 철의 삼각지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는 기갑 부대에서 한국 전쟁 중 IX 군단 본부에 배속되었다. 그는 전투 부서 사이에서 라디오 지프를 타고 돌아다니며 연락을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하여 군단 지역에서 최대한의 효과적인 장갑 병력 사용이 달성되도록 하였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인 오래된 철의 삼각지대로의 여행을 생각한다. 그는 이 지역을 거의 완전한 황폐화와 폐허 중 하나에서 평화로운 농장과 재건된 마을이 있는 현대 시골로 변화시킨 놀라운 변화에 경탄하였다.



핍스(Phipps)는 이렇게 말한다. “사십 년 전에 상황이 변했다. 소, 꿀 카트, 악취가 없어졌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뢰 때문에 걸거나 운전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시골은 매우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민간인과 한국군의 행동에서 볼 수 있다. 오늘 밤은 그럴지도 몰라. 1마일 떨어진 곳에는 100만 명의 세계 4위 상비군이 있으며, 일본 내 서울, 부산,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항공기와 미사일이 있다.” 북한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염두에 둔 이기적 사람에 의해 철권으로 통치되고 있다. 아들과 후계자는 더 심하다.⁹⁰⁾ 핍스(Phipps)는 40여 년이 흐른 후 철의 삼각지를 다시 방문하였다. 그는 평화로운 농장을 바라보며 큰 안도를 느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이 재건된 마을이 있는 현대 시골로 변화시킨 놀라운 변화에 경탄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핍스(Phipps)는 북한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공포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90) 『The Graybeards』, 「위의 책」, 1994.6, 6쪽.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1870년에 연방 공휴일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크리스마스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과 공공 기관들이 문을 닫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휴일을 즐긴다. 많은 지역에서는 그 전날부터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전통의 의미 이외에도 전혀 종교가 없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다채로운 풍습들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전통들은 미국의 전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실제로 이들 상점들은 11월 하순에 있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하여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선물을 사려는 쇼핑객들로 넘쳐 난다. 그 때문에 신앙심이 두터운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의 거룩한 의미가 사라지고 그 대신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쇼핑하는 것은 이제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12월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아이들,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나 그들을 위하여 일해 준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준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쿠키를 굽거나 사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여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 많은 회사들에서는 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

하는 의미에서 선물이나 현금으로 보너스를 준다. 크리스마스는 또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자신들보다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은 병원이나 고아원에 성금을 보내기도 하고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단체에 성금을 보낸다.⁹¹⁾ 이런 전통을 갖고 있었던 미국도 전쟁 중이라도 크리스마스는 큰 축제이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나타낸 글⁹²⁾이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이전에 일본에서 구입한 후, 작전용 물자가 디비전으로부터 도착했다. 춘천의 서북쪽 학교인 신동에서 파티가 열릴 수 있는 물량도 충분했는데, 그것은 우리 포스트에 있는 다른 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채플랭은 우리가 그의 예배당인 2중 5중주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관하게 하고, 나중에 그것들을 배포할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기로 했다. 그날 밤 여섯 여덟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예배당으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큰 상자와 작은 상자들 무더기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분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통로의 한쪽에 있는 벤치에 종이 자루들을 길게 늘어놓고 다른 쪽에는 모든 물자를 쉽게 끌 수 있도록 원래 상자들을 펼쳐 놓았다. 그들이 벤치에 서 있을 때, 각각의 자루에는 초콜릿과 작은 장난감 경주용 자동차, 작은 빨간 고무공, 6-10개의 다색의 풍선, 서너 개의 밝은 색상의 색채와 책, 크레용 상자, 치약 칫솔과 튜브, 그리고 두 개의

91) 크리스마스(미국의 공휴일), 2004,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홈페이지 (<https://namu.wiki/w>)

92) 『The Graybeards』, 『The Christmas Party』, 1995.12, 36~38쪽.

작은 소박한 스타일의 공책과 두 개의 빨강과 빨간 고무가 있었다. 누군가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각 봉지 그룹을 대충 검사한 후, 그것들은 꼭대기에서 닫힌 채로 굴러졌고, 그것들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큰 상자에 저장하였다. 이 작전은 새벽 한 시 가까이 1,400여 개의 봉지가 준비되고 우리의 물자가 고갈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 패키지 외에도, 학교들에게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 분필 15상자, 공기 펌프가 달린 축구공 3개, 유니폼 축구팀들을 위한 파란색과 하얀색 모자 2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붓을 포함한 수채화 물감 용품 박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예배당의 잔해와 희미한 불빛에서 어둡고 추운 밤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텐트로 돌아와서 비록 지쳤지만, 우리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침낭으로 들어갔다. 약간 흥분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크리스마스 경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 경험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티 당일에 우리 열두 명 정도가 약속한 시간에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2, 1/2톤과 3/4톤 트럭 두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트럭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엄청난 선물 더미가 실려 있었다. 햇볕이 잘 드는 오후였고 그렇게 추운 오후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트럭들이 주류지대로부터 방향을 틀고 구르는 산기슭으로 되돌아가는 저벽저벽 투구를 시작할 때 의기양양했다. 우리가 작은 마을로 들어오자 우리는 놀라운 광경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교실과 학교 교실을 다시 보았다. 거기에는 길고 간지러운 줄들로 뭉쳐진 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반 그룹, 소년들의 줄, 그리고 소녀들의 줄, 길 가장 가까운 작은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트럭들이 마당으로 변해 멈춰 서자 기대했던 젊은이들의 모임 사이로 흥분의 물결이 물결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거나 대열을 꺾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더 나은 시야를 얻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서로를 조

금 밀어주기는 했지만 완벽한 규율 속에서 행동했다.

이 선생은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들에게 인사를 한 후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미 모였으므로 의식을 더 늦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나의 개별 부대와 45사단을 대표하여 그 경우에 맞는 작은 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이씨와 나는 집회 앞에 놓인 작은 단상에 올랐다. 나는 내 최고의 영어 실력이 한국 작은 영어실력자들의 귀에 혼란스러울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 구절들을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발음했다. 그러나 이 선생은 나의 말을 번역하는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45사단 병력이 한국에서 복무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모든 인류의 형제애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얼마나 작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준 나의 크리스마스 인사말을 되풀이했다. 그때 얼굴 바다로부터 플랫폼으로 뛰어 올라 우리 앞에 선 어린 소년을 한 발짝 내디뎠다. 그는 한껏 몸을 일으켰고, 엄청난 공기의 숨을 들이쉬고 나서 폐에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채 길고 아름다운 웅변을 내게 전달해 주었다. 나는 비록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멋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말이 신속하고 힘 있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입의 위쪽 줄기를 따라 한 치의 이익도 갖지 못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이점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쏠렸다. 이 선생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학교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 후,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선생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학교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을 한 후,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 힘껏 흔들었다. 어린 소

년의 윗입술이 크고 넓은 미소에 이빨이 없는 잇몸을 뒤로 젖히고, 두 눈은 자부심과 행복에 찬 빛을 발했다. 내 앞에 펼쳐진 얼굴들의 바다도 춤을 추고 단발하며 미국 장교에 의해 그들의 대표자의 손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빛났지만, 나는 이러한 필요한 예선이 완성되면서 적재된 트럭들이 은닉 속에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들고 있는가에 대한 경이로움과 긴장과 행복한 기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자루 배급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작은 것들이 먼저 왔는데, 길고 뒤틀린 선을 형성하고, 나이대별로 커다란 2 1/2톤 트럭의 뒤쪽을 지나쳐 서류 작업을 했다. 그곳에서 병사들은 아이들에게 한 자루를 건네주었다. 저마다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니 짜릿한 광경이었다. 모두 허리춤에서 긴 활을 한 번 만들어준 다음 감사한 수용의 상징으로 그 가방을 그들 앞에 오므린 두 손에 놓도록 했다. 몇몇 어린 소녀들은 너무 수줍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웃으며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나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한국어로 “고마워”라는 뜻의 “코맷 섬니다”라고 말했다. 몇몇 어린 소년들은 동료들과 함께 가방을 여는 데 참가하기 위해 도망치기 전에 군대식 경례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온 마당은 곧 공들을 튕기고 풍선을 터뜨리는 엄청난 혼란이 되었다. 행복하고 놀란 얼굴에서 풍선이 튀어나올 때마다 기쁨에 넘치고 통제되지 않는 웃음소리가 사방에 가득했다.

줄이 저절로 끊어진 후에도 여전히 여덟 명 내지 열 명의 작은 폭군들이 학교 건물에 기대어 혼자 서 있었다. 그들은 항상 거기 서서 희망에 차서 참을성 있게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고, 명백히 우리의 계획에 따라 그들은 참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우리 식량을 재빨리 조사해서 그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선생과 한두 명의 병사들과 함께 상황을 의논하면서

그들의 작은 눈빛이 모두 내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완전히 추위에 떨게 할 나의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리하여 상황극에 대한 경의를 적절히 주저한 후에 나는 그들에게 선물을 위해 트럭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내 마음은 극진히 따뜻해져서, 내 눈꼬리를 적시는 은밀한 기쁨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나를 위해 복제될 수 없다고 믿었던 것과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 내가 붙들렸기 때문이다. 백(Beek)씨와 그의 직원들 손에 축구공과 다른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 나서 우리는 쇼가 열릴 방으로 안내되었다. 우리는 일반 교실의 대략 두 배 크기의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은 쇼데이였고 모든 칸막이가 제거되었고, 방의 한쪽 끝에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 단계는 아마 20피트 정사각형, 10피트 높이의 정사각형 안에 형성되었다. 철사에 매달린 두 장의 GI 담요가 커튼 역할을 했다. 우리는 무대로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같은 종류의 의자에 함께 앉아 있었다. 우리의 열원은 우리 자신의 특별한 사용을 위해 테이블 아래에 놓여졌다. 그것은 물론 5갤런 짜리 커피 캔들 중 또 하나였는데, 바닥에는 뜨거운 석탄이 발강게 빛나고 있었다. 곧 우리 뒤에 있는 방은 쇼가 시작되기를 우리와 함께 기다리는 열성적인 작은 얼굴들로 가득 찼다. 때가 되자 올리브 드랍 커튼이 약간 갈라지고 개막식에서 반응을 전한 바로 그 어린 소년이 발을 내딛었다. 두 손을 뻗뻗하게 옆구리에 대고 작은 가슴을 부풀린 채 우뚝 선 채 그는 다시 아름답고 정욕적인 환영의 웅변을 내놓았다. 우리는 그에게 작은 박수를 보냈는데, 관중석에 앉은 한국인들이 박수를 전혀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후의 모든 작은 행동들을 위해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고, 게다가 초연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실수를 범한 후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와 비슷한 태도로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작은 웅변가가 다시 매우 낮게 절을 하고 커튼 뒤에서 물러난 후, Mr. 이소연은 방송 내내 아나운서와 통역 역할을 병행했다. 첫 번째 연극은 남녀 모두의 집단 합창이었다. 이씨의 발표가 끝나자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었는데, 그것은 커튼 뒤에 서 있는 두 커튼 감시기의 신호였다. 그들은 서로 뒤쪽으로 흐르는 GI. 담요를 끌고 갈 때, 지저분한 프로세늄의 각각의 날개를 향해 경주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 전교생 남녀노소 30여 명의 합창 소리가 작은 무대를 완전히 메웠다. 그들이 노래한 오래된 휴대용 페달 오르간과 함께 “Silent Night”를 영어로 보고하는 것은 슬프다. 우리는 그들이 사실 영어 단어를 부르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논쟁을 했다. 또한 ‘My Darling Clementine’은 한국어로도 불렀고, ‘아리랑’을 포함한 여러 한국 민요들도 관객들 사이에서 쉽게 애용되었다. 이 모든 노래들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음악과 노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반영하면서 높고 활기차고 절제되지 않은 목소리로 표현되었다. 합창단이 그들의 노래를 마치자 휘파람이 울리고 커튼이 다시 닫혔고, 우리가 작은 미소 짓는 가수들과 열쌍의 손을 위해 박수를 쳤을 때, 그 일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어린이들의 춤인 아마도 20개 이상의 매혹적인 춤이 이어졌다. 극소수의 연주자들 중 몇몇은 기술과 강렬한 느낌으로 매우 복잡하고 정확한 기술을 실행했다. 봄꽃과 토끼, 바다로 떠나는 선원 등을 묘사한 춤이 펼쳐졌다. 한 춤에서 한 젊은 농부는 신부를 위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려고 한다. 두 어린 소녀들은 무릎 위에 가볍게 그리고 움직임 없이 손을 얹고 무대에 꽃꽂이 무릎을 꿇는다. 그들은 길고 밝고 붉은 치마를 입고 반짝이는 노란 블라우스를 입고 있으며, 긴 검은 리본을 정강 아래 활로 묶고 있다. 그들의 길고 곧은 검은 앞머리는 희망과 복종 속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얼굴을 가린다. 그 작은 농부는 게이와 미결로 그들 주위를 휘휘 돌면서, 크고 불룩하고 하얀 면바지를 입었는데, 이 바지는 그의 허리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한 줄에 쓸어내린 후, 그의 발목에 단단히 당겨져 있다. 그는 또한 앞쪽에 단추가 딱 채워진 작고 검은 조끼를 입고 있다. 그가 춤을 추는 동안 그는 그의 손에서 들고 도는 커다란 빨간 양귀비 한 마리를 끈으로 허리에 매달았다. 오르간이 간단하고 행복한 곡조를 연주하고, 아이들은 흥겨운 검은 눈과 웃는 얼굴로 춤을 추자, 겨울 태양은 낮고 죽어가는 금빛 광선을 패치워크 창문으로 들여보내 춤의 작은 핀프릭이 있는 이 미니머저 스테이지의 형태와 형상을 여기저기 관통하게 했다. 그것의 빛은 다투화의 인물들의 빨강과 노란색을 모두 불태우고 그 거대한 붉은 양귀비를 휘몰아치는 최면 미로로 바꾸어 놓았다. 아름답고 멋진 꿈 - 크리스마스의 환상에 빠진 아이들을 꿈꾼다.

이틀 후 크리스마스 오후에 이씨와 그의 작은 공연자들은 우리 자리로 옮겨졌고, 그들은 우리 극장에서 모든 남성들을 위해 같은 쇼를 선보였다. 나에게 이 두 번째 공연은 첫 번째 공연만큼이나 매혹적이었고, 군인들의 환호는 그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이 어린 한국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사랑의 정신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연예인들은 부엌에 잡혀간 후에야 떠날 수 있었다. 그들은 육군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남은 모든 엑스트라들의 샘플인 사탕, 쿠키, 칠면조 샌드위치, 핫초콜릿이 놓여 있는 식당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처음에는 소심하게, 다음에는 진심으로, 그리고 먹고 나서 크고 자발적이며 행복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노래했다. 그 자리에서 일하던 한국 민간인들 중 일부가 와서 이 아이들을 일행에 합류시켰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노인들의 눈과 목소리는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반복해서 배신했다.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트럭 뒤에 탔다. 그들은 그날 오후

그들의 마을로 다시 이송되었다. 정문을 나와 큰길 위로 지나가자 어두워지는 하늘에서 눈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우리의 유일한 상업주의 기념비인 붉은색과 흰색의 파피에르 마체 산타가 히죽히죽 웃으며 팔을 치켜든 채 다가오는 산과 떠다니는 춤추는 눈송이를 배경으로 그의 전통적인 환호를 퍼뜨리며 서 있었다.

트럭이 너무 붐벼서 몇몇 작은 트럭들은 서 있어야만 했다. 내가 무릎 위에 안고 있던 한 소년. 그는 매우 작았고 G.1 담요로 만든 거친 갈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작은 검은 모자의 안경이 위로 올려져 있었고 빨간 천 조각으로 “OK”라는 글자가 그 위에 꿰어져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요하고 조용하게 앉아 있었고 나는 그것이 그가 나를 두려워해서가 아니기를 바랐다.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말을 걸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토록 어두웠던 그의 작은 세상에서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좁은 길옆에 바짝 붙어 있는 작은 집단을 지나자, 또 다른 작은 소년이 갑자기 뛰어나와 우리의 튕기는 트럭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달리면서 공공 언덕은 바퀴자국을 뛰어올랐고, 모든 근육을 긴장시켰으며,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얼굴에 힘을 쓴 고통의 표정을 지었다. “얘야,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이길 수 없는 경주를 하고 있다. 심장이 터질 때까지 우릴 쫓아다닐 거야? 인생은 지나간 것 같고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승패는 같은 대가, 즉 상금의 양도, 즉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93)

맨 처음 위의 두 사진은 「The Christmas Party」 속의 사진이다. 전체 내용은 크리스마스 파티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전반적인 파티준비를 비롯해 그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93) 속초시립박물관은 최근 직원을 리처드 록웰씨가 사는 워싱턴 주 우던빌에 보내 해당 필름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필름에는 리처드 록웰씨가 근무했던 속초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모습을 비롯해 설악산과 신흥사 풍경, 양양과 고성지역 7번 국도 주변 모습, 설악권 일대 항구와 어촌모습 등이 담겨 있다. 속초시는 기증받은 필름이 1950년대 속초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 디지털 작업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기존에 확보한 사진 자료들과 함께 특별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속초시립박물관은 1950년 초반에서 1960년대 초반 속초에서 생활한 미군이나 미국인들이 촬영한 속초와 설악권 일대 사진 500여점을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리처드 록웰씨가 기증한 슬라이드 필름까지 합치면 속초시립박물관이 소장한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 속초 모습 사진은 800여점으로 늘어나게 됐다. 속초시립박물관 관계자는 “기증자의 뜻을 살리고 지속적인 기증 유도를 도모하기 위한 도록 발간과 함께 공개 전시회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50년대 ‘양양군 속초리’ 풍경…미국인 촬영 필름 기증, 『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2019.3.19.

아래 두 사진은 앞서 언급했듯이 리처드 록웰(Richard B. Rockwell) 기증사진 1953-1954년 속초시립박물관⁹⁴⁾에서 가져온 사진이다. 리처드 록웰씨의 사진집에 큰 비중으로 크리스마스 사진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단지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이프지에 표지를 장식했던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David Douglas Duncan) 사진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때는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 같이 매섭게 추운 아침이었다. 그야말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감사 그 자체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녁이면 그 밤이 셀 때까지 견딜 수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인생이 짧게도 또는 영원같이도 느껴지는 세계이다. 여기에서 해병대원에게 ‘크리스마스 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내일을 달라’라고⁹⁵⁾ 대답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군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선 자료는 단지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고, 다음 자료는 크리스마스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들은 양면성을 드러낸 것으로 즐거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을 보여준다.

94) 2019년 『1953-1954년 속초』는 특별시 속초시립박물관 학예팀장이신 정종철 선생님과 담당 학예사 김만중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95) 장진호-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w/%EC%9E%A5%EC%A7%84%ED%98%B8%20%EC%A0%84%ED%88%AC>)



▲ 1950년 한국 장진호 전투에서 퇴각하는 동안 미국 해병대의 한 칼럼이 '나이트메어 골목'이라고 불리는 협곡길을 따라 행진한다고 쓰고 있다.⁹⁶⁾

3. 소양강 전투와 5월 대학살

아래 사진은 전진하는 유엔군을 환영하는 춘천 시민의 사진이다. 지프에서 1기병 연대 본부 1·5기병 연대로 확인했다. 1951년 3월 7일, 춘천이 약 8시간의 연속 공격으로 잠잠해졌으며 미 공군, 해군, 해병대의 공격이 있었다. 공격의 하이라이트는 B-29 12발이 발사하는 폭탄은 500파운드의 폭탄이었다. 태극기를 들고 유엔군을 환영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⁹⁷⁾

96) 홍국기, 「PBS, '장진호 전투' 다큐멘터리 美 전역에 방송」, 『연합뉴스』, 2016,11,01.

97) 아래 사진은 『The Graybeards』, 「BATTLE OF THE SOYANG RIVER OR THE MAY MASSACRE」, 2000,1/2, 20쪽.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공세로 소양강 지역을 방어하던 31연대가 철수하자 미군과 한국군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아 적을 저지하기 위해 후퇴하는 중대급 한국군 병력을 집결 시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작전을 수행했다. 같은 해 5월 중공군의 2차 춘계공세가 이어지자 구만산·탑골 전투와 금병산 전투에서 직접 부대를 진두지휘하며 사기가 떨어진 부대원들을 독려해 승리로 이끌었고, 유엔군 부대 중 가장 빠르게 진격해 제일 먼저 캔자스 선에 도달했다. 캔자스선이란 1951년 서울 탈환 후 38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임진강-연천-화천저수지-양구-양양을 연결한 유엔군의 방어선을 말한다.⁹⁸⁾ 소양강 전투는 1951년 4월~5월 봄 공세 기간 동안 유엔 사령부(UN)와 중국인민자원군(PVA)과 한국 인민군(KPA) 사이의 한국 전쟁에서 벌어졌다. 주된 노력의 목표는 남미 8군의 나머지로부터 동부 전선에 있는 6개의 한국군(ROK) 사단을 분리하여 미군 제2보병 사단을 과멸시키는

98) 「육군7사단에 ‘김영옥 대령 표지석」, 국방일보, 2019.12.18.

것이였다. 2차 공격은 중국인민자원군(PVA)과 KPA 세력에 의해 전면 전선에 설치되였다.

다음은 『The Graybeards』⁹⁹⁾에 수록된 당시의 상황이다.

지난 6주 동안 중국군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곧 그들은 2사단 바로 앞에서 집단으로 발견되였다. 우리에게 ‘마을 대학살’로 더 잘 알려진 ‘소양강 전투’였다. 우리는 2대대가 한 달 이상 전방에 있었고 5월 초 우리는 철수하여 사단 예비군의 일부가 되었다. 5월 중순쯤에는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 이 무렵 우리는 연대로 돌아왔다. 5월 16일, 제2대대는 다시 사단의 앞쪽으로 나갔다. 제3대대는 우리 뒤쪽으로 약 1,50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 앞에는 12개 사단이 있었다. 중국군은 미군을 우회하여 3대대를 먼저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찾았고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16일 밤, 나는 어느 중대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인들¹⁰⁰⁾은 하늘을 비추는 불꽃

99) 『The Graybeards』, 「BATTLE OF THE SOYANG RIVER OR THE MAY MASSACRE」, 2000,1/2, 63쪽.

100) 원문에는 the Gooks라고 나오는데 특히 한국전쟁을 통하여, 한국에 온 미군들은 유별날 정도로 ‘국’이라는 한국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미국, 한국, 중국 영국부터 시작하여 심지어는 중국, 조국, 민국 등의 국자 돌림이 많아 우리를 국이라고 부르기도 남았을 것이라는 추측된다. 아마도 김(Kim)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였을 것이다. 하지만, ‘국’이라는 단어는 동양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란 증거도 충분하다. 1960년도에 발행된 미국의 속어(俗語) 사전(Dictionary of American Slang)에 따르면, ‘gook’이란 태평양지역의 섬, 아프리카, 일본, 중국, 한국 혹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살고 있는 통상적으로 갈색의 피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 혹은 비기독교적인 동양인을 총칭(總稱)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비기독교적’이라는 표현에 주목

이 일광처럼 타오르고, 휘파람이 불고, 나팔이 불고, 내가 언덕을 내려다 보았을 때, 나는 신에게 맹세컨대, 당신이 볼 수 있는 한, 그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땅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남북전쟁 당시의 전투를 생각나게 했다. 어깨와 어깨로, 줄지어 서서 걷던 그 전투가 생각났다. 나와 내 무전기 담당관과 함께 다른 관측장교(FO)가 있었는데 포병 관측장교(FO)와 공군 관측장교(FO)가 있었다. 물론 어두웠지만 공군 관측장교(FO)는 포병 관측장교(FO)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불을 질렀고 그들이 발사할 수 있는 한 빨리 총알이 들어왔고, 그것은 조금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았다. 난 아직도 그들이 모두 약에 취했다고 믿어. 그날 밤은 기나긴 밤이었다. 우리는 제2사단 전체가 우리 뒤에서 쿵광거리고 있어서 갈 곳이 없었다. 실제로 그들이 멈추는 방법은 살해되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철조망 위에 너무 높게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꼭대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5월 18일, 우리는 우리가 사용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 공기가 떨어지는 음식과 탄약을 받았다. 5월 18일 밤 우리는 도주 중이었고 Uncas Bill Hardin은 살해되었다. 빌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친구였다. 사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부상을 입었고 중국군에 의해 살해당했다.¹⁰¹⁾ 빌은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다. 우리가 뛰어넘어 아주 어두워진 이른 아침이었다. 나는 소대와 함

해야 한다. 불교도나 이교도라면 ‘국’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1951년 6.25전쟁 와중에 상영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철모(The Steel Helmet)’라는 영화에서는 불심(佛心)강한 한국인 소년을 주인공 및 소재로 다루며 비교적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ook’이란 표현이 어김없이 사용된다. 최성환, 『용의 전쟁』, 엔길, 2019.

- 101)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공인을 비하하는 the Chinks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번역을 할 때는 중공(국)이라고 하겠다.

께 있었고 관측장교(FO)가 아니었다. 나는 내 여우굴(땅에 깊고 좁은 굴을 파 놓은 것)에 있었고, 모든 총성을 들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여우굴에 남아 수류탄에 핀을 당겼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수류탄을 내 여우굴 밖의 땅에 놓힐 작정이었다. 대신 그들은 미친 듯이 소대를 뚫고 지나갔다.

나는 손에 살아있는 수류탄을 들고 핀도 없이,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중국인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소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던질 수 없었다. 나는 구멍 밑바닥에 핀을 찾으려고 했지만 운이 없었다. 당시 우리 소대장은 셔먼 엔들리 중위였다. 덩치 큰 남자에 배짱이 있는 사람이다. 날이 밝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이 무렵 적진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중 8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엔들리 중위는 한 길로 가고 싶어 했고, 우리들 중 많은 수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내가 수류탄을 던지게 놔두지 않아서 나는 계속 들고 다녔다. 어쨌든 엔들리 중위는 그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와 함께 가게하고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가게 했다. 셸스타드, 도살자, 포스터, 나,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이 끝을 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아마도 다음 산등성이 바로 너머에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모두 떠나서 중대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했다.

우리가 탄 길은 언덕 바로 위였고, 우리가 이 수류탄을 앞뒤로 지나는 내내 그랬다.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아래로!”라고 외쳤고, 당연히 우리는 모두 흠에 부딪혔다. 나는 고개를 들고 산등성을 걷고 있었다. 아마 150여 명 정도 될 중국 부대였다. 그들은 100야드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다. 마침내 언덕을 올라가

서 꼭대기에 올라선 우리는 중국군 낙오자를 향해 곧장 걸어 들어갔다. 그는 우리만큼이나 겁에 질려 있었다. 그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정말 웃겼다. 그의 눈은 접시처럼 컸고, 나는 우리 눈도 마찬가지로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를 보았고, 우리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기를 어깨에서 떼려고 했다가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를 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중대를 우리에게 쓰러 뜨리고 싶지 않았다.

영원처럼 보였지만, 그가 몸을 돌려 부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불과 몇 초 전인 것 같다. 우리는 언덕 반대편으로 계속 내려갔다. 그 후로도 중대와 계속 연락을 취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 1킬로미터쯤 더 우리 선을 향해 여행을 했고, 우리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마침내 수류탄을 던졌고, 그 멍청한 것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선으로 걸어 들어가 군대 CP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군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에게 중국 중대가 그를 위해 바로 산등성이 선을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감사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옷을 찾기 위해 가는 중이었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앤들리 중위와 마주쳤을 때, 그는 우리가 모든 박격포를 잃었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화를 냈다(우리는 보통 박격포의 튜브에 수류탄을 떨어뜨리곤 했지만, 이 경우 우리는 발견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탱크를 조종하고 우리가 그들을 뒤쫓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내가 선택을 했다면 나는 그 결정에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탱크에 올라타서 예전 위치로 향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멍청이들은 우리가 아마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높은 지대에 있었다. 우리가 옛 자리에 도착했을 때 셸스타드는 그의 분대를 데리고 반대편으로 달려가 탱크와 함께 기다렸다. 칙크스가 문을 열었을 때 나

는 여전히 탱크 근처에 있었지만, 그 아기들이 많은 불을 끄기 때문에 탱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는 탱크 옆의 도랑으로 뛰어들어 그곳에서 다시 불을 질렀다. 나는 탱크가 그의 모터를 부풀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도청할 것을 알았다. 그는 미친 듯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고, 나는 그 수로에 누워 있었다. 우리 대원들 중 몇 명이 이미 탱크에 타고 있었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옆으로 매달려 옆으로 달려갔다. 셸스타드와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걸어 나가야 했다. 19일에 우리는 사단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나는 내가 또 다른 날을 볼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다. 제2대대와 실제로 38연대는 이 전투에서 거의 전멸되었고 19일 오후에는 "CORP" 보존을 명령 받고 동쪽으로 사단의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곧 제2대대는 기동대 요크의 일부가 되었다. 태스크 포스 요크는 공격하고 부서에 반격을 공식화할 시간을 주어야 했으며, 며칠 후 태스크 포스 요크는 해산되었습니다. 이번 5월 대학살 동안 제2사단은 6만 5,000명의 중국인과 북한 군인들을 살해했다.

다음은 피의 능선 전투이다. 전투기간은 1951년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이다. 피의 능선(稜線)이란 《Star and Stripes》지가 지은 이름으로 3개의 고지 즉, 983고지·940고지·773고지와 연결된 산맥으로 이루어진 능선을 말한다. 피의 능선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캔사스-와이오밍 선으로 진출한 후,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기지 확보를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미 제2사단과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양구 북방의 피의 능선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12사단과 제24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피의 능선에 대한



공격은 1951년 8월 17일 아침 한국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¹⁰²⁾ 8월 25일 10여 일에 달하는 공격으로 능선을 점령했으나 다음날에 탈취당하고 말았다. 이때 한국군 제36연대는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 뒤 미군은 제24사단의 4개 포병대대, 중형포 2개 대대, 1개의 105mm 대대, 2개의 중박격포대대, 2개의 연대 전차중대, 그리고 중형 전차대대 1개 중대 등을 투입하여 피의 능선에 공격을 감행했다. 8월 27일, 940고지에 있던 미 제9연대 제2대대가 983고지를 공격하였고, 28일에는 제3대대가 동쪽에서 긴 능선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30일에는 제1대대 및 제2대대가 북쪽 940고지에 대한 정면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능선 정상의 수백 미터 전방까지 진출했다가 적의 사격으로 저지당하고 말았다. 이후 9월 3일까지 제1대대는 포병 및 공중의 지원을 받으며 이 능선을 수차례에 걸쳐 공격하여 결국 견고히 구축된 적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러, 3주일 동안 지속된 한·미 양군의 공격은 종지부를 찍었다.¹⁰³⁾ 이 전투로 인해 국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북한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피

102) <http://encykorea.aks.ac.kr/>(검색일 : 2019.9.15.)

1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피의 능선전투

해를 보았다. 또 북한군은 펀치볼 북쪽 능선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한·미 양군은 피의 능선을 장악하여 백석산과 대우산 간의 측방도로를 확보하였다. 당시의 격전지에는 1980년 11월 11일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전적비가 세워졌다.¹⁰⁴⁾

4. 인제전투

다음은 『The Graybeards』¹⁰⁵⁾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5월 22일, 우리는 15연대를 해방시키고 인제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187번가는 주도로를 이용하고 우리는 평행 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이 무렵 엔들리 중위는 캡틴으로 승진하여 부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차례로 위대한 인물인 챔블린 중위를 받았다. 우리는 그가 밧줄을 배울 때까지 그를 살려두는 끔찍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는 전투의 현명함 같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사상자의 70% 이상이 30일 이하 동안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측합니다. 포탄이 언제 가까이에 있을 것인지, 언제 서야 할지,

10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5, 1981/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에서 발췌, 요약.

105) 『The Graybeards』, 『My Year In Hell』, 2000.3/4, 45쪽.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때로는 등록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어느 날, 저는 관측장교(FO)에 있지 않았고, 소대와 함께 있었고, 포병이 들어 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 것이 들어와서 우리는 정말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우굴을 찾거나 파고들면서 허둥대면서 왼쪽 발목에 이 타격을 느꼈어요. 나는 100만 달러짜리 상처를 입었고, 정말 아팠고, 발이 정말 뜨거워졌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을 멈출 수가 없어서 구멍을 발견했을 때 부츠를 벗었고, 멍이 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파편이나 포탄이 터진 커다란 조각이 바위를 던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발목을 평평한 쪽에 부딪히고 부츠를 뚫지도 않았다. 발목이 부어오르고 빨갱게 달아올랐지만, 의사 선생님은 내게 뭔가를 주었고 우리는 계속 나아갔다. 5월 29일경에 우리는 인제 외곽에 있었고 나는 관측장교(FO)를 시작했다. 내가 함께 있던 부대는 트럭을 탑재하고 도로에서 약 5마일 떨어지니 높은 언덕으로 향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싣고 트럭을 출발시켰고, 아무 문제없이 바로 이 언덕으로 차를 몰았다. 우리는 또한 어떤 국도 찾지 못한 채 언덕을 탔다.

다음날 아침에 언덕(정말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짙은 안개의 땅을 볼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개가 언덕 위로 반쯤 올랐고 언덕 아래에서 포병 발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서 계곡을 발사했다. 갑자기 이 3개의 C119¹⁰⁶⁾가 우리에게 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비행기가 와서 갑자기 뭔가에 부딪쳐 언덕 옆으로 뛰어 들었고 두 번째 비행기가 들어 와서 맞았습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공중으로 똑바로 올라가서 상자와 상자가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사람들은 낙하산없이 낙하했습니다. 그들은 팔을 흔들며 발을 차고 있었고, 세 번째 비행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고 급회전하여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공군과 대포 사이의 의사소통이 없었고, 자체 대포가 공중에서 사격을 가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6월 5일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예비비로 돌아 왔습니다. 인제 쪽으로 이 행진에서 어딘가에 상 블린 산에 의해 두 번째 동메달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 이유를 전혀 몰랐다. 상 블린이 왜 그 이유를 말했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물론 그것을 거절했고 왜 상 블린 중위에게 말해야 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소대 지도자들은 메달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8일, 우리는 다시 줄을 서 있었다. 7월 26일, 제38대 레그트는 7월

106) 페어차일드 C-119 플라잉 박스 카(해군 및 해병대 지정 R4Q)는 2차 세계 대전의 페어차일드 C-82 패킷에서 개발된 화물, 인원, 쓰레기 환자 및 기계화 장비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미국의 군용 항공기였습니다. 낙하산으로 화물과 부대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최초의 C-119는 1947년 11월에 최초 비행 일 했으며 1955년 생산이 중단 될 때까지 1,100개 이상의 C-119가 건설되었다. 화물 운반 능력과 특이한 트윈 붐 디자인으로 "Flying Boxcar"라는 별명이 붙었다.

29일까지 힐 1179(대우산¹⁰⁷)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힐 1179는 우리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피의 능선(Bloody Ridge)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 무렵에 조셉 레보우 경사가 소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레보우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다. 2차가 한국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의 아내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그녀와 함께 있어야 했다. 레보우 병장은 나보다 15살이나 많았고, 인생사였다. 그의 아내가 나아지자 그는 사단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고 우리의 81번째 모르타르 소대에 배치되었다. 레보우 병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태우산 전투도 실제 곱이었는데, 이 전투 동안 115톤의 폭탄, 74,823발의 포병, 49,000발의 박격포가 발사되었다.

피의 능선 고지 983, 940, 773은 능선을 구성했다. 8월 14일에 사단은 983, 940, 773 고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에게 붙어 있는 36회 한국 연대는 중심을 오르는 것이었고, 38회 연대는 오른쪽 측면을, 9회는 왼쪽을 향했다. 측면. 8월 21일까지 한국은 983, 940 및 773 언덕을 점령했지만 며칠 동안 그 언덕에서 앞뒤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8월 24일, 38번째로 적은 2번째 대대가 언덕 773을 차지했고, 2번째 대대는 피의 능선의 약간 북쪽과 동쪽에 있는 Piari에 있었고, 8월 26일에 우리는 Piari와 다음 날에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107) 강원도 양구군 동면과 해안면에 걸쳐 있는 산이며 대우산 일대는 한국전쟁의 격전지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각종 희귀생물이 서식하여 대암산과 함께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6호)으로 지정되어 있다.

773 언덕에서 연대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피의 능선은 언덕을 향해 날린 포격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다. 8월 28일의 날 우리는 다시 언덕 773에서 쿵쾅거리고 있었다. 나는 소대와 함께 있었고 나를 기술 상사로 만든 섹션 리더였다. 셸스타드(Shelstad)는 다른 섹션 리더라고 생각한다. 빅 에드는 승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군대에 머물지도 않았고, 징집도 받았고, 결혼도 했고, 집에 가고 싶었다. 28일 아침, 챔블린 중위는 내게 엽총을 든 남자를 데리고 1마일쯤 뒤로 가서 우리가 다시 넘어질 새로운 위치를 찾으라고 말했다. 대대가 곧 후퇴하고 있었고, 그는 우리가 다시 도주할까 봐 두려웠다. 엽총을 든 남자와 나는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위치를 찾아 깃발을 붙이고는 다시 예전 위치로 돌아갔다. 우리가 옛 소대 부지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소대를 지나 새로운 위치로 되돌아갔고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주변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한국인이나 박격포는 보이지 않았지만, 총을 쏠 수 있는 여우굴에 있는 사거리 카드와 다른 물건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잠시 동안 지켜보았고, 마침내 나는 산탄총 남자에게 나를 엄호하라고 말하고 여우굴로 가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새로운 장소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나는 모르타르가 없어진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다른 재료는 남겨졌다. 챔블린 중위는 이 물건들을 돌려받게 되어 행복했고, 이 행동으로 후에 실버 스타를 위해 나를 썼다. 나는 왜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없는지 다시 설명해야 했다. 바로 다음 날, 29일, 경사. 레보우가 나를 불러서 뜨거운 식사와 샤워를 위해 내 구역을 뒤쪽으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셀스타드는 관측장교(FO)에 있었고, 내가 돌아왔을 때 리보우는 셀스타즈 구역을 차지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레보우에게 셀스타드 구역을 먼저 차지하라고 설득했고, 그가 돌아오면 가겠다고 했다. 그때쯤 화재 명령이 들어왔고 레보우는 소방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가서 서둘러 오라고 말했다. 나는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텐트를 통해 고탐치는 병장에게 다가왔다. 모성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나는 서둘러 소대로 돌아가야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병장을 발견했다. 레보우는 바로 그 위에 떨어진 박격포탄에 의해 살해되었다(박격포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우린 좋은 사람을 잃었고 난 소대 병장이 되었다. 소대 상사는 상사의 계급을 요구했고 나는 당시 기술 상사였다. 챔블린과 엔들리가 나를 마스터로 뽑을 예정이었고, 나는 그들에게 마스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군대에 머물 계획이었고, 최고의 비컴 등급이 기술 상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소대장이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겨우 2~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블러디 리지는 이미 확보되었고,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

피의 능선 까치봉 - 1243고개 9월 1일 우리는 1243고개를 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언덕 4개를 타야 했다. 나는 소대 중사였지만 계속 관측장교(FO)를 하고 있었다. 이제 겨우 몇 주밖에 남지 않아서 나는 정말 불안해졌고 잠시 동안 소대로 돌아와 다시 언덕을 올라갈 것 같았다. 9월 9일, 38일은 예비역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힐 868호를 타라는 명령을 받았다. 9월 9일이었고 10월 6일까지 집에 있어야 했다. 관측장교(FO)에서 마지막 세 번은 우리가 명령받은 언덕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지옥에서 쫓겨났고, 나는 내 주위에서 부상당하거나 살해된 사람들의 수를 셀 수 없었다. 이때까지 나는 한국의 어느 사람만큼 많은 전투를 보았고 포병이나 돌이 나를 잡았던 한 번을 제외하고는 굶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관측장교(FO)에서 내려와 챔블린 중위에게 집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충분히 한국에 있었고 운이 다한 것 같았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면 아마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챔블린 중위는 내가 떠날 수 없다고,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대신할 것인지 물었다. 챔블린은 세계 전장 위원회를 제안했고, 저는 35년 후 재회에서 그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전장 위원회를 제안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챔블린에게 전장 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그는 여전히 집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다시 선을 넘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챔블린의 텐트 모퉁이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

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나는 그에게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의 원에게 전화하라고 말했다. 챔블린은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곧 엔들리 대위가 내 지시를 받아서 내 차례가 왔다. 포털로 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2주 전에 떠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가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소대 중사가 되어 상사의 줄을 꺾었던 때를 기억하는가? 다음날 난 이 일의 뒷부분에 앉아 있었어.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더욱 더 많이 희생이 나왔다. 일명 고지전투라고 불리는데, 다른 말로 고지 쟁탈전(高地爭奪戰)이라고 부른다. 38도 선상에서의 불안정한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엔군과 북한군은 고지와 계곡에서 땅뺏기와 기 싸움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격돌하였다. 유엔군은 1952년 6월부터 화살머리고지(Arrowhead 281), 폭찹 힐 고지(Pork chop Hill 255), 불모고지(Old Baldy 266) 고지전을 치렀고 중공군 5차 공세 시 화천 파로호와 사창리 격전(한국군 6사단, 가평전투(영 27여단, 한국군 6사단) 글로스터 힐 전투(설마리/영국 29여단)에 이어서 인제 가리산 일대에서 미 2사단과 해병1사단이 벙커 힐 전투(Battle of Bunker Hill)를 치렀다.¹⁰⁸⁾

108) 아래 사진은 “Outpost Hill 226”에서 찍은 사진. 『The Graybeards』, 2001.5/6, 51쪽.



1951년 5월에는 대관령과 설악산전투(한국군 수도 사단과 11사단)가 있었고 캔사스 선 확보를 위한 5월 용문산 전투(한국군 6사단)도 한국군의 전투 능력이 돋보인 전투였다. 1951년 6월 양구 도솔산 전투(한, 미 해병), 인제군 1105고지(한국군 5사단)쟁탈전, 2년을 끌어온 고성군 월비산 전투(한국군 5·11·15·수도 사단)도 승리하였다. 미 9군단, 미 10군단 지역에서 피의 고지, 단장의 능선, 독수리 고지, 수도 고지, A고지와 B고지 쟁탈전이 벌어졌고 1952년 9월에는 지형능선을 탈환하였다. 한국군 9사단이 1952년 10월에 치열한 포격전과 20여 회의 백병전 끝에 백마고지를 탈취하였고 저격 능선은 탈취하였으나 삼각고지를 빼앗겼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1기병사단, 미 3사단, 한국군 1사단과 영국군 사단이 T-bone, Kelly, Tessie, Nickie, Betty, Nori 고지 전투를, 영국군이 Hook고지 전투를 치렀고 동부 미 10군단의 펀치볼 지역에서는 이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휴전 시까지 계속 되었다.¹⁰⁹⁾

109) 길광준, 『한국전쟁081 고지쟁탈전』, 길광준의 군사전략실, 2016.2.



현재의 방어선을 넘는 모든 언덕에서의 쟁탈전은 계속되었다. 많은 언덕들이 1952-1953년 동안 전투를 통해 유명해졌다. 1952년 6월 아로헤드(힐281), 6월 올드발디(힐266), 파로호 전투(화천), 사창리 전투(ROK 6사단), 가평 전투(영국 27Bde와 한국 6사단), 글로스터 힐(영국 29Bde), 분커 힐 전투(잉글스터 힐) 등이 있었다. Kansas에 도달하기 위한 대관령 전투(ROK Capital Division)와 설악산 전투(한국 11사단), 용문산 전투(한국 6사단)는 치열한 전투로 유명했다. 도솔산 전투(양구, 한국/미 해병대), 힐 1105 전투(인제; 5사단), 월비산 전투(고성; 한국 5·11·15·수도 분할)는 2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결국 승리하였다. 핏빛 능선, 하트브레이크 능선, 독수리 언덕, 캐피탈 힐, A, B 힐스의 전투는 1952년 9월 마침내 미군 제9·10군단, 지형 능선(터레인 능선)이 점령되었다. 제9사단은 1952년 10월 힐이 20여 차례 압류, 패소, 재탈환하는 것을 목격한 치열한 포병과 여울싸움으로 화이트 호스힐을 지켰다. 스나이퍼 능선은 되받았으나 삼개 구름은 다시 적의 손에 넘어갔다. 미 1기병사단, 미 3사단, 한국 1사단, 영국 1사단

은 T본, 켈리, 테시, 니키의 언덕에서, 그리고 서구의 노리 힐과 후크 힐에서 싸웠다. 미 10군단은 주요 언덕을 차지하고 동양 편치볼의 보 존을 허용하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다. 한국전쟁은 400만 명이라는 최다 사상자로 기록되는 비극적인 전쟁인데 그 400만 명의 사상자 중 300만 명이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중 중부전선의 ‘고지쟁탈전’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투 중에 일반 미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폭찹고지(Porkchop Hill) 전투이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영화로 만들어진 전투여서 많은 미국인의 기억에 남아있다. 폭찹고지 전투는 미군이 적 당히 발을 빼고 싶어 하던 휴전 직전, 중공군과 치고받으면서 본의 아니게 확대되었고 이승만의 개입으로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였다. 그렇지만 연합군 지휘관들도 이해하지 못한 전투였다. 주 방어선도 아니고 그냥 완충지대의 고지 하나였을 뿐이다.¹¹⁰⁾ 가장 참혹했던 전쟁,

110) 이것을 고지전이라고 부른다. 영화 《고지전》은 고수와 신하균이 주연을 맡은 장훈 감독과 박상연 작가의 2011년 한국영화이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휴전협정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가상의 고지 ‘애록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남과 북의 군사적 극한 대치를 다루고 있다. 쇼박스(주) 미디어플렉스가 100억 원을 투자하고 TPS Company가 제작한 대작영화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가는 무렵 상황을 다루고 있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마지막까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넓히려고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400만 명이라는 최다 사상자로 기록되는 비극적인 전쟁. 그 400만 명의 사상자 중 300만 명이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중 중부전선의 ‘고지쟁탈전’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 전투를 이 작품은 다루고 있다. 고지를 차지해야 한다는 명분 그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전쟁의 무의미함과 비극을 전달하고 있다. 상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적과의 내통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하고 방첩대 중위 ‘강은표’(신하균)에게 동부전선으로 가 조

한국전쟁 중에 하나인 폭잡고지 전투가 대표적이다. 장진호 전투 등에서 일격을 당한 연합군(한국군 포함)은 1951년 1월 14일에 서울을 다시 내쫓다가 3월 14일에 서울을 다시 수복했다. 그 후부터 휴전이 될 때까지 지금의 38선의 모든 산악지대를 놓고 일진일퇴를 벌였고 그 중에 폭잡고지도 있었다. 많은 비난을 샀던 8군과 10군단 이중 체계는 맥아더가 해임되면서 워커의 후임인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의 8군으로 통합되었다.

실제로는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어느 전투보다도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미군, 태국군, 콜롬비아군, 한국군과 중공군이 상대를 죽였다.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을 침공한 후에 미군과 UN군이 참전하고 다시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선은 아래위로 심하게 요동쳤다. 그렇지만 1952년 7월이 되자, 양측은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고 어느 쪽도 심각한 손실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1952년, 북한과 중공군은 최전선에 29만 명, 예비군 60

사하라는 임무를 내린다. 애록고지로 향한 은표는 그 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친구 ‘김수혁’(고수)을 만나게 된다. 유약한 학생이었던 ‘수혁’은 2년 사이에 이등병에서 중위로 특진해 악어중대의 실질적 리더가 되어 있고, 그가 함께하는 악어중대는 명성과 달리 춥다고 북한 군복을 덧입는 모습을 보이고 갓 스무 살이 된 어린 청년이 대위로 부대를 이끄는 등 뭔가 미심쩍다. 살아 돌아온 친구, 의심스러운 악어중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은표는 오직 병사들의 목숨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격전지 애록고지의 실체와 마주한다. 은폐할 곳도 없고 사람목숨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특수전. 실제 하루에도 3-4회 주인이 바뀌는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고지라는 고립된 공간과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그들만의 비밀을 갖게 된 남북한 병사들의 모습도 등장한다.

만 명을 배치했고 UN군은 최전선에 25만 명, 예비군으로 45만 명을 배치시키고 있었다. 판문점에서 지루하면서도 격렬한 휴전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의 고지에서는 마치 1차 대전과 같은 참호전이 벌어졌고 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지참호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피의 능선(Heartbreak Ridge), 펀치볼(Punchbowl), 캐피탈(Capital) 고지와 후크(Hook) 고지 전투는 양쪽의 선전장이 되면서 언론의 눈과 입을 집중시켰다. 포크 칩 고지에 쏠린 관심은 공산당 선전책동 덕분이었다. 그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을 지휘하던 쑹더화이(Peng Dehuai)는 마오쩌둥(毛泽东)이 의장으로 있던 중앙군사위원회(CMC)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쑹의 지휘관은 여러 자리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쑹의 부관 덩화(邓华)는 13야전군 지휘관인 동시에 평화협상 대표였다. CMC의 군 정보장 리커농(李克農)은 외교차관인 동시에 중국인민해방군 군 정보 부장이었으며 판문점 중국대표 단장이었다. 리는 외교와 정보 직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휴전협상을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전쟁을 독려했다. 결국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고지에서 벌어지던 전투는 군사적 가치보다는 정치와 선전가치 때문에 더욱 격화되었다.¹¹¹⁾

111) 판문점 휴전협상장 모습입니다. 북한은 전쟁당사자로 참석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하며 전쟁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문에서 나오듯이 UN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과 중공군 사령관이 휴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NARA에서 나온 것입니다.



1952년 5월, 제45보병사단을 맡은 데이빗 루프너(Ruffner) 소장은 서부전선 중앙의 1구단 우익에서 중공군 제13 야전군의 제39군을 상대하고 있었다. 루프너는 주방어선(MLR)의 전방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전방의 고지 10여개를 점령하기로 했다. 남서쪽 마지막 고지 2개인 폭찹과 불모고지(Old Baldy, 고지 266)는 중공군 수중에 있었다. 6월 6일과 7일, 279보병연대가 북쪽 고지 6개를 점령했고 180보병연대는 남쪽 고지 6개로 전진해 들어갔다. I중대가 한 시간정도의 총격전 끝에 폭찹을 점령하고 바로 진지를 쌓아올렸다. 이후 며칠 동안 중공군 346, 347과 348연대가 반격해왔지만 I중대는 포격지원을 받으며 막아냈다. 루프너는 포크 찰 고지와 올드 발디 고지를 방파제삼아 45사단의 주 방어선을 확장시켰다. 1952년 가을, 제2보병사단이 45사단과 교체했고 제9연대가 폭찹과 올드 발디 고지를 맡았다. 10월, 태국 제21보병연대가 폭찹을 다시

탈환했고 악전고투 끝에 11월에 있었던 중공군 39군 일부의 공격을 막아냈다. 다시 제7보병사단으로 교체되어 폭참고지는 제31연대가 맡았고 떠나는 태국연대는 병커에 이런 낙서를 남겼다. “우리 폭참을 잘 돌봐줘.”

태국군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총 11,786명을 파병했고 해군과 공군도 파병했다. 사진은 1951년 1월, 폭풍에 밀려 동해안에 좌초한 태국 해군의 뿌라세(Prasae) 호이다. 이 전함은 영국이 2차 대전 후에 태국에게 판매한 콜벳 전투함이었는데 결국에는 회수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했다. 1952년 늦은 겨울, 덩화(邓华)는 중공군이 방어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반격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평터화이는 23과 47군을 폭참고지 부근으로 이동시켰다. 1953년 3월 1일, 중공군 포대가 8,000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3월 23일, 중공군 23군의 63사단과 47군 141사단 병력 일부가 올드 발디, 포크 찰과 191고지를 동시에 공격했다.

Photo # 80-G-432570 Thai frigate Prasac aground on the Korean coast, Jan. 1951



중공군은 I중대를 700m 정도 밀어냈지만 자정 무렵에 7사단 예비대 중 2개 중대가 반격을 가해 폭착을 되찾았다. 중공군 141사단의 1대대는 불모고지(Old Baldy)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정치장교는 3중대에게 선두로 올라가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지명했다. 고지에는 최근에 도착해 전투경험이 없는 콜롬비아 3대대가 있었다. 집중포격의 지원을 받은 중공군은 저녁 9시 정도에 UN군의 참호에 접근했다. 미군 중대가 콜롬비아 군을 지원했지만 중과부적이어서 뒤로 물러났다. 중공군 3중대는 “이 승리는 중대장의 몫이다.”라고 외쳤다. 불모고지(Old Baldy)를 잃었기 때문에 폭착도 포기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지만 불모고지(Old Baldy)를 중공군에 빼앗긴 수모 때문에 폭착은 반드시 지켜내기로 했다. 중공군 47군이 다음 목표인 폭

잡을 공격하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양쪽은 휴식을 가졌다. 미국언론은 불모고지(Old Baldy) 고지상실을 맹비난하면서 7사단을 오합지졸로 묘사했다. 역설적으로 미국언론은 중공군에게 선전책동 재료를 주고 있었다. 7사단은 4월부터 7월까지 중공군을 상대하면서, 중공군의 스피커를 통해 자국 언론의 비난을 듣는 이중고를 겪었다. 1953년 4월, E중대의 2개 소대가 폭잡고지에 주둔해 있었는데 총 병력은 96명이었고 이중에는 공병과 의무병도 있었다. 1과 3소대는 소총수 76명이 있었고 이중에 20명은 방어선 밖의 청음소에 배치되었다. E중대는 2개 소대가 더 있었고 병력을 순환배치하고 있었다. 벙커와 참호는 8군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단단하게 만들어졌지만 폭잡고지는 마치 모자 위의 움푹 패인 모양이어서 2개 소대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¹¹²⁾ 4월 3일, 폭잡 공격승인이 떨어졌지만 마오쩌둥(毛泽东)은 평화협상을 지켜보라며 연기시켰다. 판문점에서는 중상자 포로교환에 합의하면서 잠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지만 중국 공산당은 UN을 더 압박하기로 하고 실제로 포로를 교환하기도 전인 4월 16일에 폭잡 공격을 재개했다. 4월 16일 저녁 8시, F중대의 정찰병은 50명의 중공군을 발견하고 수류탄을 던져 교전을 벌이며 고지의 아군에게 경보를 울리려고 했지만 이미 중공군 2개 중대가 참호를 넘어 들어가고 있었다. 공격을 받은 1소대는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면공격을 받고 있으니 폭잡 전체에 조명탄을 쏘아달라는 신호였다.

112) 「가장 참혹했던 한국전쟁-폭잡고지 전투」,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세계사 1001장면』, 2014.6.25.

11시 5분, 조명탄이 쏘아 올려졌고 몇 분 후에 미군포대가 불을 뿜었다. 20분 후에 병커에서 나온 소대는 참호에 들어와 있는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다. 중공군은 구역별로 점령해나가면서 미군을 죽였고 병력이 증원되면서 2시간이 지나자 고지 대부분을 점령했다. 위기를 보고 받은 31연대장은 중공군이 포크 찰 고지에서 넘어오는 것을 대비해 L중대의 3개 소대를 급히 배치시켰다가 02시에 F중대와 L중대의 1개 소대에게 E중대를 지원하라고 명령했지만 F중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L중대의 3소대는 중공군의 기습사격을 받고 6명이 전사했고 소대는 후퇴했다.

L중대는 2개 소대만으로 두 번째 공격을 할 예정이었지만 K중대와 함께 한다는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 K중대 135명은 347고지 뒤에 있었는데 새벽 3시 30분에 200고지 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중대원은 탄약벨트를 더 챙기고 수류탄도 3발씩 더 넣었다. BAR(브라우닝 자동소총)는 탄창 12개를 그리고 경기관총은 탄약 5상자를 챙겼다. 소대별로 화염방사기와 대구경 로켓발사기도 가져갔다. 데이비스 대령은 2개 중대로 포크 찰 고지 후면을 공격하고 1개 소대는 예비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K중대장은 포크 찰 오른쪽에서 L중대가 협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지를 최대한 빨리 올라가야 한다. 성공여부는 속도에 달려있다. 날이 새기 전에 고지 위에 올라가야 한다.” 새벽 4시 30분, 지원 포격이 멈추자 중대원은 30분가량 걸려 첫 번째 병커에 도착했다. 그리고 미군이 방어선에 들어서자 중

공군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면서 L중대도 K중대와 같은 시간에 공격에 나섰지만 심한 공격을 받았다. 2개 소대 모두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200고지로 되돌아왔다. 폭잡에는 K중대만 남았다. K중대는 병커 안에서 자신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 E중대 생존자들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 순간에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포탄 3발이 떨어져 중대원 여러 명이 부상당했지만 병커 안의 E중대원은 무사했다. K중대가 방어선 안에 자리 잡고 L중대가 고지 200에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중공군 141사단의 지원군이 고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모든 고지는 이렇게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K중대장은 이미 절반의 병력을 잃었고 고지에서 중공군을 밀어낼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3소대를 불러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L중대의 지원도 요청했지만 겨우 12명만이 도착했다. L중대는 62명을 다시 올려 보냈지만 중대장 2명이 연거푸 총에 맞고 전사할 정도로 악전고투를 치렀다. 세 번째 중대장 마샬 중위가 K중대와 합류했을 때에는 12명이 전부였다. 이제 고지에는 E중대, K중대와 L중대 모두 합쳐서 65명이 남았는데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의 E중대가 가지고 있던 숫자였다. 오전 8시 14분에 G중대가 증원되었다. 그렇지만 중공군도 반대편에서 새로 증원되었고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K중대장은 물과 더 많은 탄약, 중화기를 요청했지만 약간의 물과 C레이션만 도착했다. 정오에 대대장에게서 E와 F중대 생존자를 후방으로 보내고 G중대도 오후 3시에 빼

내겠다는 통보가 왔다. K중대장 클레몬스는 “그들을 빼 가면 고지에서 버티라는 명령은 소용이 없습니다.”라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몇 시간을 버티던 클레몬스는 “지원이 없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긴급한 요청을 했고 이번에는 대대장이 사단본부에게 지원요청을 했다.

7사단의 상황은 복잡했다. 고지를 잃으면 중공군은 고지 347도 공격할 텐데, 1952년 10월에 중공군 손에 넘겨주었던 삼각(Triangle) 고지 꼴이 될 수도 있었다. 사단은 다시 1군단, 다시 8군, 또 다시 극동사령부로 판단을 요구했다. 병력손실과 판문점의 협상을 두고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알고 싶었다. 사령부가 판단을 놓고 고민하던 중에, 7사단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대대에 도착했고 그 시간에 G중대가 후퇴했다. K중대는 그 시간까지 18명이 전사하고 71명이 부상을 당했다. L중대까지 합쳐서 25명이 남았고 중대장은 병력을 모아 한 구석에 틀어박혔다. 중공군은 야간공격 전에 포탄을 퍼부었다.

“부상병을 빼고 겨우 20명 만 남았습니다. 지원군이 없다면 빠져나가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사단장을 고지를 고수하기로 했다. 8군의 승인을 받은 후에 17연대의 2대대를 31연대에게 주었고 17연대의 1대대도 폭착고지 부근으로 이동시켰다. 이제 고지를 구원할 차례였다. 2대대 F중대는 K중대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저녁 9시 30분에 K와 L중대와 합류했다. 미군 포대는 하사골에서 올라오는 중공군을 두

들렸지만 중공군 포대도 응사에 나서 F중대 19명을 죽였다. F중대의 피해가 크자, 2대대 E중대도 투입했고 사단장은 만일을 대비해 1대대도 31연대에게 주었다. E중대는 중공군 쪽으로 올라가 기습하기로 했다. 이제 고지에는 14명만이 남았다. 자정이 되어 중공군이 포격이 거세지자 클레몬스는 생존자를 모아 탈출하려고 했다. 마침 그 때에 F중대가 도착했고 K중대는 탈출했다. 20시간 전만 해도 135명이 트럭을 타고 왔다가 이제는 1톤 탄약수송차를 타고 떠났다. F중대에게 넘겨줄 탄약도 의무용품도 없었다. K중대가 다시 전선에 복귀하려면 150명을 보충 받아야 했다.

중공군이 다시 공격해왔고 이제는 벙커 위로 포격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다급해졌다. F중대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E중대가 중공군의 배후를 공격해서 쫓아내고 F중대를 구원했다. E중대의 기습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두 시간 후에 다시 공격해왔다. A중대가 더 보강되었고 4월 17일에는 미군 3개 중대가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며 고지를 완전히 장악했다.(전투 개시 때부터 있었던 31연대의) E중대와 몇 명 안 되는 생존자가 후송되었다. 4월 18일에 중공군 141사단의 병력이 더 공격해왔지만 미군도 병력을 증원하며 막아냈다. 결국 중공군도 포기하고 반대편 계곡으로 물러났다.

폭참고지는 포격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2사단과 7사단의 포병대대 9개는 첫 날 37,665발, 둘째 날 77,349발을 퍼부었다. 이렇게 짧은 시

간에, 고지 하나를 두고 11만 발 이상을 퍼부은 포격전은 없었다. 물론 중공군의 포격은 제외한 숫자다. 폭잡고지는 유명해졌고 협상장에서도 중요한 무기였다. 1953년 6월, 평더화이는 덩화(邓华)에게 제1군을 주었고 7월 6일에 폭잡을 가시 공격했다. 며칠 전에 양측이 임시 휴전에 합의했었지만 이승만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공군은 이승만의 반발에 대해 미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폭잡고지를 공격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포로를 잡지 않겠다는 경고를 했다. 7월 6일 밤, 중공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다. 마치 중국인 모두가 올라오는 것 같은 인해전술이었다. 캘리버 50 중기관총으로 수많은 중공군을 쓰러트렸지만 결국 방어선 안으로 들어왔고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B중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군은 고지에서 밀려났다. 미군이 중대를 보강하면 중공군은 대대를 보강했다. 미 7사단은 4일 동안 고지를 두 번 탈환하고 두 번 잃었다. 사단장은 무조건 고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은 장군의 흔한 장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장은 정찰대대를 이끌고 직접 고지로 올라갔다. 1953년 당시 진정한 전투를 벌인 사단은 7사단이 유일했다.

7월 11일, 5개 대대가 중공군 1개 사단 전체를 막아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1군단은 고지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중공군을 막아내기에는 미군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전이 바로 코앞이었다. 그는 본군의 정치인과 언론의 비난을 두려워했다. 후크(Hook)에서 비슷한 전투를 벌였던 영연방 사단장 마이크 웨스트도 혈전을 벌

일 필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주 방어선도 아닌 외곽 완충지대였기 때문이었다. 7월 27일 휴전이 체결되면서 폭참고지는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그리고 논란은 계속되었다. 폭참고지 전투는 소대와 중대 규모의 미군이 보여준 전설적인 분전인 동시에 전략요충지도 아닌 고지 하나를 두고 수많은 목숨이 사라져간 무의미한 전투이기도 했다. 휴전서명과 동시에 UN군은 더 이상 전투를 벌이지 않았지만 우리와 북한은 휴전이 발효되는 자정까지 고지 하나를 두고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화 “고지전”을 보면 그 슬픔이 잘 표현되어 있다.



▲ 영화 고지전 포스터¹¹³⁾

113) <https://cafe.naver.com/gojijeon/>

고지전의 실재 배경은 백마고지(白馬高地) 전투이다. 백마고지 전투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중반에 접어들어서도 비교적 쉽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포로 협상이 그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하게 되자, 공산군이 군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전투였다. 백마고지 전투가 발생하기 전 쌍방은 모든 전선에 걸쳐 참여하게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는 휴전 회담장에서 서로 유리한 휴전조건을 쟁취하려는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쌍방은 모두 그 결과를 주시하며 군사력 증강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휴전 협상이 결렬되자 공산 측은 휴전협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전투에서 얻으려는 듯 유엔군이 장악한 전선의 주요 고지들에 대한 공격을 일제히 재개했다. 이때 적은 비교적 전선이 안정된 서부와 동부지역보다는 중부지역의 연천~철원 북방의 역곡천 일대에서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고지쟁탈전을 전개했다. 그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국군 9사단과 중공군이 395고지 일대를 놓고 혈전을 벌였던 백마고지 전투였다. 그러면 중공군은 왜 백마고지를 노렸을까. 그것은 백마고지가 갖는 전략적 이점 때문이었다. 잘 알다시피 백마고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의 야산으로 철원읍 서북방 12km 지점의 효성산(596고지) 남쪽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해발 395m의 고지였다. 하지만 6·25 전쟁 전까지 이 일대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1951년 휴전협상이 시작될 때쯤부터 이 일대에서 군사적 접촉이 계속되면서 관심을

모으게 됐다. 즉, 이 지역은 철원~평강~김화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지 중 하나인 철원의 서남쪽 견부(肩部)를 구성하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만약 적이 이곳을 점령하면 철원평야가 적의 감제 하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중부지역에 배치된 아군의 병참선인 3번 도로를 비롯한 많은 보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마고지 전투가 벌어질 당시 국군 9사단은 미 9군단에 배속돼 있었다. 사단장은 춘천대첩, 동락리전투, 신녕전투 후 압록강 초산에 1착으로 도착해 청성 6사단의 신화를 남게 한 김종오 장군이였다. 그는 1952년 5월 3일부로 9사단의 8대 사단장으로 부임해 백마고지 전투를 통해 다시 한 번 국군 역사에 영원히 남길 ‘백마 9사단’의 신화를 남긴 명장 중의 명장이였다.

백마고지 전투 이전 9사단의 상황은 이러했다. 미 9군단 좌익의 9사단은 이 전투가 벌어지기 1년 전인 1951년 10월 17일부터 철원지역의 주저항선에 투입돼 좌로는 백마고지, 우로는 중강리까지 11km의 철원평야를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정면의 적은 중공군 38군 예하 114사단의 340연대와 324연대였으며, 중공군 113사단이 좌 인접 미2사단 정면에, 중공군 112사단이 38군 예비로서 수정덕산 부근에 배치돼 있었다. 이들은 왜식장총, 다발총, 기관단총, 중기관총, 무반동총, 박격포 등으로 장비되고 보급·훈련 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다. 사단의 주저항선은 대부분 철원평야를 가로지르는 개활지였으며 다만 좌단의 395고지 부근만 구릉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적이 효성산(619고지)을 비롯한 유리한 고지들을 장악해 사단 방어지역을 감제하고 있

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아군은 방어에 취약했다. 특히 주저항선 5km 전방에 위치한 봉래호는 작전지역의 역곡천을 범람시킬 수 있어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9월 22일부로 좌측에 30연대, 우측에 29연대를 배치하고, 28연대를 예비로 확보했다. 또 배속받은 51연대는 대대단위로 운용하면서 주저항선을 방어케 했다.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30연대는 395고지에 1대대를, 중마산 일대에 2대대, 역곡천 남안에 예비 3대대를 각각 배치했다. 사단은 적이 백마고지를 탈취해 철원평야를 제압하는 동시에 차기대공세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며 철원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중부전선에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해 아군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했다.

이 무렵 전 전선에 걸쳐 적의 공세징후가 있어 정찰과 경계를 강화하던 10월 3일에 중공군 군관 1명이 귀순해, “중공군 114사단이 10월 4일과 6일 사이에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사단은 백마고지 방어병력을 2개 대대규모로 증강하고, 사단에 비로 하여금 즉각 역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찰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중공군은 1952년 10월 6일 아침 마침내 공격을 개시했다. 적은 국군 9사단 정면에 포격한 데 이어 봉래호 독을 파괴해 역곡천을 범람시켰다. 이어 적 114사단이 저녁 7시 15분 30연대가 방어하고 있던 백마고지 일대를 공격했다. 연대는 이날 밤 적과 3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을 격퇴했으나 다음날 밤 적이 2개 대대로 백마고지를 공격하

자, 30연대는 고지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2시간 후 아군 28연대가 이를 역습으로 탈환했다. 10월 8일 새벽 적은 다시 공격했다. 이날 적은 전날까지의 공격이 여의치 못하자 1개 연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국군 28연대는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짙은 안개로 포병과 항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침 8시 10분 어쩔 수 없이 주봉이 적에게 피탈됐다. 사단은 오후 5시 28연대 3대대를 투입해 밤 11시 5분 다시 주봉을 탈환했다.

그러나 5차에 걸친 공방전에서 28연대와 30연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단은 적 포로의 진술을 기초로 적의 공격이 당분간 계속되리라 판단하고, 29연대를 백마고지에 투입하기 위해 사단에비로 확보했다. 9일 밤 자정이 지나면서 적의 파상공격으로 고지 주봉과 그 우측 능선 일부를 다시 빼앗겼다. 이에 사단은 날이 밝자 적이 점령한 고지에 1만7700발의 포탄과 항공폭격을 실시한 후 29연대로 하여금 역습하게 해 이를 탈환했다. 적은 10일 새벽 다시 공격함으로써 피아간에는 수류탄 투척과 백병전을 전개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에 국군 29연대 1대대는 일시 9부 능선으로 철수한 후, 2대대의 증원을 받아 다시 정상을 탈환했으나, 10월 11일 밤 고지는 다시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12일 아침 30연대가 29연대를 초월 공격해 이를 탈환했으나, 적의 반격을 받고 다시 빼앗겼다. 이에 28연대가 10월 15일까지 밀고 밀리는 육탄전을 벌여 고지를 탈환했다. 뒤이어 29연대가 이 기세를 몰아 395고지 북쪽 낙타능선상의 전초진지를 탈환함으로

써 적을 완전히 물리쳤다. 이로써 약 10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거의 궤멸상태에 이른 중공군 38군은 드디어 전선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국군 9사단은 10월 6일부터 중공군 38군의 공격을 받아 연 10여 일간 24회나 주인이 바뀌는 대혈전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백마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38군은 총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해 그중 1만여 명의 피해를 입은 반면, 9사단은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3,416명의 피해만 입었을 뿐이다.¹¹⁴⁾ 그런데 군인들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군번도 계급도 무기도 없이 죽어간 전장(戰場)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다. 다음 글은 KSC(Korean Service Corps=한국근로봉사단)라는 지게부대원, 즉 비전투원들의 이야기이다.

아-, 평강 다음엔 금강산, 그리고 원산이다.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전철 선로와 전선줄이 보였다. 황해도 재령(載寧)이 고향이라는 전우(戰友)가 있었다. 지금은 이름도 성도 잊었지만 그 역시 나와 같은 하우스보이였다. 그는 흔희작약(欣喜雀躍)했다. 순간, 박격포탄이 우박처럼 떨어지기 시작했다. 탱크들이 멈췄다. 우리는 FO팀과 보병들은 탱크 뒤로 숨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직사포가 날아왔다. 곡사포탄도 콰콰 광! 하면서 쉴 새 없이 떨어졌다. 평강을 코앞에 둔 상태였다.

114) 「기타-6·25 결정적 전투들 ⑨ 백마고지전투」, 『국방일보』, 2010.6.17., 발췌요약.

탱크부대는 방향을 서쪽으로 돌렸다. 서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튼 탱크들이 포효(咆哮)했다. 목표는 395고지라 했다. 우리 105mm 야포도 같은 목표에 일제사격을 가했다. 나중에 백마고지로 알려진 산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보병부대(한국군 제9사단 28연대의 1개 중대로 기억됨) 선두에 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30분이나 됐을까, 8부 능선쯤 되는 곳까지 조용하던 적의 총구에서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몇 사람이 찢어지는 듯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KSC(Korean Service Corps=한국근로봉사단)라는 지계부대원, 즉 비전투원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30~40대 청장년들로 각처에서 징발된 노무자들이었다. 지계에 무거운 포탄이나 식량들을 짊어지고 전투지역 최전방 고지까지 오르내린다. 물론 군번도 계급도 없으며 최소한의 호신용 무기조차 없이 포연탄우(砲煙彈雨) 속을 누빈다.

그 KSC 아저씨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독품은 스프레이를 먹은 파리들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비명소리만은 찢어지듯 크고 기분 나쁘게 들렸다.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 같았다. 매일 매일 몇 사람씩의 KSC가 쓰러졌다. 그들은 분명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챙기지 않았다. 알지도 못했다. 나는 몇 안 되는 목격자의 하나다. 그러나 나는 누가 어디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능력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군번도 계급도 무기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 무수한 비전투원들이 백마고지를 비롯한 수많은 고지에서 죽어갔다는 사실뿐이다.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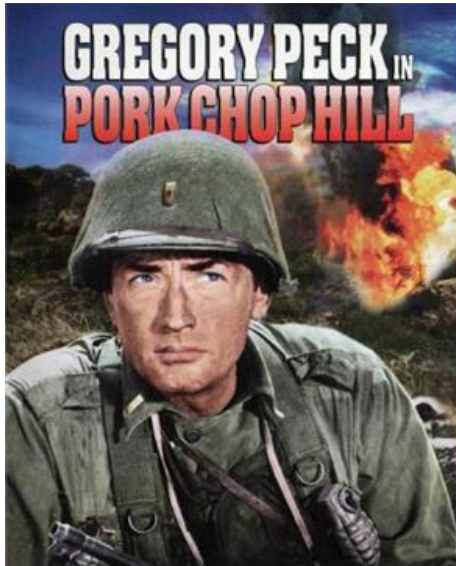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노무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전투를 위해 필요한 것들, 각종 무기류 그리고 보급품 등을 운송했던 KSC(Korean Service Corps=한국근로봉사단)의 존재를 꼭 알아야 한다. 이들은 죽어도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로 인해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백마고지 전투는 국군 제9사단이 1952년 10월 철원 백마고지에서 중공군(中共軍)의 공격을 수차례 격퇴한 전투이다. 향후 영화 『고지전』에는 조금 나오지만 기실 국군과 중공군의 전투가 중심인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국군과 인민군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KSC(Korean Service Corps=한국근로봉사단)은 거의 비중이 없다.¹¹⁵⁾

115) 이도형, 「10월이 오면 생각나는 일 : 가장 가혹했던 10월의 백마고지전투 ~계급도 군번도 없는 전투병 10개월~」, 『한국논단』276, 2012, 160쪽.

116) 엄현섭, 「전쟁유적과 원형(原形) 콘텐츠로서의 존재적 고찰- 백마고지(白馬高地)와 영화 『고지전』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78, 국제어문학회, 2018.09.

5. 폭찹고지

포크 찹 고지의 공식명칭은 고지 255이지만 지도에서 보이는 형태와 1959년 영화 때문에 폭찹(Pork Chop) 고지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전사가 마샬(Marshall)의 책¹¹⁷⁾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는 1953년 4월에 벌어진 이틀간의 전투만 다루고 있다.



▲ 1959년 영화 '폭찹힐'의 포스터. 주연은 '로마의 휴일'에서 나온 그레고리 팩이 맡았다.¹¹⁸⁾

117) 이 전투를 유명한 미국의 전사학자인 S.L.A. Marshall이 (후에 장군, 마샬 플랜의 그 마셜은 아님) 책으로 내었는데 『Battle of Pork Chop Hill』로 이것으로 1959년에 그 레고리 팩이 주연한 영화 폭찹힐이 나왔다.

118) <https://blog.naver.com/h19730206/221160545587>

다음은 『The Graybeards』¹¹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미군이 1995년 다시 한국에 방문한 내용이다. 기차길은 내가 기억한 대로 그대로 왼쪽에 있었다. 우리는 38선 북쪽에 있었다. 현재 2사단의 본거지인 캠프 케이시는 충격적이었다. 마치 정문 바로 밖에 다차선 교차로와 신호등이 있는 주변 기지 같았다. 심지어 그 북쪽에는 9홀의 골프장이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5사단과 미소 짓는 중위의 체크포인트에 멈춰 섰다. 신 대령은 손을 뺐은 채 길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우리가 그의 부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의 손님이 될 것이다.

내가 추정했던 철도의 오래된 연천역 북쪽은 밝은 빨간색 원반에 5번째 한국의 흰색 키를 전시한 2층 건물 앞에 주차했다. 대령은 검문소에 미리 전화를 걸어 우리가 특별 허가만으로 진입한 지역인 DMZ의 울타리까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우리는 대령의 지프를 따라 출발했다. 연천계곡은 지금 인구가 너무 많고 축조되어 있어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철도가 왼쪽에 있는 한 우리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한다. 갑자기 차의 서스펜션이 진동했다. 선로는 이제 우측에 있었고 우리가 여행하던 길에서 비스듬히 빠져 있었다. 그 트랙에서 몇 백 야드 위의 녹슨 기관차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우리가 태그완니라고 부르는 버려진 마을의 역이었다. 사실 이름은 대광리(경기 연천군 신서면

119) 『The Graybeards』, 「1995 - Pork Chop Revisited」, 1996.9, 8쪽.

대광리)야. 이제 도시화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려주고 있었지만, 선로가 길을 건너고 나는 변하지 않은 것을 걸고 있었다. 우리 도로와 수직으로 이어진 계곡은 1953년 여름 7사단 활주로가 있을 만큼 넓고 길게 보였다. 나는 우리 오른쪽에 산등성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 산등성을 지나자 우리가 다리를 건너게 될 줄 알았다.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는 중대하게 보이는 체크포인트를 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에는 연대 집행관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민간인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아 개울은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었다. 여기는 확실히 7사단 구역이었고 우리는 곧장 선로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나는 31번 필드가 155번 필드의 배터리를 이 도로 위에 놓고 있었고 57번 필드가 105번 활을 선에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도로 위에 있다는 것을 상기했다. 우리는 두 개의 한국 포병복과 마주쳤을 때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먼 거리를 여행했었다. 나는 전 한국 포병학교 교관이었던 내 동료에게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최선은 언제나 최고다.”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 총들이 아주 오래 전에, 전쟁 중에 수집된 발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가 그 선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렸다. 언덕은 온통 푸르렀고 많은 경우 숲이 우거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오래된 다연장로켓(MLR)에 접근했을 때 나는 25에서 30피트 높이의 검은 사지가 없는 나무줄기

가 푸르른 나뭇잎 사이로 솟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들은 40년 전에 포격으로 죽은 나무들의 시체였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평평한 길바닥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 전에 놓여진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언덕이 더 가까웠고 우리는 곧 군사 기술자들이 조각한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갑자기 우리는 검은 플라스틱으로 덮인 구조물을 지나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의 관찰로 도로를 가려낼 때 사용했던 구조물과 흡사했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길은 아직 잘 드러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산등성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등급은 가파르지만 우리의 재래식 자동차는 갑자기 나타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파편에 맞은 것처럼 보이는 콘크리트 기둥에는 “T본 OP(T-Bone OP)”라는 글자가 돌아 있었다. 주차장 저편에는 녹색의 낮은 빌딩이 있었다. 그리로 가는 길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나는 북쪽 벽 전체와 대부분의 옆 벽이 그림 창이라는 것을 보았다. DMZ의 푸른 구불구불한 언덕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대령이 지도를 건네주었고 나는 즉시 방향을 잡을 “악어 조스”를 찾아보았다. 그는 내가 창밖의 지형을 내 발치에 놓고 석고배열이 있는 세 개의 덮개 달린 의자의 중앙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디스플레이에 나오기 전에 지도에서 악어 턱을 찾았다. 티본은 그래야 할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것이 돼지갈비처럼 보이고 악명 높은 언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대령은 우리가 다음 작전으로부터 그것을 더 잘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변

화는 색깔인데, 기억의 갈색을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목은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쪽으로 낮게 유지된다. 양쪽의 순찰에 의해 능선을 따라 벌거벗은 길이 있었다. 다행히 날이 너무 맑아서 4킬로미터 떨어진 DMZ 북쪽에 있는 선전 표지판만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내려갔고 두 번째 지프가 언덕 아래쪽에서 우리를 만났다. 우리는 차를 다른 검문소에 두고 지프 두 대를 타고 나아갔다. 두 번째 관측소는 너무나 높고 험준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 날개를 칠한 5사단 휘장이 눈에 띄었다. 지프를 주차한 후 우리는 두 번째, 덜 정교한 OP로 가는 두 세 번의 계단과 맞먹는 속도로 올라갔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높은 지 볼 수 있었다. 돼지고기 조각은 여전히 우리 왼쪽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 이름이 처음 가사가 되었을 때보다 지금 육체적으로 더 인상적이지 않았다. 줄이 여기서 비스듬히 늘어서 비무장지대의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담장 북쪽이 보였다. 울타리 근처에 가는 사람의 발자국을 강조하기 위해 맨땅의 넓은 띠가 울타리에서 멀리 뻗어 있었다. 그 울타리는 사실 두 개의 울타리였는데, 내 생각에 20피트 정도 떨어져 있고, 양쪽 위에 면도용 철사가 달린 약 15피트 높이의 철조망이었다. 이중 울타리가 쳐진 지역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차량 트랙이 있었다. 우리가 내려오면서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하려고 했다.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나는 약간 압도당했다. 그러나 나는 눈을 감고 이제 녹색 살육장이 게티스버그의 구르는 언덕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CJ(스킵) 리튼이 기고한 글이다. 그는 1995년 다시 폭잡 힐에 방문한다. 과거 전투가 있었던 곳이 너무나 변한 모습에 어색해 한다.

<어느 날 포크 초프 힐에서>¹²⁰⁾

소대에 소총병이 있는 것 외에도 나는 M-39 병력수송차를 몰았다. 우리는 순찰용품, 탄약 등을 언덕 꼭대기까지 가지고 오곤 했다. 도로는 한 번에 한 대의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기만 했다. 다시 내려오면 부상당하고 죽은 GI와 중국인들, 그리고 죄수들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한 번 올라가던 중 그들은 탄약을 싣고 있었고 수류탄 한 발이 열린 상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그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우리를 비울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

우리가 거기 올라갔을 때, 병장 보병이 보급품을 비우는 동안 바이크와 나는 명령을 받기 위해 병커에 들어갔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병력수송차에는 11명의 중국인과 1명의 경비원이 있었다. 내가 수

120) 『The Graybeards』, 『One day on Pork Chop Hill』, 1997.4, 21쪽.

류탄 얘기를 했더니 언덕 아래까지 올 때까지 우리 둘 다 경계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것들을 내리자, 바닥에 수류탄이 있었다. 그 날 저녁, 순찰대를 데리고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우리는 제방을 치고 차가 뒤집혔다. 우리는 걸어서 나머지 길을 내려가야 했다. 우리는 암호를 몰랐지만 운 좋게도 올라가는 GI. 순찰대와 마주쳤다. 꽤 신나는 날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가기 불과 몇 주 전이었다.

로런스 버스(Lawrence Busini)가 기고한 글이다. 그는 몇 주 후에 제대를 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투로 글을 썼다. 그만큼 제대에 대한 기쁨이 크다는 것이다. 비록 암호를 모르고 있었지만 차량 사고가 있어서 올라가는 GI. 순찰대를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제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즐거웠을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있는 전쟁터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것은 아마도 동일한 심리일 것이다.

—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

V 맺음말

본고는 강원지역과 미국을 고구(考究)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강원도의 주변성, 폐쇄성, 고립성은 남북의 분단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남북으로 나뉜 철원군과 고성군, 북에 면한 화천군과 양구군 등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힌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10~12km 되는 지역에 설치되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철원 민통선 구역은 강원도의 고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그러나 2018년 초부터 강원도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계속된 이념적·군사적 대립의 평화적 해소를 추구해온 진영(陣營)이 국정을 맡게 되었고 남북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1997년~2007년 사이에 국정을 맡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선부른 통일보다는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점진적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보수 정권

10여 년간의 남북갈등기를 지나고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의 침예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외교와 남북교류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를 지렛대 삼아 경제를 살리려는 북한의 의도와 클린턴·오바마 정부가 이루지 못한 북핵 문제 해결을 실현하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한편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이어 북한을 통치하게 된 김정은 위원은 장은 단지 핵무기나 군사력만이 아닌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가 필요했다. 즉 경제를 위해서 평화가 요청되었다. 강원도와 관련한 중심과 주변의 치환 현상을 파악하고 그 방향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진영 정부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15일에 개최되었고 6.15선언에 명시되어 있듯이 김대중 정부가 견지한 남북 통일 정책은 남북연합 방안이다. 즉 법적인 통일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통일을 향해 가기 위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는 방안이었다.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평화공존의 구체적 합의물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에 시작되었다가 2008년 북한군의 총격으로 인해 일반인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전면 중단되었으나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군사적 긴장이 화해 분위기로 변하고 다

양한 경제협력이 논의되면서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김대중 정부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노무현 정부가 이행하면서 2005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모델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다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2016년 폐쇄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재입주를 희망할 정도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모델이었다. 현재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정부에 요청하는 사안 중 하나가 월 250만원의 급여를 보장할테니 북한 노동자 100만 명을 파견해달라는 것인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의 월급여가 20만원에도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그 경제 효과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개성공단은 앞으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 및 관련 조치에 따라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통일은 매우 복잡한 담론을 촉발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의 북쪽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불법 이적단체인 반면, 국제적으로 북한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세계 여러 국가에 대사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국내적인 차원에서 헌법과 한국전쟁 이후로 첨예화된 반공 정서가 맞물린 상황만으로 보면 북한은 붕괴시켜야 마땅한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북한 붕괴론과 흡수 통일론은 공허한 당위일 뿐으로서 설득력이 약해진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빌어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것도 남북 주민 수백

만 명의 살상을 초래한다고 할 때 상식적인 해법이 아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은 미국과 단독으로 핵 협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가공할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문제가 고차원적 방정식을 요구하는 난제라는 점을 인식해왔기 때문에 최선의 현실적 해법은 평화공존의 우선적 정착이라는 관점을 견지한 것이다. 그래서 선평화 후통일 정책을 추진해왔고 현재도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평화 정책의 서막이 열린 곳이 강원도이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몇몇 종목의 남북 단일팀도 구성되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판문점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측은 대북 확성기를 철수하고 북측은 서울과 30분 차이가 나던 평양 표준시를 서울에 맞췄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 인질 3명도 북미회담 선물로 풀어줬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북측에 광대한 남북경협 구상을 전달했는데 강원도가 ‘주변’을 벗어나 ‘중심’의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 바로 이 구상에 담겨있다. 물론 남북경제협력은 북미회담이 좋은 결과를 낳고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려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현재 한국, 북한, 미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인만큼 남북경제협력의 구상에 포함된 강원도

관련 부분을 숙지하고 강원도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북미회담이 성공하여 북핵의 폐기와 더불어 종전 및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발해질 것이다. 건설, 철강, 항공, 원자재, 농업, 해양 무역, 관광, 전력,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험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소외받고 “주변화”되었던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는 협업을 통해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 남북화해와 경제 협력의 거대한 물결의 대부분이 가장 낙후되고 고립되었다고 평가 받아온 강원도를 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게 되어 있는 곳이 중심부 아닌가? 주변의 상징이었던 강원도가 평화 한국을 맞이하여 중심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폐쇄의 공간이 개방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강원도의 지역 정체성을 논의하면서 강원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개념보다는 문화적 자원의 개념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로 규정되어 폐쇄적이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 문화가 크게 발전할 경우 동일한 형태로 확산되어 단형화의 경제 논리를 따르게 될 우려가 있다. 반면 문화적 자원은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개척’, ‘발굴’, ‘활용’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문화들 간의 대화이다. 문화적 대화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만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강원도에 따라붙는 고립성과 폐쇄성은 남북의 분단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이 같은 상황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이제 강원도의 미래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가장 낙후되었다고 평가되어온 강원도가 남북화해와 경협이라는 반전을 통해 중심부의 위상을 갖게 되듯이 세계화와 관련해서도 거대한 반전이 준비되고 있다. 지역의 중요성은 세계화, 표준화, 중심화로 인해 지역문화의 고유성이 소멸될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중심문화에 대한 수동적 저항이나 지역문화 고유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또 다른 패권주의적 방식으로는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히려 세계화는 문화들 간의 진정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이며 강원도는 세계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강원도만의 고유한 무엇, 정체불명의 무엇이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 폐쇄의 공간에서 개방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원도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정리하되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과의 대화를 펼쳐나가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화해 및 경협 계획은 강원도가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다양한 문화들을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달리 말하면 강원도 문화를 세계의 타문화들을 통해 비추봄으로써 타문화들에 없는 강원도의 요소가 무엇인지 또 역으로 타

문화들을 강원도 문화를 통해 비취봄으로써 강원도 문화에 없는 타문화들의 요소는 무엇인지 맞대면하고 비교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것은 강원도 문화 연구자들의 언어적 역량이다. 강원도 문화 관련 종사자들은 이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정도는 자유롭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강원도 학생들 역시 우선적으로 키워야 할 역량은 여러 국가의 외국어이다.¹²¹⁾

121) 이세진 외 4인,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강원대학교 출판부, 2019.5.8.

참고문헌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1953.
- _____.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3권(홍학지, 함미원조전쟁회의, 해방군문예출판사, 1991). 2005.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5, 1981
- _____, 『한국전쟁 요약』, 1986
- 국방군사연구소, 『전적기념물편람집』, 1994
- 강원사회조사연구소, 『2018 강원도민 의식조사』,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8.7.4.
- 대한민국 국방부 編, 『韓國戰亂 一年誌』, 國防部. 1954.
- _____, 『韓國戰亂 二年誌』, 國防部. 1954.
- _____, 『韓國戰亂 三年誌』, 國防部. 1954.
- _____, 『韓國戰亂 四年誌』, 國防部. 1955.
- _____, 『韓國戰亂 五年誌』, 國防部. 1956.
-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http://search.cha.go.kr/srch_org).
- 위키백과, 「고지전」(<https://ko.wikipedia.org/w/>).
- 육군본부, 『소부대전례』, 1978.
-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www.cwg.go.kr>).
-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 『The Graybeards』
- 국방일보, 충북일보, 노컷뉴스, 새전북신문.

<논저>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1984.
- 고상진 · 전도명,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사회과학출판사, 1989.
- 김인걸, 『해방후 민족사의 발전과 과제』,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 강원도, 『강원도사: 현대편』, 1995.
-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 김태우,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과정』, 역사와 현실44, 한국역사연구회, 2002.6.
- _____,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토지개혁』, 역사비평70, 한국역사연구회, 2005.3.
- _____,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60, 한국역사연구회, 2006.6.
-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 『경제와 사회』71, 2006.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0.
- 김재웅, 『한 공산주의자의 기록을 통해 본 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북한』, 한국사연구141, 한국사연구회, 2008.6.
- 김영미, 『한국전쟁과 마을 연구』, 『중앙사론 3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6
- 김지미, 『분단 상흔을 소환하는 두 가지 방법 -<고지전>과 <풍산개>』, 황해문화 2011.
-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21권』, 2011.
- 김명호, 『중국인이야기』, 한길사, 2013.6.7.
- 김병철, 『영화 <고지전>에 나타난 휴전선의 현재적 의미』, 영상예술연구 22, 영상예술학회, 2013.
- 김정은, 『완장 단 사람』의 특성으로 본 '지역빨갱이'의 모방서사와 트라우마: 한국전쟁체험담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국가보훈처, 『6.25전쟁 현장 읽기』, 2014.
- 방선주, 『虜獲 北韓筆寫文書 解除(Ⅰ)』, 『아시아문화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2.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 나남출판, 1996.
- 박찬승,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현실39』, 2000.
- _____,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 박지수, 『강원도 철원-철원 갈대밭 갈아 옥담 일구었듯 한탄강 따라 의식은 자란다』, 『민족21』, 2004.
- 박태균,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책과 함께, 2005.
- 방유리나, 『영화 <고지전>을 통해 본 분단서사와 그 극복 가능성 전망』, 통일인문학논총 55,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3.
- 서종석,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 손경호,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5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3.
- 와다 하루키,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비, 1999.
- 이민수, 『전쟁과 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8.
-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 사례 중심으로』, 『한국문화 인류학 35』,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 윌리엄 스탁, 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나남출판, 2005.

- 이재봉, 남이랑북이랑, 『월간 전북』, 2005.11.
- 이완범, 6·25전쟁은 복합전으로 시작되었다: 내전설과 남침유도설에 대한 비판적 조망, 『한국전쟁학회』,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명인, 2007.
- 염미경, 『역사학자가 밑으로부터 쓴 한국전쟁의 미시사』, 『한국민족문화』3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11.
- 이도형, 「10월이 오면 생각나는 일 : 가장 가혹했던 10월의 백마고지전투 ~계급도 군번도 없는 전투병 10개월~」, 『한국논단』276, 2012.
- 엄현섭, 「한국전쟁의 표상과 지역문학의 재인식 - 전상국의 동행을 중심으로」, 『국제어문』60, 국제어문학회, 2014.3.31.
- _____, 「전쟁유적과 원형(原形) 콘텐츠로서의 존재적 고찰- 백마고지(白馬高地)와 영화 『고지전』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78, 국제어문학회, 2018.09.
- _____, 「한국전쟁(韓國戰爭) 해외기록 문화유산 자료구축 연구 방법」, 『국제어문』82, 2019.9.30.
- 정용욱, 「한국전쟁기 특수전 연구와 Dark Moon」, 『군사40』, 국방군사연구소, 2000.6.
- 전현수, 「소련 공군의 한국전 참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2001.
- 정구도 편,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교훈』, 두남, 2003.
- 정병준,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 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54』, 한국역사연구회, 2004.12.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 조용욱, 「전쟁정치를 꿈꾸던 미륵불, 좌절과 몰락.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역사공간』, 2011.
- 존 앤더슨, 이영민, 이종희 역, 『문화, 장소, 흔적』, 한울, 2013.
- 최종국,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경제(1950-1953)』,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최성환, 『용의 전쟁』, 앤길, 2019.6.10.
- 허중호, 『미제의 극동정책과 조선』, 사회과학출판사, 1987.
- 한경구,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영향: 문화인류학적 측면에 관한 시론」, 『분단강원의 이해』, 강원사회연구회, 한울, 1999.
- Jeffrey Grey, 『The Commonwealth armies and the Korean War : an alliance stud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 Allen S. Whiting, 『중국이 압록을 건너다: 한국 전쟁에 참전으로의 결정(China crosses)』, (뉴욕: The Macmillan Company, 1960.
- David Tsui, 「(한국전쟁)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 1949년 5월부터 1951년 7월까지」,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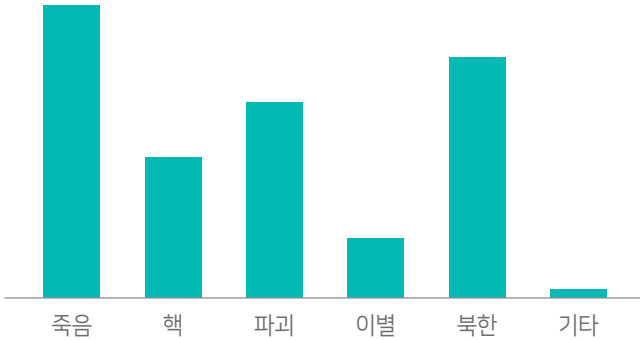
강원도민 의식조사를 통해 본 한국전쟁 심상(心象)

강원사회조사연구소(Kangwon Social Research Center)에 의뢰한 “2018 강원도민 의식조사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전쟁에 관한 강원도민 의식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전반적인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학술자료를 구축하고 학계에 강원지역 연구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런 조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임의추출(random sampling)했다. 숙달된 면접인(trained interviewer)이 실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춘천시·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¹²²⁾으로 했다.

-
- 122) ○ 조사지역: 강원도 춘천시·강릉시
 ○ 표본추출방법: 임의 추출
 ○ 표본의 크기: 240명(유효표본)
 ○ 조사방법: 1:1 개별 방문 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조사일시: 2018월 6월 27일 ~ 7월 4일(7일간)
 ○ 조사기관: 강원사회조사연구소

【전쟁 연상 이미지】

문1) 귀하께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 전쟁 연상 이미지 빈도표】

N(전체응답수)=239, 단위: %

항목	빈도	퍼센트(%)
죽음	78	32.6
핵	32	13.4
파괴	51	21.3
이별	14	5.9
북한	63	26.4
기타	1	0.4
합계	239	100.0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죽음’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 26.4%, ‘파괴’ 21.3%, ‘핵’ 13.4%, ‘이별’ 5.9%, ‘기타’ 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이미지는 죽음과 북한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보편적 강원도의 이미지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쟁과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남한 전반에 걸쳐있는 이미지인 것이다. 또한 파괴의 이미지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이며 이별은 보편적인 이산(離散)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핵(核, nucleus)이 13.4%인 것은 아마도 지속적인 미디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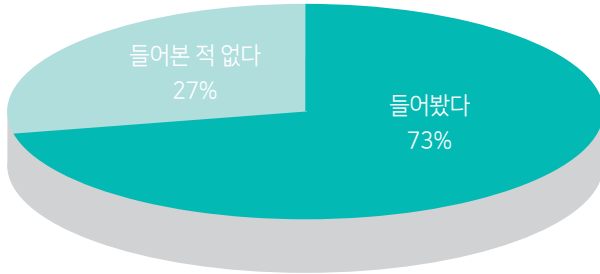
【표. 전쟁 연상 이미지 빈도표】

	사례 수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						계	
		죽음	핵	파괴	이별	북한	기타	%	
		%	%	%	%	%	%	%	
전체	(239)	32.6	13.4	21.3	5.9	26.4	0.4	100.0	
지역	강릉	(119)	32.8	13.4	21.8	5.9	25.2	0.8	100.0
	춘천	(120)	32.5	13.3	20.8	5.8	27.5	-	100.0
성별	남자	(119)	27.7	13.4	27.7	3.4	26.9	0.8	100.0
	여자	(120)	37.5	13.3	15.0	8.3	25.8	-	100.0
연령	20대	(40)	35.0	20.0	15.0	5.0	22.5	2.5	100.0
	30대	(44)	27.3	9.1	31.8	6.8	25.0	-	100.0

		사례 수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						계
			죽음	핵	파괴	이별	북한	기타	%
			%	%	%	%	%	%	
연령	40대	(52)	32.7	9.6	25.0	7.7	25.0	-	100.0
	50대	(52)	34.6	13.5	19.2	3.8	28.8	-	100.0
	60대 이상	(51)	33.3	15.7	15.7	5.9	29.4	-	100.0
거주 기간	10년 이내	(23)	47.8	13.0	26.1	4.3	8.7	-	100.0
	11~20년	(30)	36.7	13.3	16.7	6.7	23.3	3.3	100.0
	21~30년	(58)	29.3	17.2	20.7	5.2	27.6	-	100.0
	31~40년	(51)	27.5	9.8	25.5	11.8	25.5	-	100.0
	41~50년	(33)	39.4	12.1	21.2	-	27.3	-	100.0
	50년 이상	(44)	27.3	13.6	18.2	4.5	36.4	-	100.0
	농축산 어업	(10)	30.0	10.0	30.0	10.0	20.0	-	100.0
	사무직	(86)	40.7	12.8	22.1	1.2	23.3	-	100.0
직업	노무직	(11)	27.3	18.2	27.3	9.1	18.2	-	100.0
	판매 서비스직	(40)	25.0	17.5	20.0	5.0	30.0	2.5	100.0
	자영업	(32)	21.9	21.9	28.1	3.1	25.0	-	100.0
	전업 주부	(36)	30.6	8.3	16.7	13.9	30.6	-	100.0
	학생	(11)	36.4	9.1	9.1	18.2	27.3	-	100.0
	무직	(12)	41.7	-	8.3	8.3	41.7	-	100.0
	기타	(1)	-	-	100.0	-	-	-	100.0

【가족에 의한 한국전쟁 간접 경험】

문2) 귀하께서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표. 가족에 의한 한국전쟁 간접 경험 빈도표】

N(전체응답수)=240, 단위: %

항목	빈도	퍼센트(%)
들어봤다	175	72.9
들어본 적 없다	65	27.1
합계	2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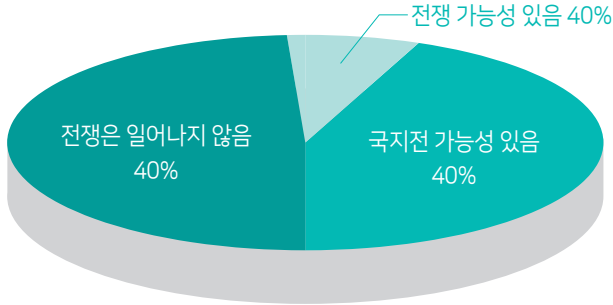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들어봤다’가 72.9%로 ‘들어본 적 없다’ 27.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들어봤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국전쟁에 관해 의식적으로 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원도민의 70% 이상이 아직도 한국전쟁에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인식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 가족에 의한 한국전쟁 간접 경험 교차분석표】

	사례 수	가족, 친지로부터 한국전쟁에 대해 들은 적 있는지		계	
		들어봤다(%)	들어본 적 없다(%)	%	
전체	(240)	72.9	27.1	100.0	
지역	강릉	(120)	72.5	27.5	100.0
	춘천	(120)	73.3	26.7	100.0
성별	남자	(119)	77.3	22.7	100.0
	여자	(121)	68.6	31.4	100.0
연령	20대	(40)	50.0	50.0	100.0
	30대	(45)	66.7	33.3	100.0
	40대	(52)	67.3	32.7	100.0
	50대	(52)	80.8	19.2	100.0
	60대 이상	(51)	94.1	5.9	100.0
거주 기간	10년 이내	(23)	56.5	43.5	100.0
	11~20년	(30)	60.0	40.0	100.0
	21~30년	(58)	80.8	37.9	100.0
	31~40년	(52)	75.8	19.2	100.0
	41~50년	(33)	93.2	24.2	100.0
직업	50년 이상	(44)	90.0	6.8	100.0
	농축산어업	(10)	67.4	10.0	100.0
	사무직	(86)	100.0	32.6	100.0
	노무직	(11)	100.0	-	100.0
	판매서비스직	(40)	60.0	40.0	100.0
	자영업	(32)	71.9	28.1	100.0
	전업주부	(37)	78.4	21.6	100.0
	학생	(11)	72.7	27.3	100.0
	무직	(12)	100.0	-	100.0
	기타	(1)	100.0	-	100.0

【전쟁 가능성】

문3) 귀하께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전쟁 가능성 빈도표】

N(전체응답수)=240, 단위: %

항목	빈도	퍼센트(%)
전쟁 가능성 있음	25	10.4
국지전 가능성 있음	96	40.0
전쟁은 일어나지 않음	119	49.6
합계	240	100.0

전쟁 가능성에 대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40.0%)’, ‘다시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0.4%)’ 순으로 나타나, 남북 분단 이래 전쟁의 두려움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대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50% 가까이 나온 반면 전쟁, 국지전의 가

능성도 50%정도 나왔다. 이것은 아직도 강원도가 한국전쟁의 상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표. 가족에 의한 한국전쟁 간접 경험 교차분석표】

	사례 수	전쟁 가능성			계
		다시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전체	(240)	10.4	40.0	49.6	100.0
지역	강릉 (120)	13.3	45.0	41.7	100.0
	춘천 (120)	7.5	35.0	57.5	100.0
성별	남자 (119)	12.6	44.5	42.9	100.0
	여자 (121)	8.3	35.5	56.2	100.0
연령	20대 (40)	20.0	45.0	35.0	100.0
	30대 (45)	13.3	37.8	48.9	100.0
	40대 (52)	3.8	40.4	55.8	100.0
	50대 (52)	9.6	46.2	44.2	100.0
거주 기간	60대 이상 (51)	7.8	31.4	60.8	100.0
	10년 이내 (23)	21.7	43.5	34.8	100.0
	11~20년 (30)	16.7	33.3	50.0	100.0
	21~30년 (58)	12.1	43.1	44.8	100.0
	31~40년 (52)	5.8	40.4	53.8	100.0
직업	41~50년 (33)	6.1	39.4	54.5	100.0
	50년 이상 (44)	6.8	38.6	54.5	100.0
	농축산어업 (10)	-	30.0	70.0	100.0
	사무직 (86)	14.0	41.9	44.2	100.0
	노무직 (11)	-	45.5	54.5	100.0
	판매서비스직 (40)	7.5	52.5	40.0	100.0
	자영업 (32)	6.3	37.5	56.3	100.0

	사례 수	전쟁 가능성			계	
		다시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직업	전업주부	(37)	5.4	27.0	67.6	100.0
	학생	(11)	27.3	45.5	27.3	100.0
	무직	(12)	25.0	33.3	41.7	100.0
	기타	(1)	-	-	100.0	100.0

연령별로 보면, 바로 부모세대가 한국전쟁 겪은 중·장년, 노년층보다 2030세대가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로서 2030세대가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춘천과 강릉의 젊은 세대가 아직도 전쟁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전쟁에 대한 인식을 강원도민 성향 분석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전쟁에 대한 이미지로 죽음(32.6%)에 이어 북한(26.4%)을 꼽아 남북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강원도민들은 실질적인 전쟁 위협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전쟁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는 응답이 73%에 달해 전쟁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50대 이상은 80% 이상이 들어봤다고 응답했고, 20대는 50%만이 들어봤다고 응답해 연령대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 같으냐는 물음에 국지전일지라도 50%가 전쟁 발발 가능

성 있다고 응답해 강원도민들은 전쟁가능성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팽팽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 60.8%로 가장 높았지만 반면 20대는 35%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일수록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기대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Gangwon-do Area from the View of the U.S. Army during the Korean War a summary sentence

Eum, Hyun-sup

The Korean War is a war fought by U.N. forces, Chinese and Russian forces, and it is a historical event that determines the situation of modern Korea. Therefore, To fully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Korean War a foreign war materials related to the Timber is essential. Currently,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is striving to collect various micro-history data in addition to establishing political affairs for the Korean War, but it is still a long way off to build data related to foreign countries as the main focus of attention is o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particular, precious witnesses to the Korean War are rapidly disappearing from history as overseas soldier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War are aging and the death toll has risen sharply. Building systematic data on foreign veterans and veterans is a vital and urgent task for the study of the Korean War. In order not to forget the history of Korean War, foreign veterans have spared no effort to build monuments and symbols, establish large-scale museum exhibitions, establish a war association, publish hundreds of books of newspapers, host national regular meetings, hold memorial ceremonies and build cultural programs. It is necessary to secure diverse perspectives on the Korean War through the collec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related to the Korean War by major foreign warring countries.

The U.S.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have relatively systematic data on Korean War participation, and these data mostly help them understand the true state of the Korean War. With millions of troops deployed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casualties, the implications of the war-torn countries are far greater than we can easily imagine. This is also illustrated by the presence of veterans whenever there is a single event related to the Korean War and the government's treatment of them at the highest level. The related parties of the government, military, veterans' associations, museums, and scholars are continuing to preserve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In order to find 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in a comprehensive manner through securing abundant feed, various materials from overseas war-fighting countries need to be collected. A foreign war the countries of the Korean War legacy and type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s closely connected. At various levels, the "Korean War" is "living breath"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proposals for the founding of the association of veterans, government approval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war associations, the establishment of monuments, confirm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and testimonies, exhibitions through cooperation from academia and museums, mutual assistance from institutions related to overseas warring countries, the memory of the government, veterans, the general public and the media, and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reorganization and list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materials related to the Korean War by foreign war-torn countries is essential for the study of the Korean War. The veterans' association, formed around overseas veterans, has

consistently been deeply related to Korea. However, we did not show a sincere interest in them. They are in many cases, administrative authorities at an event to be used mechanically as a means of often invited.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findings of the study, they have faced their few remaining lives and provided their descendants with opportunities to commemorate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Thus, they have pushed for the construction of several monuments in the symbolic locations of their countries, and have prepared for their descendants to visit Korea to commemorate the Korean War by leaving various monuments in the Korean War. It is an important duty of domestic researchers to organize the stories and records of these tearful processes of overseas veterans and their results and to let our people share them.

Research results and joint research are also being conducted in the history and social science circles, which contain the question of how the Korean War affected the community. This research trend can be found in common that it adopts a local survey and oral methodologies that approach the Korean War and the region as a single code. Therefore, peopl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living world of the people rather than the natural ruling class, and unlike conventional war research, the cultural and social aspects of war are well revealed. However, tracking down an individual's life through these methodologies sometimes presents unexpected difficulties in the life history of the day. While most of the big events of the time were faithfully witnessed and documented by many, the information on the everyday lives of ordinary people is very small and fragmentary, even if there is no record at all. After all, the trivial daily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went missing in history, or the secret lives of

any individual, are bound to be rebuilt or restored through imagination by writers based on given information or factual records. To say fiction here does not mean falsehood, which is the opposite of truth. In the margin of time that history has missed and skipped, literature is a renewed restoration of the missing individual's small life and track records into possible fictional facts.

As mentioned earlier, this study studied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and intended to promote it to the research list, because it is hard to overlook the influence of the U.S. Therefore, the status of the Korean War needs to be looked at in the midst of the U.S. war. It should look at why and why the Korean War became “The Forgotten War” or “The Ignored War.” KWV pharmacists will also need to identify the status and content of ‘The Greybeards’. More important is to identify Gangwon Province and its locality, which the U.S. military has viewed. Currently, the Korean War research has not been conducted due to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Ideological issues are still at work because of the existing interests among the warring parties and the political dynamics. Of course, it is not necessary to rule out ideological positions and subjectivity in historical research, but it is necessary to guard against closed views by collecting as much as possible multiple views. It is time for a new paradigm for Korean War research as well. This study is highly differentiated in that it is a work to gradually portray the overall form of the Korean War by micro-collecting various views of the United States from daily life and culture. Our study of the Korean War has been conducted mainly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the Korean War was a large-scale international war in which dozens of countries

except the two Koreas participated. For example, the size of China's veterans remains unknown and is likely to be several times as many as the million people currently know. The Korean War was a war that almost reached the brink of World War III. Since the views of the foreign war-torn countries are uniform and uneven, it is feared that they will fall into an extremely narrow, closed view if they define the Korean War simply as a matter of national or ideological issues. The Korean War is a complicated world historical event that can only be expected to recognize its essence when it seeks to acquire a holistic view. Related to the Korean War situation, for example, in which the U.S. overwhelmingly led the situation, the parties concerned with the Korean War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are very concerned that the Korean War will be "forgotten war" or "forgotten war." This background can b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us to re-recognize the war as it relates to the Korean War. The planning of this study, of course, may not be enough to reveal the full extent of the Korean War, but it will contribute to the re-recognition of Korean War research by excavating and organizing materials that have been forgotten to most people regarding the Korean War.

강원학학술총서 14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Inc)와
『그레이비어즈(The Graybeards)』

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지은이 : 엄현섭

펴낸곳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주 소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전 화 : 033.250.2980

ISBN 978-89-5705-776-6 93910

※ 이 책은 2019년 강원연구원에서 추진한 '강원학 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로,
강원연구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한국전쟁기 미군(美軍)이 바라본
강원(江原)지역 연구


비매품/무료


93910



9 788957 057766

ISBN 978-89-5705-776-6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